2026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목 차

0. 전체 5
1. 중국 17
2. 일본 31
3. 대만 43
4. 미국 55
5. 홍콩 69
6. 필리핀 81
7. 베트남 93
8. 싱가포르 105
9. 인도네시아 117
10. 태국 129
11. 말레이시아 141
12. 캐나다 153
13. 호주 165
14. 러시아 177
15. 인도 189
16. 프랑스 201
17. 독일 213
18. 영국 227
19. 몽골 239
20. 멕시코 251
21. 키지흐스탄 261
22. 네덜란드 273
23. 튀르키예 283
24. 브라질 295
25. 사우디아라비아 305
26. 아랍에미리트 317

* 수록 국가(2025년 입국관광통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전체



5

요약 | 전체

<table>
<tr><th>구분</th><th colspan="8">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 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 colspan="2">주요 방한국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18,936,562명
(+15.7%)</td><td colspan="2">중국(548만 명)
일본(356만 명)</td><td>인천공항
(65.4%)</td><td>김해공항
(8.3%)</td><td>20대 여성
(19.1%)</td><td>30대 여성
(12.9%)</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실태</td><td>재방문율</td><td colspan="3">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목적
(상위 2위)</td><td rowspan="4">2025 외래 관광객 조사</td></tr>
<tr><td>56.6%</td><td>한류 콘텐츠
(40.1%)</td><td colspan="2">전통문화
(32.1%)</td><td>개별여행
(80.1%)</td><td>단체여행
(11.5%)</td><td>여가
(70.9%)</td><td>사업
(15.2%)</td></tr>
<tr><td colspan="3">지역 방문 형태</td><td>체재
기간</td><td>1인
지출</td><td>1일
지출</td><td>전반적
만족도</td></tr>
<tr><td>수도권 한정
(67.3%)</td><td>지방 한정
(18.3%)</td><td colspan="2">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td><td>6.5일</td><td>USD
1,802.3</td><td>USD
321.9</td><td>97.5%</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4">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23.3%</td><td>일본
(64.9%)</td><td colspan="2">한국
(55.2%)</td><td>싱가포르
(49.6%)</td><td>일본
(27.4%)</td><td>한국
(16.7%)</td><td>중국
(9.6%)</td></tr>
<tr><td colspan="4">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로 ‘한국’ 선택 시 결정 영향 요인
(상위 4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짧은 이미지
(43.3%)</td><td>음식/식문화
(38.2%)</td><td colspan="2">대중매체
(37.0%)</td><td>주변인 추천
(36.1%)</td><td>불편한 언어소통
(24.6%)</td><td>한류 관심 부재
(24.2%)</td><td>여행지로서 낮은 인지도
(23.3%)</td></tr>
<tr><td rowspan="2">해외 여행 수요</td><td>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74.5%</td><td>58.8%</td><td colspan="2">역사/문화 경험
(53.5%)</td><td>일상 벗어나기
(52.4%)</td><td>경제적 여유 부족
(47.0%)</td><td>해외여행 무관심
(30.4%)</td><td>경비/물가 상승
(29.4%)</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외래객 수는 18,936,562명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2019년 대비 108.2% 회복)

⇒ 2019년 17,502,756명, 2020년 2,519,118명, 2021년 967,003명, 2022년 3,198,017명, 2023년 11,031,665명, 2024년 16,369,629명, 2025년 18,936,562명

✔ **(방한 비중)**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중국이 28.9%(5,480,969명)의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이어 일본(3,563,137명, 19.3%), 대만(1,891,414명, 10.0%), 미국(1,483,240명, 7.8%), 홍콩(623,149명, 3.3%), 필리핀(615,141명, 3.2%) 등 순

⇒ 대륙별로는 '아시아'(15,241,754명, 80.5%)가 대부분을 차지함. 이어 '미주'(1,961,397명, 10.4%), '구주'(1,315,545명, 6.9%) 등 순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외래객의 방문 시기는 동계 시즌(1~2월, 110만 명 대)을 제외하고, 매달 150~180만 명 대를 기록하며 비교적 고른 편임

⇒ 8월(1,820,332명), 10월(1,739,020명), 7월(1,733,199명), 4월(1,707,113명), 9월(1,702,813명), 5월(1,629,387명), 6월(1,619,220명), 3월(1,614,596명), 11월(1,596,939명), 12월(1,518,292명) 등 순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외래객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12,391,887명, 65.4%). 이어 '김해공항'(1,567,990명, 8.3%), '제주공항'(1,373,877명, 7.3%), '김포공항'(1,222,327명, 6.5%), '기타항구'(1,114,189명, 5.9%), '부산항구'(511,732명, 2.7%), '제주항구'(281,909명, 1.5%), '인천항구'(243,979명, 1.3%), '기타공항'(228,672명, 1.2%) 순. 참고로 '공항'과 '항구'의 비중은 각각 88.7%, 11.4%를 차지함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외래객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30대 젊은 여성층이 전체 방한 외래객의 32% 가량을 차지함. '20대 여성'(3,385,285명, 19.1%), '30대 여성'(2,285,221명, 12.9%), '30대 남성'(1,577,360명, 8.9%), '40대 여성'(1,508,838명, 8.5%), '20대 남성'(1,503,918명, 8.5%) 등 순. 참고로 전체 외래객에서 승무원은 6.5%(1,232,613명)를 차지함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 **(재방문율)** 방한 외래객의 재방문율은 56.6%이며, 재방문자의 평균 방한 횟수는 3.9회
- ✔ **(관심 계기)** 방한 외래객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주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40.1%)이며, 이어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26.9%),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25.7%), 과거 방문 경험이 좋아서(24.7%), 계획한 여행 경비에 적합한 여행지여서(21.5%),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하고 나서(21.4%) 등 순
- ✔ **(주요 목적)** 방한 외래객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70.9%)이며, 이어 사업 또는 전문활동(15.2%), 친구/친지 방문(10.1%), 교육(3.4%) 등 순
- ✔ **(여행 형태)** 방한 외래객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80.1%) 이며, 단체여행은 11.5%, 에어텔은 8.3% 차지
- ✔ **(방문 지역)** 방한 외래객의 주요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76.8%)이며, 이어 부산(15.7%), 경기 (11.2%), 제주(9.7%), 인천(6.1%), 강원(4.0%) 등 순

  ⇒ 방한 외래객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67.3%), 지방 한정(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14.4%)으로 구분, '수도권 한정 방문' 외래객이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
- ✔ **(참여 활동)** 방한 외래객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식도락 관광(81.6%)과 쇼핑(80.3%) 이며, 이어 자연경관 감상(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35.3%), 박물관/전시관 관람(21.4%), 휴양/휴식(17.4%) 등 순
- ✔ **(쇼핑 장소)** 방한 외래객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0.9%)이며, 이어 대형 쇼핑몰(39.1%), 백화점(34.5%) 등 순
- ✔ **(쇼핑 품목)** 방한 외래객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71.3%)이며, 이어 식료품(56.2%), 의류(49.7%), 신발류(16.7%) 등 순
-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외래객은 한국에 평균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1,802.3 및 1일 평균 USD321.9를 지출
- ✔ **(만족도 평가)** 방한 외래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2.5%, 타인추천 의향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외국인 전체 응답자(n=16,360명)의 23.3%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전체 일반 외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9,623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64.9%), 한국(55.2%), 싱가포르(49.6%), 태국(49.4%), 중국(47.5%) 등 순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전체 일반 외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의향자(n=8,406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27.4%), 한국(16.7%), 중국(9.6%), 태국(9.3%), 싱가포르(9.2%) 등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전체 일반 외국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1,447명)는 방문 결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이미지(43.3%), 음식/식문화(38.2%), 대중매체(37.0%),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인 추천(36.1%)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전체 일반 외국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2,380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1+2+3순위 기준)로 불편한 언어소통(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23.3%),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20.5%), 적당하지 않은 여행 경비 및 물가(19.0%) 등을 꼽음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불편한 언어 소통' 선택자(n=586명)의 경우 현지인과의 기본 소통(73.4%)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의사 전달(61.5%)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가 높게 나타남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선택자(n=553명)의 경우 주변에 한국여행 경험자 없음(53.7%) 이외 한국 또는 한국여행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 없음(40.5%), 자국에서 인기 해외여행 목적지로 손꼽히지 않음(37.3%) 등을 이유로 꼽음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 선택자(n=489명)의 경우 자국/자국민 관련 한국의 부정 보도(53.9%), 북한과의 사건/사고 보도(46.6%), 한국 내 사건/사고 보도(46.3%), 온라인상에서 한국 및 한국 여행 관련 부정적 게시글 경험(41.1%) 등을 주로 꼽음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여행 경비 및 물가' 선택자(n=453명)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체류 기간은 9.3일이며, 지출 금액은 USD2,574.4로 나타남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전체 방한 의향자(n=16,360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38.9%), 주변 사람 추천(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29.6%), OTT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콘텐츠 시청(25.6%), TV 등 대중 매체를 통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25.3%), 한국공공기관 홍보 및 마케팅(22.1%), 여행 관련 블로그(21.8%) 등 순

✔ **(방한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또는 활용할 주요 사이트)**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주국(1+2+3순위 기준)에서 'YouTube'의 활용률이 1~2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TikTok', 'Instagram', 'Facebook', 'Netflix' 등의 활용도 또한 높은 편

⇒ 'YouTube'는 브라질(71.7%), 인도네시아(70.1%), 대만(66.0%) 등에서, 'TikTok'은 베트남(63.4%), 인도네시아(56.0%), 사우디아라비아(54.5%), 태국(53.2%) 등에서, 'Facebook'은 몽골(78.0%), 필리핀(66.9%), 베트남(63.6%) 등에서 높은 활용률 기록. OTT 플랫폼인 'Netflix'는 태국(29.4%), 멕시코(27.7%), 인도네시아(27.4%), 인도(27.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도가 예상됨. 한편, 중국의 경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에 따라 'Douyin'(43.6%), Xiaohongshu'(32.3%) 등의 자국 플랫폼 활용률이 높게 나타남

⇒ 몽골의 경우 유일하게 'SNS/동영상 플랫폼 활용 계획 없음'(8.4%) 비중이 상위 5위에 포함됨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전체 일반 외국인(n=16,360명)의 78.9%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 일반 외국인이 경험한 주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44.0%) 이며, 이어 한국 드라마(36.5%), 한국 영화(34.8%), 한국 대중가요(27.6%), 한국 뷰티(26.4%), 한국 패션(21.6%)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일반 외국인 중 한국 문화 경험자(n=12,902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5.4%), 한국 드라마(16.9%), 한국 영화(12.7%), 한국 뷰티(10.4%), 한국 대중가요(8.9%)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해외 거주자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율은 전년(65.5%) 대비 6.2%p 증가한 71.7% 기록

⇒ 방문 빈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월 2.0회이며.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전년 대비 2.5%p 증가한 93.1% 기록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28.3%)과 김치(29.0%) 이며, 이어 비빔밥(19.9%) 라면(16.6%), 불고기(14.0%), 만두(13.3%)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기준 방한 외국인 환자는 2,011,822명으로, 전년(1,170,467명) 대비 71.9% 증가(통계가 집계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 돌파, 연평균 증가율 24.5%)

⇒ 국적별로는 중국(618,973명, 30.8%)과 일본(600,009명, 29.8%)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 이어 대만(185,715명, 9.2%), 미국(173,363명, 8.6%), 태국(58,124명, 2.9%), 싱가포르(43,222명, 2.1%), 몽골(35,586명, 1.8%), 캐나다(23,624명, 1.2%), 베트남(23,133명, 1.1%), 인도네시아(21,257명, 1.1%), 러시아(20,262명, 1.0%), 호주(20,006명, 1.0%) 등 순.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요국 중 중국(+137.5%), 대만(+122.5%), 인도네시아(+104.6%), 미국(+70.4%), 싱가포르(+62.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진료 과목의 경우 피부과가 1,312,700명(62.9%)으로 가장 규모가 컸음. 이어 성형외과(233,100명, 11.2%), 내과통합(192,208명, 9.2%), 검진센터(65,228명, 3.1%) 등 순. 전년 대비 증가율은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가 높게 나타남

⇒ 주요 고객은 여성(1,706,341명, 84.8%)과 20대(701,338명, 35.4%) 및 30대(676,652명, 34.1%). 전년 대비 증가율은 여성(+74.4%)과 30대 및 40대(각 +83.6%)에서 높게 나타남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1,755,002명, 87.2%) 이며, 이어 부산(75,879명, 3.8%), 경기(54,085명, 2.7%), 제주(47,028명, 2.3%), 인천(26,483명, 1.3%), 대구(19,243명, 1.0%) 등 순. 전년 대비 증가율은 부산(+151.5%)과 제주(+114.7%)에서 두드러짐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해외 거주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2.3%로, 전년(79.0%) 대비 3.3%p 증가함

⇒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중복응답 기준)은 문화콘텐츠(45.2%)이며, 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전통문화유산(19.7%), 문화 예술(19.2%), 과학 기술(18.4%), 관광(16.8%)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해외 거주 외국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17.5%) 이며, 이어 한국 음식(12.1%), 한국 드라마(9.5%), 뷰티 제품/화장품(6.2%), 한국 영화(5.9%) 등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World Tourism Barometer」(2026.9)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전 세계 국제방문객 수는 2019년 1,479백만 명, 2020년 413백만 명, 2021년 468백만 명, 2022년 991백만 명, 2023년 1,339백만 명, 2024년 1,474백만 명, 2025년 1,544백만 명(잠정치*). 2019년 대비 104.4% 수준 기록

⇒ 2025년 기준(잠정치*) 권역별 국제방문객 수는 '유럽'이 808.3백만 명(52.4% 차지, 전년 대비 4.4% 증가)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이어 '아시아·태평양'(336.6백만 명, 21.8% 차지, 전년 대비 7.6% 증가), '미주'(219.3백만 명, 14.2% 차지, 전년 대비 1.4% 증가), '아프리카'(79.6백만 명, 5.2% 차지, 전년 대비 7.2% 증가), '중동'(100.2백만 명, 6.5% 차지, 전년 대비 3.8% 증가) 순으로, 증가율 자체는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권역이 7% 대로 두드러짐

⇒ 단, 2026년에 들어 발생한 중동 분쟁, 서유럽 폭염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국제방문객은 1분기 성장(+2.0%)에서 2분기 역성장(-0.8%)으로 전환됨. 특히, '중동' 지역 국제방문객의 경우 1분기(-13.3%), 2분기(-32.8%)에 큰 폭의 하락이 이뤄짐

✔ **(해외여행 목적지)** 2025년 기준 국제방문객의 주된 목적지(상위 5위, 잠정치*)는 프랑스(TF : 미발표), 스페인(TF : 96.8백만 명), 미국(TF : 68.3백만 명), 튀르키예(TF : 62.0백만 명), 이탈리아(TF : 61.3백만 명) 등 순

⇒ 참고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 주요 목적지(상위 5위)는 프랑스(TF : 90.9백만 명), 스페인(TF : 83.5백만 명), 미국(TF : 79.4백만 명), 중국(TF : 65.7백만 명), 이탈리아(TF : 64.5백만 명) 등 순

※ 중국은 2024년부터 해외여행객 통계 미발표

• TF :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at frontiers(excluding same-day visitors), 숙박관광객만 포함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2019년 31,882,049명,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 2022년 3,832,110명, 2023년 25,066,350명, 2024년 36,870,148명, 2025년 42,683,301명

⇒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15.8% 증가(2019년 대비 133.9% 회복)

⇒ 2025년 기준 한국(9,459,711명, 22.2%), 중국(9,095,931명, 21.3%), 대만(6,763,424명, 15.8%) 등 동북아 3개국이 전체 방일 외래객의 59.3% 차지. 이어 미국(3,306,820명, 7.7%), 홍콩(2,517,399명, 5.9%), 태국(1,233,103명, 2.9%), 호주(1,058,396명, 2.5%), 필리핀(885,023명, 2.1%), 싱가포르(726,251명, 1.7%), 캐나다(688,019명, 1.6%), 베트남(678,594명, 1.6%), 인도네시아(640,577명, 1.5%), 말레이시아(636,575명, 1.5%), 영국(535,004명, 1.3%), 프랑스(457,566명, 1.1%), 독일(429,479명, 1.0%) 등 순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전체 일반 외국인(n=16,360명)의 74.5%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58.8%이며, 예상 여행 횟수는 3.8회임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외국인 중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있는 응답자(n=9,623명)의 주된 영향 요인(1+2+3순위 기준)은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외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응답자(n=3,256명)의 주된 이유(1+2+3순위 기준)는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47.0%)이며, 이어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29.4%), 해외여행 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26.7%) 등 순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World Tourism Barometer」(2026.9)」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중국



17

요약 | 중국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5,480,969명 (+19.1%)		28.9% (1위)	인천공항 (55.0%)	제주공항 (17.6%)	20대 여성 (23.6%)	30대 여성 (15.7%)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54.3%	한류 콘텐츠 (45.2%)	이동거리/ 비행시간 적합(31.4%)	개별여행 (89.6%)	단체여행 (9.6%)	여가 (75.1%)	사업 (9.8%)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64.9%)	지방 한정 (27.0%)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8.1%)	6.4일	USD 1,749.1	USD 332.5	97.5%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40.7%	홍콩 (66.8%)	마카오 (62.4%)	한국 (62.3%)	한국 (25.5%)	일본 (17.8%)	홍콩 (13.8%)	
	방한 정보 획득 채널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채널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Douyin (43.6%)	Xiaohongshu (32.3%)	Ctrip (38.1%)	Fliggy (24.0%)	한류 관심 부재 (29.2%)	부정적인 한국 이미지 (22.3%)	문화/역사 유적지 부족 (19.0%)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71.8%	68.9%	여유로운 일상 (50.0%)	역사/문화 경험 (49.5%)	경제적 여유 부족 (34.7%)	시간 부족 (32.5%)	해외여행 무관심 (29.4%)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중국인 수는 5,480,969명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2019년 대비 91.0%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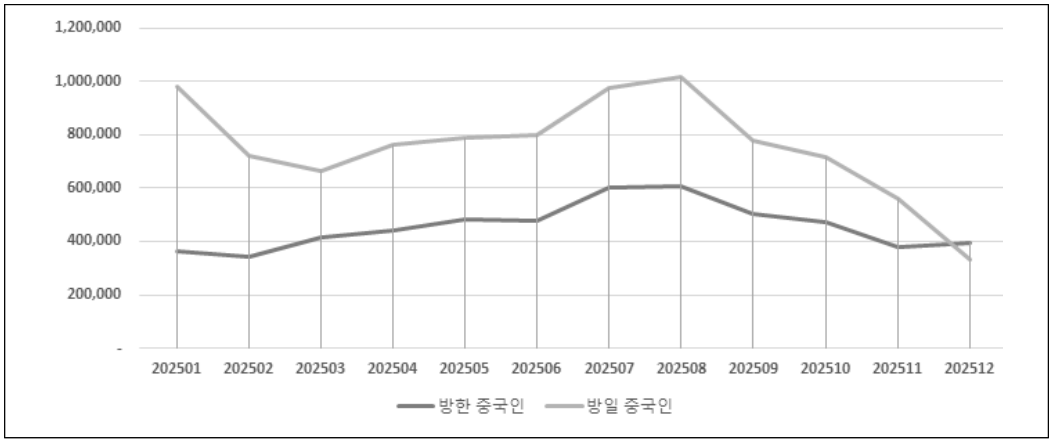
⇒ 2019년 6,023,021명, 2020년 686,430명, 2021년 170,215명, 2022년 227,358명, 2023년 2,019,424명, 2024년 4,603,273명, 2025년 5,480,969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중국인은 28.9%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위를 기록

⇒ 2019년 34.4%(1위), 2020년 27.2%(1위), 2021년 17.6%(2위), 2022년 7.1%(3위), 2023년 18.3%(2위), 2024년 28.1%(1위), 2025년 28.9%(1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중국인의 방문 시기는 8월(604,618명), 7월(602,147명), 9월(503,186명), 5월(484,390명), 6월(477,052명), 10월(472,477명), 4월(443,230명) 등 순. 통상적으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7~8월(여름방학), 9월(중추절), 10월(국경절) 등 하반기에 있는 연휴 및 방학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눈여겨볼 만한 점은 12월에 393,834명의 중국인이 방한하면서, 연중 처음으로 방일 중국인 수(330,435명)를 앞지르는 전환점을 맞이함(※2025년 11월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월별 방한 및 방일 중국인 현황



출처 :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중국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3,012,021명, 55.0%), '제주공항'(965,139명, 17.6%), '기타 항구'(681,939명, 12.4%) 등 순. '인천공항' 이외 '제주공항'을 통한 입국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중국인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1,252,557명, 23.6%)과 '30대 여성'(831,364명, 15.7%)으로 나타남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중국인의 재방문율은 54.3%[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3.7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중국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45.2%),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31.4%),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 및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하고 나서(각 21.1%) 등 순으로 나타남. 조사 대상국 중 '한류 콘텐츠'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중국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75.1%), 사업 또는 전문활동(9.8%), 친구/친지 방문(8.0%), 교육(6.4%)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교육' 목적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중국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89.6%)과 단체여행(9.6%)이며, 에어텔은 0.8% 만을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중국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68.1%), 제주(21.7%), 경기(9.5%), 인천(6.8%), 부산(6.7%)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제주' 방문 비중은 가장 높지만, '부산'과 '서울' 방문 비중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중국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64.9%), 지방 한정(27.0%),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8.1%)으로 구분, 조사 대상국 중 '지방 한정' 방문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중국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식도락 관광(84.2%), 쇼핑(81.7%), 자연경관 감상(49.8%), 한류 체험(18.6%),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17.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류 체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중국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시내 면세점(54.5%), 로드샵(41.9%), 백화점(33.7%), 대형쇼핑몰(29.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시내 면세점' 방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중국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82.0%), 식료품(47.4%), 의류(44.4%), 담배(16.5%), 신발류(16.4%)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향수/화장품'과 '담배' 구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중국인은 한국에 평균 6.4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1,749.1[전체 : USD1,802.3] 및 1일 평균 USD332.5[전체 : USD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중국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5%[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5.5%[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5.0%[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세부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뚜, 그 외(산둥, 산시, 텐진, 우한 등 29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중국인 전체 응답자(n=2,600명)의 40.7%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 대비 방한 경험자 비중이 17.4%p 상회하며 높게 나타남[전체 : 23.3%]

⇒ 중국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베이징(45.7%), 상하이(42.3%), 광저우(41.2%), 선양(40.4%), 그 외(39.1%), 청두(3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중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1,790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홍콩(중국)(66.8%), 마카오(62.4%), 한국(62.3%), 싱가포르(58.2%), 일본(54.9%) 등 순. 이 중 '마카오'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첫 번째로, '홍콩(중국)'은 세 번째로 높았고,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7.2%p 상회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중국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베이징(70.3%), 광저우(67.7%), 상하이(64.0%), 청두(57.8%), 그 외(56.5%), 선양(5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중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1,727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한국(25.5%), 일본(17.8%), 홍콩(중국)(13.8%), 싱가포르(13.4%), 마카오(7.2%)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홍콩'과 '마카오' 최우선 방문 의향이 가장 높았고,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8.8%p 상회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청두와 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가장 많이 선택함(광저우 34.3%, 선양 29.3%, 베이징 27.2%, 상하이 22.2%, 청두 21.6%, 그 외 9.7% 순). 한편, 청두와 그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청두 27.4%, 그 외 22.7%)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중국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441명)는 그 이유(중복응답 기준)로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이미지(36.1%), 주변인 추천(32.2%), 대중매체(31.0%)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중국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285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9.2%),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22.3%), '매력적인 문화/역사 유적지 부족'(19.0%)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매력적인 문화/역사 유적지 부족'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 선택자(n=64명)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로 '자국/자국민 관련 한국의 부정 보도'(60.5%), '한국 내 사건/사고 보도'(59.9%), '북한과의 사건/사고 보도'(48.8%) 등을 주로 꼽음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중국인(n=2,600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0.1%), '주변 사람 추천'(28.1%),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27.5%) 등 순임[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중국인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Douyin'(43.6%), 'Xiaohongshu'(32.3%), 'BILIBILI'(24.7%)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중국인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Ctrip'(38.1%), 'Fliggy'(24.0%), 'Qunar'(23.2%) 등을 꼽음

한국관광공사 베이징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중국 방한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형성된 개별여행 중심 구조가 지속 중. 2026년에는 자유여행에 현지 데이투어·전용 차량·소규모 투어 등을 결합한 반자유·맞춤형 상품이 더 많이 다양화되는 추세. Ctrip·Fliggy·Tongcheng 등 주요 중국 OTA에서는 항공+호텔 중심의 에어텔과 DIY 상품뿐 아니라 소규모 순수 관광, 자유일정이 포함된 단체+개별 혼합형 상품 등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음. 방한 상품은 서울·제주 등 단일 목적지와 서울+부산 등 복수지역 연계 상품이 주를 이루며, 일정은 주로 3박 4일과 4박 5일의 단기 체류형에 집중되어 있음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중국인 전체 응답자(n=2,600명)의 86.6%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 78.9%]

⇒ 일반 중국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39.7%), 한국 드라마 및 한국 영화(각 35.4%), 한국 예능(25.8%), 한국 뷰티(25.2%), 한국 패션(24.5%) 등 순으로 높음 [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일반 중국인 중 한국 문화 경험자(n=2,252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18.8%), 한국 영화(15.0%), 한국 드라마(13.0%) 등 순 [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76점임 [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중국인(베이징 및 상하이 거주자)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을 살펴보면 베이징 거주자는 78.2%, 상하이 거주자는 81.0%로, 상하이 거주자 한식당 방문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전체 : 71.7%]

⇒ 방문 빈도의 경우 베이징 거주자는 월 2.0회, 상하이 거주자는 월 1.8회를 기록함[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의 경우 베이징 거주자는 96.4%, 상하이 거주자는 95.3%를 기록함[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베이징 및 상하이 거주자 모두 비빔밥(각각 19.8%, 25.9%)과 한국식 치킨(각각 18.5%, 2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중국인은 30.8%(618,973명, 전년 대비 137.5% 증가)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459.521명, 73.4%), 성형외과(57,121명, 9.1%), 내과 통합(52,420명, 8.4%), 검진센터(8,916명, 1.4%), 일반 외과(6,158명, 1.0%) 등 순. 피부·미용 이외 내과 방문 목적 비중이 높음

⇒ 주요 고객은 여성(558,933명, 90.3%)과 20대(243,031명, 39.4%) 및 30대(253,386명, 41.1%)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539,270명, 87.1%), 제주(42,349명, 6.8%), 부산(11,429명, 1.8%)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중국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62.8%[전체 : 82.3%]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게 평가함

⇒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44.0%), 현대생활문화(42.6%), 제품 및 브랜드(26.1%), 문화예술(25.8%), 전통문화유산(23.0%) 등을 꼽음 [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중국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한국 음식(15.2%), 한국 드라마(12.5%), 뷰티서비스/성형(8.4%) 등 순[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등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중국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135,130천 명, 2017년 143,035천 명, 2018년 149,720천 명, 2019년 154,632천 명, 2020년 20,334천 명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숙박관광객만 포함

⇒ 2020년 이후 값은 원자료 미수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는 2019년 9,594,394명, 2020년 1,069,256명, 2021년 42,239명, 2022년 189,125명, 2023년 2,425,157명, 2024년 6,981,342명, 2025년 9,095,931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중국인은 21.3%의 비중을 차지, 전년 대비 30.3% 증가.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는 한국인에 이어 2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세부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뚜, 그 외(산둥, 산시, 텐진, 우한 등 29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중국인 전체 응답자(n=2,600명)의 71.8%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68.9%이며, 예상 여행 횟수는 3.2회임. 전체 평균 대비 해외여행 의향이 10.0%p 높게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 경험 74.5%, 해외여행 의향 58.8%, 해외여행 횟수 3.8회]

⇒ 중국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베이징(80.1%), 광저우(77.7%), 선양(74.0%), 상하이(72.0%), 그 외 (70.8%), 청두(55.6%)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은 선양(74.4%), 광저우(73.1%), 베이징(72.0%), 그 외(64.8%), 상하이(63.8%), 청두(63.4%) 거주자 순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중국인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50.0%),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49.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43.4%) 등 순 [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중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응답자(n=236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34.7%),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32.5%),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29.4%)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중국인 해외여행 현황)** 중국문화여유부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본토 주민의 해외여행은 1.48억 명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그리고 에어비앤비 차이나가 발표한 '2026년 하계 중국 관광객 해외여행 트렌드 보고서' 결과, 한국이 인기 목적지 1위 자리를 차지함(한국, 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순).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이 Z세대이었고, 1~2인 소규모 여행이 70%가량을 차지함

✔ **(일본과의 정치적 갈등과 방문 감소)** 일본정부관광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1월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동년 10월 71.58만 명(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 11월 56.27만 명(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12월 33.04만 명(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 이후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방일 관광객 규모는 171.74만 명(전년 동기 대비 56.2% 감소)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베트남 방문 증가세)** 중국인의 베트남 여행 수요가 2026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글로벌 OTA인 아고다의 조사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중국인의 베트남 숙소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해 주요 해외여행 목적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인도네시아 86% 증가, 필리핀 82% 증가, 태국 65% 증가 등). 이 같은 증가세는 합리적인 여행 비용과 지리적 접근성, 중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 관광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아웃도어 트래킹 열풍)** '2025 중국 소비자 조사' 결과, 2025년 4월 기준 중국 내 아웃도어 활동 참여자 수가 4억 명을 돌파하며 대중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됨. 관련해 샤오홍슈가

발표한 중국 아웃도어 6대 트렌드는 '초간편 피트니스'(전문성 보다 접근성 중심의 가벼운 운동으로 대중화), '감정 해소형 운동'(기능적 측면에서 정서적 치유 및 자아 실현 추구 방향으로 진화), '도심과 자연의 융복합화'(아웃도어 공간이 산에서 도심공원, 복합몰 등으로 확장),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진화'(평일 런닝, 주말 사이클링 등 스포츠의 일상화), '운동 파트너 문화'(사회적 연결과 소속감이 아웃도어 활동의 핵심 동기로 부상), '스포츠 스타 마케팅(전문 경기 관람 및 선수 착용 제품 소비가 여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음)' 등 임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베이징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중국은 노동법 내 직원연차유급휴가 조례(2008년 시행)에 의거, 1년~10년 근로자 5일, 10~20년 근로자 10일, 20년 이상 근로자 15일 등 근속 년수에 의한 유급 휴가 부여를 의무화함. 한편, 중국 연휴는 휴일 조정에 있어 연휴일수가 정해져 있는 대신 전/후 주말에 대체 근무를 실시함. 휴가 수요는 기간이 가장 긴 춘절과 국경절 연휴에 집중되는 편

✔ **(방학 현황)** 초·중·고의 경우 7월~8월(여름방학), 1월 하순~2월 중순(겨울방학)이며, 대학교는 7~8월(여름방학), 1월 중·하순~2월 중·하순(겨울방학)

✔ **(비자/규제 현황)** 중국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83개국으로, 전 세계 59위(2025년 64위, 전년 대비 5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중국인이 한국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하나 다른 선진국 대비 간소한 편이며, 제주도의 경우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함. 참고로 현재 중국은 불법 체류 다발국 21개국(법무부 고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2024년 11월 8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 대해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

⇒ 한국은 2025년 9월 29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 참고로 한국 법무부는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시행함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연간)** 2025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40조 1,879억 위안을 기록함. 경제성장률은 2024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나, 다수 지표가 둔화됨. 수출과 수입은 2024년보다 증가세가 꺾였고, 고정자산투자는 1992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함.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정체되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박이 이어짐

✔ **(2026년 상반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 및 유가 급등으로 2026년 3월부터 중국 내 에너지, 석유제품, 화공제품 시장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22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1개월간 마이너스 흐름을 유지해 온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월 들어 상승세(0.5%)로 전환하는 등 현지에서는 PPI가 조만간 상승세로 전환해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중국 소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일본



31

요약 | 일본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3,653,137명 (+13.3%)		19.3% (2위)	인천공항 (65.8%)	김포공항 (18.3%)	20대 여성 (24.2%)	50대 여성 (10.2%)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76.1%	한류 콘텐츠 (39.8%)	한국 전통문화 (37.6%)	개별여행 (61.1%)	에어텔 (35.4%)	여가 (77.2%)	사업 (12.0%)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85.2%)	지방 한정 (12.9%)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9%)	3.7일	USD 1,007.7	USD 281.0	95.7%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33.7%	대만 (70.2%)	싱가포르 (55.8%)	한국 (55.0%)	한국 (27.9%)	대만 (26.6%)	싱가포르 (14.0%)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54.0%)	Instagram (41.6%)	Rakuten Travel (22.4%)	HIS (18.2%)	부정적인 한국 이미지 (57.5%)	한류 관심 부재 (30.4%)	불안한 신변 (29.0%)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67.8%	36.1%	일상 탈피 경험 (65.0%)	여유로운 일상 (57.6%)	해외여행 무관심 (42.7%)	경제적 여유 부족 (38.4%)	국내 여행 선호 (35.2%)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일본인 수는 3,653,137명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2019년 대비 111.7% 회복)

⇒ 2019년 3,271,706명, 2020년 430,742명, 2021년 15,265명, 2022년 296,867명, 2023년 2,316,429명, 2024년 3,224,079명, 2025년 3,653,137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일본인은 19.3%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2위를 기록

⇒ 2019년 18.7%(2위), 2020년 17.1%(2위), 2021년 1.6%(12위), 2022년 9.3%(2위), 2023년 21.0%(1위), 2024년 19.7%(2위), 2025년 19.3%(2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일본인의 방문 시기는 3월(383,312명), 8월(378,852명), 9월(370,709명), 11월(362,879명), 10월(316,776명) 등 순. 일본인의 방한 수요는 봄 방학 및 졸업 시즌(3월), 여름 성수기, 실버위크(9월)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일본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2,405,116명, 65.8%), '김포공항'(667,319명, 18.3%), '김해공항'(372,884명, 10.2%)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일본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878,461명, 24.2%), '50대 여성'(368,634명, 10.2%), '30대 여성'(354,746명, 9.8%), '40대 여성'(321,103명, 8.9%) 등 순으로, 여성층이 폭넓은 연령대에 걸쳐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일본인의 재방문율은 76.1%[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7.2회[전체 : 3.9회]. 조사 대상국 중 방한 횟수는 첫 번째로, 재방문율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일본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9.8%),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37.6%),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36.2%), 과거 방문 경험이 좋아서(33.9%)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이동거리/비행시간'은 첫 번째로, '과거 방문 경험'은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일본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77.2%), 사업 또는 전문활동(12.0%), 친구/친지 방문(10.0%) 등 순[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일본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61.1%)과 에어텔(35.4%)이며, 단체여행은 3.5% 차지, 조사 대상국 중 '에어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일본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2.2%), 부산(11.0%), 경기(6.1%), 인천(3.7%)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경기' 및 '인천'은 두 번째로, '부산'은 세 번째로 방문 비중이 낮게 나타남[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일본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85.2%), 지방 한정(12.9%),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1.9%)으로 구분, 조사 대상국 중 '수도권 한정'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일본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식도락 관광(92.1%), 쇼핑(85.8%), 자연경관 감상(42.9%), 뷰티/미용과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각 18.7%)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식도락 관광'은 첫 번째로, '뷰티/미용'은 두 번째로, '쇼핑'은 세 번째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일본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61.1%), 대형쇼핑몰(44.0%), 대형마트(40.2%), 백화점(30.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대형마트'는 첫 번째로, '로드샵'은 두번째로 방문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일본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식료품(72.5%), 향수/화장품(68.3%), 의류(51.5%)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식료품' 구매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일본인은 한국에 평균 3.7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1,007.7[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281.0[전체 : USD 321.9] 지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짧게 체류하며, 1인 지출 금액이 가장 적었음

✔ **(만족도 평가)** 방한 일본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5.7%[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1.6%[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5.3%[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세부 지역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그 외(가가와현,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 등 44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일본인 전체 응답자(n=1,670명)의 33.7%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 대비 방한 경험자 비중이 10.4%p 상회하며 높게 나타남 [전체 : 23.3%]

⇒ 일본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도쿄(36.8%), 후쿠오카(34.3%), 오사카(31.8%), 그 외(3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일본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603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대만(70.2%), 싱가포르(55.8%), 한국(55.0%), 태국(44.9%), 홍콩(41.9%) 등 순. 이 중 '대만' 방문 의향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고,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과 동일한 수준임[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일본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그 외(66.2%), 후쿠오카(57.8%), 오사카(53.4%), 도쿄(49.3%) 순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일본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545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한국(27.9%), 대만(26.6%), 싱가포르(14.0%) 등을 꼽음. 이 중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대만'은 첫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등 순]

⇒ 도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가장 많이 선택함 (그 외 34.8%, 오사카 30.3%, 후쿠오카 30.2%, 도쿄 21.6% 순). 한편, 도쿄 거주자는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대만'(27.3%)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일본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152명)는 그 이유(중복응답 기준)로 주변인 추천(40.7%), 음식/식문화(39.3%),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이미지(32.4%)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일본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165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57.5%),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30.4%), '불안한 신변(치안 등)'(29.0%)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와 '불안한 신변'은 첫 번째로,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는 세 번째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그 외 지역을 제외한 세부 지역에서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를 가장 많이 선택함(후쿠오카 72.7%, 오사카 63.9%, 도쿄 53.1% 순)

⇒ 한편,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 선택자(n=95명)는 주된 계기(1+2+3순위 기준)로 '자국/자국민 관련 한국의 부정 보도'(77.1%), '한국 내 사건/사고 보도'(50.3%), '한국 및 한국 여행 관련 부정적 게시글 경험'(42.2%) 등을 주로 꼽음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일본인(n=1,670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4.0%), '주변 사람 추천'(36.3%), 'TV 등 대중매체'(32.8%)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일본인(n=1,670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54.0%), 'Instagram'(41.6%), 'TikTok'(28.7%)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일본인(n=1,670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Rakuten Travel'(22.4%), 'HIS'(18.2%), 'JTB'(17.3%) 등 주로 자국 대형 여행사·OTA를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도쿄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한국 관광의 주요 고객인 2030연령층은 OTA 가격비교와 항공사 프로모션 기간 중 저렴한 항공권 및 호텔을 검색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며, 일반 패키지여행보다는 프리플랜 상품, 에어텔 상품을 선호함.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계층(50대 이상)을 중심으로 타 연령 대비 패키지 상품 구매 비율이 높고, 미식, 축제, 절경, 세계문화유산 등을 탐방하는 13만엔대 이상(약 120만원)의 여행 상품도 인기가 있음. 2025년도에는 규슈, 간사이, 도쿄의 거점공항을 이용한 부산, 제주의 미식/절경 테마 상품, 부산, 경주, 수원, 안동 등 세계유산 탐방 상품, 지방공항(청주공항) 이용 여행 상품, KTX 이용 여행 상품, 함안 낙화놀이/부산 불꽃축제 관람 상품 등 다양한 지역과 테마의 지방 관광 상품이 조성되어 판매되었음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일본인 전체 응답자(n=1,670명)의 59.6%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9.2%p 하회하며 낮음[전체 : 78.9%]

⇒ 일반 일본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38.8%), 한국 드라마(30.6%), 한국 영화(20.8%)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996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41.4%), 한국 드라마(18.5%), 한국 대중가요(9.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33점 [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일본인(도쿄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54.0%[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1.0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72.2%[전체 : 93.1%]. 조사 대상국 중 한식당 방문 빈도 및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김치(41.0%), 비빔밥(28.0%), 만두(13.9%)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방한 외국인 환자 중 일본인은 29.8%(600,009명, 전년 대비 36.0% 증가)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2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399,964명, 66.5%), 성형외과(97,847명, 16.3%), 내과통합(37,855명, 6.3%), 한방통합(23,450명, 3.9%), 산부인과(8,166명, 1.4%) 등 순으로, 피부 관리 목적 비중이 높음

⇒ 주요 고객은 여성(554,962명, 92.5%)과 20대(254,709명, 44.1%) 및 30대(148,843명, 25.8%)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572,967명, 95.5%)이 대다수. 이어 부산(16,811명, 2.8%), 인천(6,823명, 1.1%)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42.2%[전체 : 82.3%]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나, 전년(36.8%) 대비 5.4%p 상승

⇒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64.4%), 현대생활문화(57.7%), 관광(29.7%), 제품 및 브랜드(25.4%), 문화예술(22.6%)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현대생활문화' 영향력은 첫 번째로, '문화콘텐츠' 및 '관광'은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일본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과 한국 음식(각 25.4%).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음식' 연상도가 가장 높음[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일본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17,116천 명, 2017년 17,889천 명, 2018년 18,954천 명, 2019년 20,081천 명, 2020년 3,174천 명, 2021년 512천 명, 2022년 2,772천 명, 2023년 9,624천 명, 2024년 13,007천 명

⇒ 지표 : outbound trips – total – visitors – 방문객 전체(숙박+당일) 기준(단위 천 명)

⇒ 2024년 기준 2019년의 64.8% 수준 기록

2-2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세부 지역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그 외(가가와현,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 등 44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일본인 전체 응답자(n=1,670명)의 67.8%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36.1%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음. 해외여행 의향자(n=603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2.4회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음[전체 : 해외여행 경험 74.5%, 해외여행 의향 58.8%, 해외여행 횟수 3.8회]

⇒ 일본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도쿄(77.0%), 오사카(67.8%), 그 외(65.5%), 후쿠오카(59.9%)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은 도쿄(46.8%), 그 외(37.2%), 오사카(35.8%), 후쿠오카(2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일본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603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65.0%),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57.6%),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49.4%)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일본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785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42.7%),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38.4%),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35.2%)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해외여행 무관심'은 첫 번째, '국내여행 선호'는 응답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3 해외여행 트렌드

✔ **(자국민 해외여행 활성화 정책 추진)** 2026년 6월, 일본 관광청은 출국 일본인 2,000만 명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해외여행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함. 관련해 4대 중점 과제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통한 수요 환기', '젊은 층 국제 교류 촉진', '국가·지역 간 관광 분야 협력체계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환경 조성'이 포함됨. 이어 일본 외무성은

7월 1일 자로 여권법을 개정하면서, 여권 발급 수수료를 40% 이상 인하함(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온라인 신청 기준 15,900엔에서 8,900엔으로 약 44% 인하하였고, 12세 이상 미성년자용 5년 여권은 10,900엔에서 4,400엔으로 약 60% 인하)

✔ **(생성형 AI와 여행)** 일본 JTB 종합연구소가 2025년 7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 주 1회 이상 생성형 AI 이용하고 있는 일본인의 77.8%는 여행과 관련하여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20대 여성(89.3%), 30대 남성(85.7%) 등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기록함. 여행 관련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알아보고 싶은 주된 내용은 '여행 일정 작성 및 루트 제안'(35.6%), '교통수단 검색 및 예약'(32.2%), '여행지 맛집 정보 검색'(29.9%) 등 주로 효율적인 여행 일정 계획이나 현지 정보 취득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외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 주된 단점으로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있다'(39.4%)를 꼽음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도쿄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일본은 노동 기준법 39조에 의거해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함. 근로자가 6개월간 계속 근무 및 전체 노동일의 80% 이상을 출근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휴가 부여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임. 한편, 대표적인 장기 휴일 기간은 공휴일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4월 말~5월 초 '골든 위크', 8월 중순 '오봉' 그리고 연말·연시(1월 1일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례상 12월 28일~1월 3일 기간 동안 휴무, 기업에 따라서는 12월 23일부터 휴가) 임. 그 외 9월 경로의 날과 추분 또한 날짜 배열에 따라 장기 연휴가 가능함

✔ **(방학 현황)** 초·중·고의 경우 7월 말~8월 말(여름방학), 12월 말~1월 초(겨울방학), 3월 말~4월 초(봄방학)이다. 대학교는 8월 말~9월 초(여름방학), 12월 말~3월 말(겨울방학)

✔ **(비자/규제 현황)** 일본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8개국으로, 전 세계 2위(2025년 2위, 전년과 동일,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일본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연간)** 2025년 일본 경제는 2024년의 성장 둔화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실질 GDP는 +1.1%(2024년 −0.2%에서 반등), 명목 GDP는 +4.5% 성장. 민간소비(+1.3%)와 설비투자(+2.1%)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됨. 2025년도 무역은 수출 113조 2,203억 엔(+3.9%)·수입 114조 9,665억 엔(+0.5%)으로 무역수지 1조 7,462억 엔 적자(적자폭 전년 대비 −67.8% 축소). 일본은행은 2025년 12월 정책금리를 0.75%로 추가 인상(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 단계적 인상)

✔ **(2026년 상반기)** 2026년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5%(연율 +2.1%)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민간소비·설비투자 각 +0.3%, 수출 +1.7%). 실질임금은 2026년 1월 플러스로 전환해 3월 +1.0%(3개월 연속 증가), 완전실업률은 2.7%(2026.3)로 낮은 수준을 유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4월 +1.4%로 둔화(에너지 보조금 영향)되었고, 2026년 4월 무역수지는 수출 +14.8%·수입 +9.7%로 흑자 전환. 정책금리는 0.75% 전후로 유지(2026.5). 종합적으로 디플레이션 탈피·정상화 국면에 진입했으나, 내수 회복의 체력과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병존하는 "완만하지만 불안정한 회복" 단계로 평가됨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대만



43

요약 | 대만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1,891,414명 (+28.3%)		10.0% (3위)	인천공항 (46.7%)	김해공항 (26.9%)	20대 여성 (16.9%)	30대 여성 (15.4%)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55.1%	한류 콘텐츠 (49.3%)	적합한 여행 경비 (34.6%)	개별여행 (57.8%)	단체여행 (40.6%)	여가 (89.4%)	사업 (5.8%)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52.1%)	지방 한정 (40.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7.7%)	5.3일	USD 1,408.7	USD 277.1	97.7%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51.3%	일본 (88.6%)	한국 (75.8%)	홍콩·싱가폴 (각 48.5%)	일본 (60.2%)	한국 (14.1%)	중국 (12.8%)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66.0%)	Facebook (45.2%)	Lion Travel (27.9%)	Klook (26.7%)	불편한 언어소통 (35.8%)	부정적인 한국 이미지 (33.8%)	한류 관심 부재 (26.8%)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91.1%	76.8%	여유로운 일상 (64.7%)	역사/문화 경험 (50.4%)	해외여행 무관심 (31.2%)	경제적 여유 부족 (28.1%)	시간 여유 부족 (28.0%)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대만인 수는 1,891,414명으로 전년 대비 28.3% 증가(2019년 대비 150.1% 회복)

⇒ 2019년 1,260,493명, 2020년 166,716명, 2021년 4,130명, 2022년 72,925명, 2023년 960,607명, 2024년 1,473,908명, 2025년 1,891,414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대만인은 10.0%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3위를 기록(비중 계속 증가세, 처음으로 10% 기록)

⇒ 2019년 7.2%(3위), 2020년 6.6%(4위), 2021년 0.4%(24위), 2022년 2.3%(10위), 2023년 8.7%(4위), 2024년 9.0%(3위), 2025년 10.0%(3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대만인의 방문 시기는 7월(199,280명), 8월(191,565명), 6월(164,885명), 12월(163,918명), 10월(161,049명), 11월(158,374명) 등 순으로, 여름방학(6~8월), 국경절 연휴(10월), 연말(12월) 등에 집중됨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대만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884,121명, 46.7%), '김해공항'(509,136명, 26.9%), '제주공항'(211,121명, 11.2%), '김포공항'(144,491명, 7.6%), '기타공항'(106,532명, 5.6%) 등 순.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역 공항을 통한 입국 비율이 절반가량(51.3%)을 차지함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대만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318,172명, 16.9%), '30대 여성'(289,896명, 15.4%), '40대 여성'(246,730명, 13.1%) 등 순으로, 여성층이 폭넓은 연령대에 걸쳐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대만인의 재방문율은 55.1%[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7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대만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49.3%), 계획한 여행 경비에 적합한 여행지여서(34.6%),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32.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류 콘텐츠'와 '경비'는 첫 번째로,

'이동거리/비행시간'은 두 번째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대만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89.4%), 사업 또는 전문활동(5.8%), 친구/친지 방문(3.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여가/위락/휴식' 목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대만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57.8%)과 단체여행(40.6%)이며, 에어텔은 1.6% 차지, 조사 대상국 중 '단체여행'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대만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57.1%), 부산(31.4%), 제주(10.6%), 경북(7.4%), 인천(6.9%), 경기(6.5%)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경북'은 두 번째로, '부산'은 세 번째로 방문 비중이 높은 반면, '서울' 방문 비중은 가장 낮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대만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52.1%), 지방 한정(40.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7.7%)으로 구분, 조사 대상국 중 '지방 한정'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대만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식도락 관광(91.0%), 쇼핑(83.8%), 자연경관 감상(60.9%),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43.2%), 박물관/전시관 관람(27.7%)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식도락 관광'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대만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5.3%), 대형마트(39.4%), 대형 쇼핑몰(36.3%), 백화점(33.8%), 시내 면세점(28.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대형마트'는 두 번째로, '시내 면세점'은 세 번째로 방문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대만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식료품(76.0%), 향수/화장품(72.9%), 의류(47.3%), 신발류(19.0%), 한류스타 관련 상품(17.4%)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식료품'은 첫 번째로, '한류스타 관련 상품'은 두 번째로, '향수, 화장품'은 세 번째로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대만인은 한국에 평균 5.3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1,408.7[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277.1[전체 : USD 321.9]를 지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짧게 체류하였음

✔ **(만족도 평가)** 방한 대만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7%[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5.5% [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6.2%[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대만 내 세부 지역은 북부(타이베이시·신베이시·타오위안시 등 7개 지역), 중동부(타이중시·난터우현·화롄현 등 6개 지역), 남부(가오슝시·타이난시·펑후현 등 9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대만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51.3%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방한 경험률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23.3%]

⇒ 대만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북부(56.3%), 남부(48.9%), 중동부(46.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대만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57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88.6%), 한국(75.8%), 홍콩·싱가포르(각 48.5%), 태국(43.0%), 중국(42.5%) 등 순. 이 중 '일본' 방문 의향이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았고,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20.6%p 상회하며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대만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남부(83.9%), 북부(72.2%), 중동부(71.4%)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대만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51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60.2%), 한국(14.1%), 중국(12.8%)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일본' 최우선 방문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남부 63.4%, 중동부 60.0%, 북부 57.8%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대만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49명)는 그 이유(중복응답 기준)로 음식/식문화(51.6%), 주변인 추천(37.4%), 이동거리/비행시간(36.3%)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대만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32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35.8%),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33.8%),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6.8%)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대만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7.2%), '주변 사람 추천'(43.0%),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4.7%)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주변 사람 추천'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대만인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66.0%), 'Facebook'(45.2%), 'Instagram'(38.5%)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대만인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Lion Travel'(27.9%), 'Klook'(26.7%), 'Agoda'(25.2%) 등 자국·글로벌 OTA를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타이베이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대만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된 한국 여행 상품은 주로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 지방공항 직항 노선의 공급 확대에 따라 다양한 지역 연계 상품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음. 특히 김해공항의 대규모 증편('26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7.7% 증가) 및 청주공항의 활성화로 부산·경남 중심 남부권 단체 관광상품과 충청권 연계 단체상품이 활황. 이외 봄꽃, 단풍, 겨울 스키 등 계절 테마 상품의 인기와 더불어 지역축제, 일상 체험 콘텐츠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대만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0.8%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1.9%p 상회함[전체 : 78.9%]

⇒ 일반 대만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58.8%), 한국 드라마(47.5%), 한국 영화(46.1%)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22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9.2%), 한국 드라마(15.6%), 한국 영화(12.5%)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72점[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대만인(타이베이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84.6%[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1.8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8.9%[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27.5%), 비빔밥(26.3%), 라면(22.2%), 김치(21.3%)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방한 외국인 환자 중 대만인은 9.2% 차지(185,715명 전년 대비 122.5% 증가), 국적별 순위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149,126명, 80.2%), 성형외과(16,453명, 8.8%), 내과통합(11,621명, 6.2%), 안과(2,137명, 1.1%) 등 순으로, 피부·미용 이외 내과 방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 주요 고객은 여성(158,830명, 85.5%)과 30대(76,321명, 41.4%), 20대(52,900명, 28.7%), 40대(28,784명, 21.0%)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154,278명, 83.1%)과 부산(28,373명, 15.3%)

1-6 한국 이미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대만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한국 음식(19.6%), K-pop(18.9%), 한류스타(12.1%)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류스타'는 첫 번째로, '한국 음식'은 세 번째로 연상도가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12.2025)」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대만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14,589천 명, 2017년 15,655천 명, 2018년 16,645천 명, 2019년 17,101천 명, 2020년 2,336천 명, 2021년 360천 명, 2022년 1,483천 명, 2023년 11,796천 명, 2024년 16,850천 명

⇒ 지표 : outbound trips – total – visitors – 방문객 전체(숙박+당일) 기준(단위 천 명)

⇒ 2024년 기준 2019년의 98.5% 수준 기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대만인 수는 2016년 4,167,512명, 2017년 4,564,053명, 2018년 4,757,258명, 2019년 4,890,602명, 2020년 694,476명, 2021년 5,016명, 2022년 331,097명, 2023년 4,202,434명, 2024년 6,044,316명, 2025년 6,763,424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대만인은 15.8%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1.9%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한국,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대만 내 세부 지역은 북부(타이베이시·신베이시·타오위안시 등 7개 지역), 중동부(타이중시·난터우현·화롄현 등 6개 지역), 남부(가오슝시·타이난시·펑후현 등 9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대만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1.1%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76.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357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4.4회로 나타남. 전체 평균 대비 해외여행 경험 및 수요가 15%p 이상 높게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 경험 74.5%, 해외여행 의향 58.8%, 해외여행 횟수 3.8회]

⇒ 대만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북부(94.6%), 남부(89.9%), 중동부(87.5%) 순. 해외여행 의향률은 남부(79.2%), 북부(78.9%), 중동부(7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대만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57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64.7%),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0.4%),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49.9%)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해외여행 지속 증가, 방한 인기 상승세)** 2026년 1~8월 기준 대만 해외여행객 수는 1,453만 2,35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대만 여행업계 및 매체는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대만 관광산업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분석. 대만의 주요 해외여행 목적지는 '일본'으로 전체의 36.7%(533만 명)를 차지함. 이어 중국 249만 명, 한국 162만 명, 홍콩 116만 명 등 순. 그 중 한국의 성장세가 주목할 만한데,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하여 타 국가 성장률(중국 19.6%, 일본 18.8%, 홍콩 7.7% 등)을 크게 상회하면서 대만의 해외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높은 방일 선호도)** 대만인의 일본 방문은 2004년 100만 명, 2024년 600만 명을 돌파하며, 20년간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그리고 방일 대만인의 80% 이상이 재방문객이며, 10회 이상 방문객도 26%가량을 차지하였음. 이처럼 지속적인 일본 여행 인기와 관련해 양국 매체는 '엔화 약세', 'LCC 노선 확대', '일본의 높은 서비스 품질과 여행 콘텐츠 경험 선호'를 주된 요인으로 보도함. 한편으론 대만인의 일본 여행이 과거 화장품, 가전제품 구매

중심 여행에서 스키, 온천, 예술축제, 로컬콘텐츠 등 체험형 콘텐츠 소비로 전환된 것과 일본 내 27개 지역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을 이용한 지역 관광 증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해외여행 수요 변화 가능성)** 기존 대만 시장은 국내 여행 대비 해외여행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하지만 2026년 9월에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만 정부와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국내여행 활성화 프로모션'을 추진되면서, 숙박비 보조금 지원, 철도 및 국내 항공노선 등 교통수단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해외여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타이베이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대만은 근로기준법 3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급 휴가는 근무 근속에 따른 누진 방식이 적용되는데, 법적으로 지정된 최소 연차는 7일(근무 만 1년부터)이며 최대 30일까지 가산이 가능함. 한편, 일반적으로 대만인의 해외여행은 가장 긴 연휴인 춘절(1월 또는 2월, 최대 9일)과 방학 기간에 집중되는 편

✔ **(방학 현황)** 초·중·고의 경우 7월 초~8월 말(여름방학), 1월 중~춘절(겨울방학)이며, 대학교는 6월 중~9월 초(여름방학), 1월 중순~2월 초(겨울방학)

✔ **(비자/규제 현황)** 대만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35개국으로, 전 세계 34위(2025년 34위, 전년과 동일,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대만인이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연간)** 2025년 대만 경제성장률은 1분기 5.5%에서 2분기 7.7%, 3분기 8.4%, 4분기 13.0%로 분기별로 가속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임. AI·고성능 컴퓨팅·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컴퓨터/서버류 수출 호황이 성장을 견인함

대만

✔ **(2026년 상반기)**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6%로 약 39년 만에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당초 예측치 11.5%를 3.1%p 상회). 1분기 수출은 1,9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1% 증가(컴퓨터·서버류 +124.6%, 1위 수출시장 미국 +98.9%), 민간투자는 +5.8%, 민간소비는 +4.7% 성장

* 출처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미국



55

요약 | 미국

<table>
<tr><th>구분</th><th colspan="8">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 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 colspan="2">방한 비중
(순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1,483,240명
(+12.4%)</td><td colspan="2">7.8%
(4위)</td><td>인천공항
(86.0%)</td><td>김포공항
(3.9%)</td><td>61세이상 여성
(9.9%)</td><td>20대 여성
(9.5%)</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실태</td><td>재방문율</td><td colspan="2">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목적
(상위 2위)</td><td rowspan="4">2025 외래 관광객 조사</td></tr>
<tr><td>41.5%</td><td>새로운 국가 방문
(52.6%)</td><td>한국 전통 문화 경험
(43.4%)</td><td>개별여행
(93.7%)</td><td>단체여행
(5.3%)</td><td>여가
(48.7%)</td><td>사업
(29.1%)</td></tr>
<tr><td colspan="3">지역 방문 형태</td><td>체재 기간</td><td>1인 지출</td><td>1일 지출</td><td>전반적 만족도</td></tr>
<tr><td>수도권 한정
(65.2%)</td><td>지방 한정
(6.0%)</td><td>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28.8%)</td><td>8.3일</td><td>USD 3,052.1</td><td>USD 459.3</td><td>99.1%</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4">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7.7%</td><td>일본
(60.0%)</td><td>태국
(41.8%)</td><td>홍콩
(38.4%)</td><td>일본
(41.1%)</td><td>태국
(10.8%)</td><td>필리핀
(7.4%)</td></tr>
<tr><td colspan="2">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YouTube
(46.6%)</td><td>Instagram
(34.2%)</td><td>Expedia
(29.5%)</td><td>Booking.com
(28.1%)</td><td>불편한 언어소통
(35.6%)</td><td>한류 관심 부재
(28.2%)</td><td>여행지로 낮은 인지도
(26.7%)</td></tr>
<tr><td rowspan="2">해외 여행 수요</td><td>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2">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59.3%</td><td>39.5%</td><td>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경험(65.2%)</td><td>역사/문화 경험
(58.8%)</td><td>경제적 여유 부족
(54.5%)</td><td>해외여행 무관심
(37.4%</td><td>경비/물가 상승
(32.5%)</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미국인 수는 1,483,240명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2019년 대비 142.1% 회복)

⇒ 2019년 1,044,038명, 2020년 220,417명, 2021년 204,025명, 2022년 543,648명, 2023년 1,086,415명, 2024년 1,320,108명, 2025년 1,483,240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미국인은 7.8%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4위를 기록

⇒ 2019년 6.0%(4위), 2020년 8.7%(3위), 2021년 21.1%(1위), 2022년 17.0%(1위), 2023년 9.8%(3위), 2024년 8.1%(4위), 2025년 7.8%(4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미국인의 방문 시기는 6월(166,242명), 4월(153,381명), 10월(148,951명), 11월(132,651명), 5월(132,324명), 3월(132,117명), 7월(131,832명) 등 순. 통상적으로 미국인의 한국 방문은 4월(봄 방학, 부활절 연휴), 6월(여름방학)에 집중되나, 최근 다양한 SIT 수요와 함께 K-콘텐츠 확산, 달러 강세, 환승 수요 증가 등으로 시기가 분산된 것으로 파악됨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미국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1,275,018명, 86.0%), '김포공항'(58,255명, 3.9%), '부산항구'(49,201명, 3.3%), '김해공항'(48,912명, 3.3%) 등 순으로, 장거리 노선 특성상 '인천공항' 집중도가 높음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미국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61세 이상 여성'(136,636명, 9.9%), '20대 여성'(131,371명, 9.5%), '61세 이상 남성'(127,754명, 9.3%), '30대 남성'(125,597명, 9.1%) 등 순으로, 20·30대 여성에 집중된 여타 국가와 달리 성·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됨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미국인의 재방문율은 41.5%[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3.0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미국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52.6%),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3.4%),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5.2%), 과거 방문 경험이 좋아서(20.3%)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미국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48.7%), 사업 또는 전문활동(29.1%), 친구/친지 방문(19.0%) 등 순[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미국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3.7%) 이며, 단체여행은 5.3%, 에어텔은 1.0%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미국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6.3%), 경기(21.6%), 부산(21.1%), 인천(6.4%), 강원(5.2%) 등 순으로 나타남[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미국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65.2%), 지방 한정(6.0%),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28.8%)으로 구분[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미국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식도락 관광(66.3%), 쇼핑(62.1%), 자연경관 감상(57.0%),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56.9%), 박물관/전시관 관람(35.7%) 등 순[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미국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44.2%), 대형쇼핑몰(43.3%), 백화점(41.6%), 전통시장(33.0%), 편의점(26.5%)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편의점'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미국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57.2%), 의류(52.1%), 식료품(45.9%), 보석/악세서리(25.7%), 전통 민예품(22.9%)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전통 민예품'은 두 번째로, '보석/악세서리'는 세 번째로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미국인은 한국에 평균 8.3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3,052.1[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459.3[전체 : USD 321.9]를 지출. 1일 지출 금액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고, 1인 지출 금액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만족도 평가)** 방한 미국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9.1%[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88.2% [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8.6%[전체 : 96.3%]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세부 지역은 북동부(뉴욕·메사추세츠주(보스턴)·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 등 9개 지역), 중서부(일리노이주(시카고)·미시간주(디트로이트)·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 등 12개 지역), 서부(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워싱턴주(시애틀)·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 등 13개 지역), 남부(워싱턴DC·플로리다주(마이애미)·조지아주(애틀랜타)·텍사스주 등 17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미국인 전체 응답자(n=930명)의 7.7%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반적으로 아시아 목적지 방문 경험률이 낮은 가운데, '한국' 방문 경험률은 전체 평균을 15.7%p 하회함[전체 : 23.3%]

⇒ 미국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북동부(8.5%), 서부(8.1%), 남부(7.5%), 중서부(6.6%)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미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68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60.0%), 태국(41.8%), 홍콩(38.4%), 한국(38.2%), 싱가포르(35.4%) 등 순.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7.0%p 하회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미국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서부(46.3%), 남부(39.0%), 중서부(33.1%), 북동부(32.5%)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미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288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41.1%), 태국(10.8%), 필리핀(7.4%), 한국(6.6%)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필리핀' 최우선 방문 의향이 두 번째로 높았고,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0.2%p 하회함 [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서부 51.5%, 남부 39.5%, 중서부 37.9%, 북동부 34.3% 순)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미국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155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35.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8.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26.7%) 등을 주로 꼽음[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불편한 언어소통' 선택자(n=55명)는 방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1+2+3순위 기준)으로 '현지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어려움'(80.5%)과 '외국인을 위한 표지판/안내문 체계 부족할 것 같음'(62.0%), '긴급 상황 발생 시 의사 전달 어려움'(56.3%) 등을 주로 꼽음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선택자(n=41명)는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한 이유(1+2+3순위기준)로 '주변에 한국 여행 경험자가 없음'(50.7%), '한국 여행하면 떠오르는 유명 관광지/랜드마크, 체험 활동 등이 없음'(41.1%), '한국 또는 한국 여행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음'(36.4%), '자국에서 인기 해외여행 목적지로 손꼽히는 곳이 아님'(35.3%) 등을 주로 꼽음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미국인(n=930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33.1%), '주변 사람 추천'(33.0%),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2.6%)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미국인(n=930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46.6%), 'Instagram'(34.2%), 'Facebook'(28.4%)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미국인(n=930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Expedia'(29.5%), 'Booking.com'(28.1%), 'TripAdvisor'(20.5%) 등 글로벌 OTA를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뉴욕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Gate 1 등 미국 대표 온라인 여행사에서 판매되었던 방한 여행 상품들은 주로 10박 및 12박 일정(서울, 경주, 부산, 제주 등 방문)에 1박 단가 USD440 ~ 560 대로, 일정이 긴 만큼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일본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동일 기간, 1박 단가 USD510~580)은 경쟁력이 있지만, 지역 방문 상품 등 다양성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럭셔리 여행사들의 상품 구성을 보았을 때

럭셔리 방한 상품의 가격은 일반 방한 상품 대비 3~4배 가량 부가가치가 높지만, 일본 상품과 비교해 상품의 다양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하지만 최근 한국 콘텐츠의 인기 상승으로 인해 K-팝, 드라마, 푸드, 뷰티 등 한국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미국인 전체 응답자(n=930명)의 68.7%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0.2%p 하회함[전체 : 78.9%]

⇒ 일반 미국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36.0%), 한국 대중가요(34.1%), 한국 드라마(24.1%)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639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30.4%), 한국 대중가요(18.0%), 한국 드라마(10.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대중가요'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41점 [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미국인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뉴욕 거주자는 60.2%, LA 거주자는 69.8%[전체 : 71.7%]

⇒ 방문 빈도는 뉴욕 거주자 월 1.7회, LA 거주자 월 1.9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뉴욕 96.3%·LA 92.3%[전체 : 93.1%]. 조사 대상국 중 LA 거주자의 전년(61.2%) 대비 방문 경험률 증가 폭(+8.6%p)이 가장 두드러짐. 방문 만족도의 경우 전년(88.5%) 대비 뉴욕 거주자의 증가 폭(+7.8%p)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뉴욕 거주자의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27.7%), 김치(25.8%), 만두(21.6%) 등 순. LA 거주자는 김치(26.3%), 한국식 치킨 및 불고기(각 21.6%), 만두(20.9%)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방한 외국인 환자 중 미국인은 8.6%(173,363명, 전년 대비 70.4% 증가)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4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85,493명, 44.3%), 내과통합(25,551명, 13.2%), 성형외과

(17,993명, 9.3%), 검진센터(15,695명, 8.1%), 치과(5,722명, 3.0%), 정형외과(5,062명, 2.6%), 안과(4,547명, 2.4%) 등 순. 비교적 피부·성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주요 고객은 여성(120,647명, 69.6%)과 30대(50,787명, 29.5%) 및 20대(37,293명, 21.6%)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139,957명, 80.7%), 경기(16,275명, 9.4%), 대구(6,101명, 3.5%), 인천(3,366명, 1.9%), 부산(2,829명, 1.6%)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미국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1.2%[전체 : 82.3%]로, 전년(80.4%)과 동일 수준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42.6%), 현대생활문화(34.0%), 문화예술(27.7%), 제품 및 브랜드(22.9%), 전통문화유산(20.0%)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미국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18.5%), 한국 음식(14.6%), 한국 드라마(7.1%) 등 순[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미국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80,223천 명, 2017년 87,657천 명, 2018년 93,137천 명, 2019년 99,744천 명, 2020년 33,499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1년 이후 값은 원자료 미수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인 수는 2016년 1,242,719명, 2017년 1,374,964명, 2018년 1,526,407명, 2019년 1,723,861명, 2020년 219,307명, 2021년 20,026명, 2022년 323,513명, 2023년 2,045,854명, 2024년 2,724,594명, 2025년 3,306,820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미국인은 7.7%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1.4%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한국, 중국, 대만에 이어 4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세부 지역은 북동부(뉴욕·메사추세츠주(보스턴)·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 등 9개 지역), 중서부(일리노이주(시카고)·미시간주(디트로이트)·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 등 12개 지역), 서부(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워싱턴주(시애틀)·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 등 13개 지역), 남부(워싱턴DC·플로리다주(마이애미)·조지아주(애틀랜타)·텍사스주 등 17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미국인 전체 응답자(n=930명)의 59.3%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면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경험률이 낮음.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39.5%로 전체 평균 대비 19.3%p 낮았으며, 해외여행 의향자(n=368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3회로 나타남 [전체 : 해외여행 경험 74.5%, 해외여행 의향 58.8%, 해외여행 횟수 3.8회]

⇒ 미국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북동부(67.6%), 서부(59.5%), 중서부(56.7%), 남부(55.5%)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은 북동부(44.0%), 서부(41.4%), 남부(39.0%), 중서부(3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미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68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65.2%),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8.8%),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38.2%)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미국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364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54.5%),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37.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32.5%)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미국 여행 소비 환경 변화)** 최근 미국 내 주요 관광지의 숙박비 및 항공료 상승 등으로 해외여행과의 가격 격차가 축소되면서, 국내 여행 수요의 일부가 해외여행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그리고 소비자는 동일한 예산 내에서 여행 횟수를 줄이는 대신, 한 번을 가더라도 비용 대비 가치가 높은 목적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즉 단순 거리나 접근성이 아닌 '비용 효율성'과 '경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근거리와 장거리 목적지가 동시에 성장하는 양극화가 나타나게 됨. 대표적인 근거리 인기 목적지는 '멕시코', '캐나다', '캐리비안' 등으로 낮은 이동 비용과 체류 부담, 리조트 중심의 통합형 여행 수요 증가로 가장 안정적으로 수요를 유지하고 있음. 대표 장거리 목적지인 유럽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로 문화 및 프리미엄 여행을 중심으로 탄탄한 고정 수요층 흡수하고 있음. 이외 최대 인기 아시아 목적지는 '일본'으로 역대급 환율 효과와 비용 대비 높은 만족도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임

✔ **(비용 상승과 전략적 소비)** 2026년 3월 국제 유가(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초저가항공 스피릿이 2026년 5월 청산되면서 '시장 최저운임 기준점'이 사라져 전체 항공 운임이 상승함. 이에 따라 수하물 요금 인상에 대응해 위탁수하물 없이 최소한의 짐만 들고 타는 '네이키드 플라잉(Naked Flying)' 방식이 확산 되기도 함

✔ **(Z세대의 부상과 경험의 가치)** Gen Z 세대의 부상에 따라 여행의 의미가 단순 휴식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라이프스타일 소비'로 전환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이들은 여행 시 '참여 및 이벤트 중심'(관광지 방문 자체보다 음식 체험, 문화 활동, 공연, 스포츠 경기 참여 등 직접적인 경험이 주된 목적), '로컬 경험과 슬로우 트레블'(유명 관광지 대신 현지 식당, 카페 등 일상 공간을 선호하며,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현지 문화를 깊게 체험하는 방식 지향), '디지털 기반 탐색'(검색 엔진보다 SNS, 영상 콘텐츠, AI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적극 활용) 경향성을 띰

✔ **(당일치기 해외여행 도전)** 이른 아침 항공편으로 도착해 핵심 활동 한두 가지만 즐기고 같은 날 귀가하는 '당일치기 해외여행'(Extreme Day Trip)이 유럽에서 시작돼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이는 단순히 짧은 여행이 아니라, 하루 만에 낯선 도시를 정복하는 "도전"의 개념에 가까우며, 단 몇 시간 만에 주변 환경이 바뀌는 즐거운 경험과 극한의 일정에서 오는 성취감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적임.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렌드가 밀레니얼과 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뉴욕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미국의 연방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휴가제도에 대한 규정이 많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휴가제도에 대해 논하는 경우도 드물면서 휴가는 개개인이 회사와 맺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정해진 휴가 시즌은 없으나, 보통 자녀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 가족 여행을 위한 휴가를 쓰는데, 특히 7월 4일 독립기념일 공휴일 전후에 휴가 이용이 많은 편임.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회사가 쉬는 대표적인 휴가기간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인데, 특히 성탄절과 신정 사이의 기간에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가 휴가에 들어감

✔ **(방학 현황)** 초·중·고의 경우 3월 중순(1주)(봄방학), 6월 말~9월 초(여름방학), 12월 말 ~ 1월 초(겨울방학)임. 대학교는 3월 중순(1주)(봄방학), 6월 말~9월 초(여름방학), 12월 중순 ~ 1월 초(겨울방학)임

✔ **(비자/규제 현황)** 미국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0개국으로, 전 세계 10위(2025년 10위, 전년과 동일,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미국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 ~ 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말~2026년 초)** 2025년 4분기 0.5%로 둔화됐던 미국 경제성장률은 2026년 1분기 실질 GDP가 연율 약 1.6%로 회복. 소비지출·서비스업과 AI 관련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투자가 성장을 견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025년 12월 기준금리를 3.5~3.75%로 0.25%p 인하

✔ **(2026년 상반기)** 2026년 4월 기준 실업률은 4.3%·노동참여율 61.8%로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임금 상승률은 약 3.5%.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3.8%(근원 2.8%)로 연준 목표(2%)를 상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방안이 기업투자·경제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2026년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홍콩



69

요약 | 홍콩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623,149명 (+9.1%)		3.3% (5위)	인천공항 (81.1%)	김해공항 (9.4%)	20대 여성 (18.8%)	30대 여성 (15.7%)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74.3%	한류 콘텐츠 경험 (46.0%)	좋은 과거 방문 경험 (37.5%)	개별여행 (92.7%)	단체여행 (6.6%)	여가 (83.9%)	사업 (8.2%)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74.8%)	지방 한정 (15.4%)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9.8%)	5.6일	USD 1,695.3	USD 323.6	98.0%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66.5%	일본 (79.5%)	중국 (68.0%)	대만 (62.7%)	일본 (47.9%)	중국 (19.7%)	한국 (12.3%)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64.5%)	Facebook (43.0%)	Trip.com (44.7%)	Klook (31.2%)	불편한 언어소통 (44.7%)	먹을거리 부족 (44.1%)	한류 관심 부재 (25.8%)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n=15명)**			
	97.3%	82.5%	여유로운 일상 (70.7%)	역사/문화 경험 (44.2%)	동반자 부재 (36.3%)	경제적 여유 부족 (36.2%)	해외여행 무관심 (31.6%)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홍콩인 수는 623,149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2019년 대비 89.7% 회복)

⇒ 2019년 694,934명, 2020년 88,878명, 2021년 1,258명, 2022년 61,195명, 2023년 403,984명, 2024년 571,418명, 2025년 623,149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홍콩인은 3.3%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5위를 기록

⇒ 2019년 4.0%(5위), 2020년 3.5%(6위), 2021년 0.1%(52위), 2022년 1.9%(18위), 2023년 3.7%(6위), 2024년 3.5%(5위), 2025년 3.3%(5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홍콩인의 방문 시기는 12월(68,239명), 8월(64,860명), 4월(64,591명), 7월(64,224명), 6월(56,109명) 등 순. 통상적으로 홍콩인의 한국 방문은 부활절 연휴(3~4월 중, 매년 날짜가 달라짐), 6~8월(여름방학), 12월(겨울방학 및 크리스마스 시즌)에 집중됨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홍콩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505,521명, 81.1%), '김해공항'(58,885명, 9.4%), '제주공항'(44,671명, 7.2%)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홍콩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116,554명, 18.8%), '30대 여성'(97,807명, 15.7%), '40대 여성'(67,660명, 10.9%) 등 순으로, 20·30대 여성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홍콩인의 재방문율은 74.3%[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3.9회[전체 : 3.9회]. 조사 대상국 중 재방문율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홍콩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46.0%), 과거 방문 경험이 좋아서(37.5%),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28.3%)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류 콘텐츠'와 '과거 방문 경험'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홍콩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83.9%), 사업 또는 전문활동(8.2%), 친구/친지 방문(5.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여가/위락/휴식' 목적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홍콩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2.7%)과 단체여행(6.6%)이며, 에어텔은 0.8%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홍콩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1.9%), 부산(13.0%), 제주(7.3%), 인천(5.6%), 경기(5.5%)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경기' 방문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남[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홍콩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74.8%), 지방 한정(15.4%),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9.8%)으로 구분[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홍콩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88.7%), 식도락 관광(86.1%), 자연경관 감상(4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23.3%), 휴양/휴식(22.5%), K-POP/한류스타 관련 공연장 및 드라마/영화 촬영지 방문(17.4%)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쇼핑'은 첫 번째로, '한류 체험'은 두 번째로, '식도락 관광'은 세 번째로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홍콩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4.8%), 대형쇼핑몰(42.8%), 백화점(36.8%), 시내 면세점(25.3%), 대형마트(23.8%) 등 순[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홍콩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71.6%), 식료품(60.1%), 의류(58.7%)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홍콩인은 한국에 평균 5.6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1,695.3[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323.6[전체 : USD 321.9]를 지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짧게 체류함

✔ **(만족도 평가)** 방한 홍콩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8.0%[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4.6%[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6.5%[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홍콩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6.5%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음[전체 : 23.3%]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홍콩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84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79.5%), 중국(68.0%), 대만(62.7%), 한국(57.8%), 마카오(57.3%)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중국'과 '마카오'는 두 번째로, '대만'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홍콩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81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47.9%), 중국(19.7%), 한국(12.3%) 등을 꼽음[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홍콩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47명)는 그 이유(중복응답 기준)로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영상(40.7%), 주변인 추천(25.8%), 국가 브랜드 홍보 영상(25.3%)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홍콩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77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44.7%), '먹을거리 부족'(44.1%),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5.8%)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언어소통'과 '먹을거리'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불편한 언어소통' 선택자(n=34명)는 방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1+2+3순위 기준)으로 '현지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어려움'(74.5%)과 '외국인을 위한 표지판/안내문 부족할 것 같음'(73.0%), '긴급 상황 발생 시 의사전달 어려움'(71.9%) 등을 주로 꼽음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먹을거리 부족' 선택자(n=34명)는 그 이유로 '음식 맛이 자극적일 것 같음'(58.2%), '음식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 것 같음'(56.2%) 등을 주로 꼽음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홍콩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52.3%),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43.0%), '주변 사람 추천'(38.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홍콩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64.5%), 'Facebook'(43.0%), 'Instagram'(42.8%)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홍콩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Trip.com'(44.7%), 'Klook'(31.2%), 'Agoda'(29.0%)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홍콩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2026년 9월 기준, 홍콩 최대 여행사인 윙온(wing on)에서 서울(+경기)+강원 4박 5일 패키지 상품을 HKD4,576~HKD5,978(약 79만원~103만원)선에서 판매하고 있음. '수도+지방'을 결합한 유사 일정의 일본 상품의 경우 HKD7,606~HKD7,909(약 131만원~136만원), 대만은 HKD3,805~HKD6,409(약 65만원~110만원), 태국은 HKD4,841~HKD5,642(약 83만원~97만원) 선에서 판매 중. 1박당 단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태국·대만 등과 비교하면 한국은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임. 일본은 전통적으로 홍콩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 목적지로, 엔화 약세에 따라 쇼핑 목적지로서 선호도가 높음.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내륙 장거리 상품의 공급 및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홍콩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88.2%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9.3%p 상회함[전체 : 78.9%]

⇒ 일반 홍콩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55.1%), 한국 드라마(45.0%), 한국 영화(38.7%)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10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8.8%), 한국 드라마(15.3%), 한국 영화(10.7%)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60점 [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홍콩인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85.6%[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4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93.0%[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31.1%), 비빔밥(24.1%), 김치(22.2%) 등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홍콩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91,758천 명, 2017년 91,304천 명, 2018년 92,214천 명, 2019년 94,715천 명, 2020년 8,261천 명, 2021년 905천 명, 2022년 2,181천 명, 2023년 72,203천 명, 2024년 104,703천 명

⇒ 지표 : outbound trips – total – visitors – 방문객 전체(숙박+당일) 기준(단위 천 명)

⇒ 2024년 기준 2019년의 110.5% 회복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홍콩인 수는 2016년 1,839,193명, 2017년 2,231,568명, 2018년 2,207,804명, 2019년 2,290,792명, 2020년 346,020명, 2021년 1,252명, 2022년 269,285명, 2023년 2,114,402명, 2024년 2,683,391명, 2025년 2,517,399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홍콩인은 5.9%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한국, 중국, 대만, 미국에 이어 5위를 기록. 단, 주요국 중 홍콩만이 전년 대비 방일 규모가 6.2%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본 관광 자체의 매력도 하락이라기보다 지진 루머라는 외부 요인이 방일 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한 결과로 판단됨. 참고로 2025년 7월 5일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성 루머가 홍콩 내에 확산되면서 방일 여행 취소·연기와 항공편 감편이 진행됨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홍콩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7.3%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음.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또한 82.5%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해외여행 의향자(n=384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5.1회로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 경험 74.5%, 해외여행 의향 58.8%, 해외여행 횟수 3.8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홍콩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84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70.7%),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44.2%),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43.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홍콩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15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같이 갈 동반자가 없어서'(36.3%),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36.2%),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31.6%) 등을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 표본 30명 미만이므로 해석에 유의

2-4 해외여행 트렌드

✔ **(홍콩인 해외여행 현황)** 2026년 6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최신 결제 데이터 및 소비 리포트에 따르면, 홍콩 시민들의 해외 현지 신용카드 결제액과 모바일 페이를 통한 역외 소비 규모가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홍콩 내수 경기 침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룸. 이는 고환율(미국 달러에 연동해 환율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는 페그제에 따라 홍콩 달러 강세) 현상과 항공사 유류 할증료 조정 등에 따른 해외여행 비용 부담 감소 그리고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고속철도의 편의성 확대로 주말과 단기 연휴를 활용해 본토로 향하는 '북상소비' 트렌드가 공고해진 결과라 볼 수 있음

✔ **(중국 선전, 핫플레이스 부상)** 과거 홍콩인의 중국 선전 방문의 주된 이유는 저렴한 물가였음. 홍콩에서는 비싼 임대료로 인해 생겨나기 어려운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들이 최근들어 선전에 연달아 생겨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선전 방문이 하나의 '힙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를 잡는 추세임

✔ **(중앙아시아 프리미엄 패키지 선호도 증가)** 최근 홍콩 중장년층 사이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아시아 휴양지나 유럽 대신, 이색적인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상승함. 이에 따라 고가형 중앙아시아 패키지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었는데, 관련해 홍콩 여행협회는 인구 고령화와 정부의 외교적 지원(양국 간 항공 협정에 따라 주요 중앙아시아 허브 도시들과의 직항 노선 재개 및 신설 예고)이 맞물리면서 프리미엄 실버 관광이 핵심 수익원으로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홍콩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유급 휴가는 근무 근속에 따른 누진 방식이 적용되는데, 법적으로 지정된 최소 연차는 7일임. 기업 휴가는 방학기간인 7~8월에 집중됨. 한편, 일반적인 홍콩인 해외여행 성수기는 춘절(2월), 부활절(3~4월 중), 중추절(9월), 성탄절(12월) 기간임. 다만, 홍콩인은 휴가를 짧게, 자주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비교적 휴가 시기가 연중 고루 분포되는 경향

✔ **(방학 현황)** 초·중·고의 경우 6월 중순~8월 말(여름방학), 12월 말~1월 초(겨울방학)이며, 대학교는 6월 초~8월 말(여름방학), 12월 중순~1월 중순(겨울방학)

✔ **(비자/규제 현황)** 홍콩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74개국으로, 전 세계 14위(2025년 17위, 전년 대비 3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홍콩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 ~ 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2026년 초)** 2025년 4분기 4.0%였던 홍콩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6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5.9%로 가속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견인했으며 전체 상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 투자청(InvestHK)은 2025년 560개사(+4%)의 홍콩 진출을 지원

✔ **(2026년 상반기)** 관광 산업이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2026년 1분기 인바운드 방문객은 1,4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특히 중동(GCC)·러시아 등 신흥시장 방문객이 55% 이상 늘면서 소매·외식·서비스업 전반에 활력을 더함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필리핀



81

요약 | 필리핀

<table>
<tr><th>구분</th><th colspan="8">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
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 colspan="2">방한 비중
(순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615,141명
(+19.0%)</td><td colspan="2">3.2%
(6위)</td><td>인천공항
(52.3%)</td><td>기타항구
(17.5%)</td><td>30대 남성
(16.8%)</td><td>30대 여성
(14.8%)</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실태</td><td>재방문율</td><td colspan="2">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목적
(상위 2위)</td><td rowspan="4">2025
외래
관광객
조사</td></tr>
<tr><td>45.2%</td><td>한국 전통 문화 경험
(47.6%)</td><td>새로운 국가 방문
(42.3%)</td><td>개별여행
(80.5%)</td><td>단체여행
(18.9%)</td><td>여가
(64.9%)</td><td>사업
(19.6%)</td></tr>
<tr><td colspan="3">지역 방문 형태</td><td>체재
기간</td><td>1인
지출</td><td>1일
지출</td><td>전반적
만족도</td></tr>
<tr><td>수도권
한정(61.0%)</td><td>지방 한정
(12.0%)</td><td>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26.9%)</td><td>7.2일</td><td>USD
1,402.0</td><td>USD
234.0</td><td>98.4%</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4">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19.9%</td><td>일본
(92.6%)</td><td>한국
(84.3%)</td><td>싱가포르
(77.1%)</td><td>일본
(45.7%)</td><td>한국
(19.9%)</td><td>싱가포르
(9.7%)</td></tr>
<tr><td colspan="2">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n=21명)</td></tr>
<tr><td>Facebook
(66.9%)</td><td>YouTube
(59.9%)</td><td>Philippine Airlines
(36.2%)</td><td>Agoda
(35.0%)</td><td>불편한 언어소통
(40.6%)</td><td>부정적인 한국 이미지
(35.5%)</td><td>불안한 신변
(24.0%)</td></tr>
<tr><td rowspan="2">해외
여행
수요</td><td>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2">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61.1%</td><td>65.7%</td><td>일상 벗어나기
(57.1%)</td><td>역사/문화 경험
(48.8%)</td><td>경제적 여유 부족
(71.2%)</td><td>경비/물가 상승
(49.5%)</td><td>원하는 여행상품 부족
(25.5%)</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필리핀인 수는 615,141명으로 전년 대비 19.0% 증가(2019년 대비 122.1% 회복)

⇒ 2019년 503,867명, 2020년 115,696명, 2021년 116,233명, 2022년 199,845명, 2023년 342,819명, 2024년 516,760명, 2025년 615,141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필리핀인은 3.2%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6위를 기록

⇒ 2019년 2.9%(8위), 2020년 4.6%(5위), 2021년 12.0%(3위), 2022년 6.2%(4위), 2023년 3.1%(9위), 2024년 3.2%(6위), 2025년 3.2%(6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필리핀인의 방문 시기는 4월(69,393명), 10월(62,811명), 5월(60,559명), 11월(60,068명), 12월(53,616명), 6월(53,128명) 등 순. 통상적으로 필리핀인의 한국 방문은 3~4월(부활절 연휴, 봄 시즌, 초·중·고 방학), 10~11월(가을 단풍 시즌), 12월(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휴)에 높게 나타남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필리핀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321,973명, 52.3%), '기타 항구'(107,786명, 17.5%), '부산항구'(92,341명, 15.0%), 김해공항'(32,429명, 5.3%), '제주항구'(27,625명, 4.5%), '인천항구'(21,026명, 3.4%) 등 순. 항구를 통한 입국 비중이 40%에 달함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필리핀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30대 남성'(64,280명, 16.8%), '30대 여성'(56,536명, 14.8%), '20대 여성'(45,704명, 11.9%) 등 순으로, 20·30대 여성 중심의 여타 국가와 달리 '30대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음. 참고로 2025년 방한 필리핀인 중 승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7.8%(232,574명)로 높은 편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필리핀인의 재방문율은 45.2%[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1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필리핀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7.6%),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42.3%),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4.6%), 과거 방문 경험이 좋아서(25.3%)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필리핀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64.9%), 사업 또는 전문활동(19.6%), 친구/친지 방문(12.0%), 교육(3.3%) 등 순[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필리핀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80.5%)과 단체여행(18.9%)이며, 에어텔은 0.6%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필리핀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2.5%), 경기(22.7%), 강원(16.7%), 부산(12.5%), 인천(5.7%)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경기'와 '강원' 방문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필리핀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61.0%), 지방 한정(12.0%),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26.9%)으로 구분[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필리핀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82.1%), 식도락 관광(78.2%), 자연경관 감상(67.7%),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63.7%), 전통문화체험(32.7%), 박물관/전시관 관람(32.6%) 등 순[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필리핀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8.1%), 대형쇼핑몰(50.7%), 백화점(32.5%), 전통시장(32.1%) 등 순[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필리핀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식료품(61.1%), 향수/화장품(58.8%), 의류(55.6%)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필리핀인은 한국에 평균 7.2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1,402.0[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234.0[전체 : USD 321.9]를 지출. 체류는 평균을 상회하나, 1일 지출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고, 1인 지출은 세번째로 낮음

✔ **(만족도 평가)** 방한 필리핀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8.4%[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1.7%[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8.1%[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내 세부 지역은 북부(루손섬(마닐라)), 중부(비시야제도), 남부(민다나오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필리핀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19.9%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23.3%]

⇒ 필리핀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북부·남부(각 20.6%), 중부(17.9%)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필리핀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06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92.6%), 한국(84.3%), 싱가포르(77.1%), 태국(72.2%), 홍콩(69.9%) 등 순. 전반적으로 아시아 목적지에 대한 방문 의향이 높은 가운데, '일본'·'태국'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첫 번째로, '한국'은 두 번째로, '싱가포르'는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필리핀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남부(88.6%), 중부(85.0%), 북부(81.6%)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필리핀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05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45.7%), 한국(19.9%), 싱가포르(9.7%) 등을 꼽음. '일본' 최우선 방문 의향이 전체 평균을 18.3%p 상회하며 두드러짐[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북부 51.5%, 남부 48.2%, 중부 29.3% 순), 중부 거주자는 '한국'(28.4%) 최우선 방문 의향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필리핀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60명)는 그 이유(중복응답 기준)로 음식/식문화(71.3%), 유명 인플루언서·연예인 여행 후기(55.7%), 대중매체(52.7%)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필리핀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21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40.6%),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35.5%), '불안한 신변'(24.0%) 등을 주로 꼽음

[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표본 30명 미만이므로 해석에 유의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필리핀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55.9%), '주변 사람 추천'(44.3%),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32.7%)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과 '주변 사람 추천'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필리핀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Facebook'(66.9%), 'YouTube'(59.9%), 'TikTok'(41.0%)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필리핀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Philippine Airlines'(36.2%), 'Agoda'(35.0%), 'Booking.com'(31.9%)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마닐라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Rakso Travel, Rajah Travel 등 필리핀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방한 여행상품들은 주로 4박 5일 일정(남이섬, 경복궁 한복체험, 명동, 에버랜드·롯데월드 등 포함)에 USD800~900(약 110만원~124만원) 대로 일본 상품(USD1,500~2,000, 약 207만원~276만원) 대비 가격경쟁력은 좋으나, 한국 비자 발급 난이도가 높다는 인식이 큼. 일본 이외에도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등의 경우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하면서 한국 여행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필리핀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7.3%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78.9%]

⇒ 일반 필리핀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68.4%), 한국 드라마(65.6%), 한국 영화(63.6%), 한국 대중가요(60.7%), 한국 뷰티(46.6%) 등 순으로 나타남.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대중가요', '한국 뷰티' 경험률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52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드라마(24.1%), 한국 음식(22.8%), 한국 대중가요(13.7%)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드라마'와 '한국 대중가요' 최선호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90점[전체 : 3.62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음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필리핀인(마닐라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86.2%[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6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97.2%[전체 : 93.1%]. 조사 대상국 중 방문 만족도는 첫 번째로, 방문 빈도 및 경험률은 세 번째로 높음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김치(39.8%), 한국식 치킨(35.7%), 비빔밥(25.8%), 라면(23.3%)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필리핀인은 0.4%(8,846명, 전년 대비 33.8%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7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4,797명), 내과통합(1,134명), 성형외과(845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6,578명), 대구(539명), 부산(515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필리핀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91.4%[전체 : 82.3%]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게 평가. 전년(88.2%) 대비 3.2%p 증가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69.3%), 현대생활문화(49.6%), 제품 및 브랜드(29.1%), 전통문화유산(23.8%), 관광(23.6%), 문화예술(23.0%) 등을 꼽았는데,

특히 '문화콘텐츠' 영향력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게 평가함[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필리핀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28.9%), 한국 음식(16.3%), 한국 드라마(14.7%)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K-pop'은 두 번째로, '한국 드라마'는 세 번째로 연상도가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필리핀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5,703천 명으로 집계됨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16년 이후 수치 원자료 미수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필리핀인 수는 2016년 347,861명, 2017년 424,121명, 2018년 503,976명, 2019년 613,114명, 2020년 109,110명, 2021년 5,625명, 2022년 126,842명, 2023년 622,293명, 2024년 818,659명, 2025년 885,023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필리핀인은 2.1%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8.1%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8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내 세부 지역은 북부(루손섬(마닐라), 중부(비시야제도), 남부(민다나오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필리핀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1.1%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면서 전체 평균을 13.5%p 하회함.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65.7%[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306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9회로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 경험 74.5%, 해외여행 의향 58.8%, 해외여행 횟수 3.8회]

⇒ 필리핀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북부(65.1%), 남부(57.8%), 중부(57.6%)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북부(73.0%), 남부(63.3%), 중부(55.6%)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필리핀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06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7.1%),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48.8%),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46.0%)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필리핀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81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71.2%),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49.5%), '내가 원하는 여행 상품이 없어서/부족해서'(25.5%)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 불충분' 및 '원하는 여행 상품 부족'은 첫 번째로,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상승' 영향력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필리핀인 해외여행 현황)** 2025년 기준 필리핀 항공 여객 수가 6,234만 명을 상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국내 여객은 약 33.24 백만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및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국제 여객 수도 약 29.1 백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파악됨. 단, 2026년에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 여파로 전반적인 필리핀 아웃바운드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2026년 5월 초 유류 가격은 배럴당 162.89달러로, 중동 상황 이전 평균 100달러 미만과는 큰 격차를 보임

✔ **(업무와 여행의 결합, "블레져" 인기)** 글로벌 OTA 아고다의 '2026 Travel Outlook Report'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비즈니스 여행자들이 업무와 여가를 결합한 '블레져'(Bleisure)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조사 대상자의 76%가 출장 시 개인 여행을 결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 필리핀인의 선호도가 95%로 가장 높았으며, 태국(92%), 베트남(86%)이 뒤를 이음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마닐라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고용자는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소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나, 관행상 매년 2주간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 휴가는 가장 더운 시기인 4~5월에 집중됨. 한편, 휴일의 경우 상반기는 부활절 연휴 기간, 하반기는 성탄절, 연말, 신년 연휴 기간이 최대 성수기임

✔ **(방학 현황)** 초·중·고는 4월 첫째 주~5월 넷째 주가 방학, 대학교는 5월 넷째 주~7월 넷째 주가 방학

✔ **(비자/규제 현황)** 필리핀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66개국으로, 전 세계 72위(2025년 76위, 전년 대비 4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필리핀인은 한국 입국 시 비자가 요구됨. 참고로 현재 필리핀은 불법체류 다발국 21개국(법무부 고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한국 법무부는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필리핀 단체 관광객 대상 전자 비자 수수료 면제를 시행함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마닐라 한국비자신청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2026년 2월 20일부터 필리핀인에 대한 비자 신청 절차를 추가 완화하겠다고 발표함. 기존 제출 필요 서류였던 은행거래내역서를 면제하고, 이외 학생단체·가족 단체 신청 시에 필요 서류 간소화 및 고용 관련 서류 유연화를 추진하는 등 방한 비자 발급 여건을 대폭 개선할 것을 밝힘. 참고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4년부터 한국관광공사 마닐라 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필리핀 유력 5개 신용카드사의 프리미엄급 신용카드 소지자 대상 주요 재정서류(3종)을 면제해 주는 비자간소화 제도를 운영 중임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경제성장률·물가)** 필리핀 경제는 최근 5년 평균 6%대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2024년 성장률은 5.7%로 목표(6.0~6.5%)를 하회했으나 베트남·인도와 함께 역내 최고 수준이며, 국제기구는 2025년 6.0%·2026년 6.1% 성장을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3.2%로 목표 범위(2~4%) 내 안정됐고,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6.00%로 인하

✔ **(해외근로자 송금)** 해외근로자(OFW) 송금이 2024년 383억 달러(사상 최고, GDP의 8.3%)를 기록하며 지속 증가, 내수·소비를 떠받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기능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베트남



93

요약 | 베트남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543,105명 (+6.2%)		2.9% (7위)	인천공항 (72.1%)	김해공항 (25.2%)	20대 여성 (16.8%)	30대 남성 (14.7%)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39.2%	새로운 국가 방문 (42.6%)	한국 전통 문화 경험 (32.1%)	개별여행 (63.0%)	단체여행 (36.8%)	여가 (60.1%)	친구/친지 방문 (19.1%)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51.0%)	지방 한정 (28.0%)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21.0%)	7.1일	USD 1,343.7	USD 250.7	98.2%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40.5%	일본 (86.1%)	한국 (85.1%)	중국 (74.1%)	일본 (30.9%)	한국 (27.1%)	중국 (18.3%)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n=9명)**			
	Facebook (63.6%)	TikTok (63.4%)	Traveloka (45.3%)	Booking.com (37.9%)	불편한 출입국 절차 (44.7%)	먼 이동거리 (34.2%)	불편한 언어소통 (33.4%)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76.8%	73.6%	역사/문화 경험 (59.9%)	일상 벗어나기 (55.5%)	경제적 여유 부족 (47.5%)	경비/물가 상승 (45.0%)	국내여행 선호 (31.2%)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베트남인 수는 543,105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2019년 대비 98.1% 회복)

⇒ 2019년 553,731명, 2020년 81,939명, 2021년 22,946명, 2022년 185,061명, 2023년 420,688명, 2024년 511,420명, 2025년 543,105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베트남인은 2.9%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7위를 기록

⇒ 2019년 3.2%(7위), 2020년 3.3%(7위), 2021년 2.4%(9위), 2022년 5.8%(5위), 2023년 3.8%(5위), 2024년 3.1%(7위), 2025년 2.9%(7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베트남인의 방문 시기는 3월(52,874명), 4월(52,792명), 8월(51,664명), 2월(51,313명), 10월(50,483명) 등 순. 일반적으로 동계시즌에 방한 비중이 큰 주변 동남아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와는 달리 베트남은 12월, 1월 방한 비중이 적고, 3~4월(봄꽃 관광), 6월~8월(여름방학), 10월(단풍 관광) 등 봄, 여름, 가을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수요가 분산된 것이 특징적임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베트남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391,527명, 72.1%), '김해공항'(136,890명, 25.2%) 등 순으로, 부산·경남권 직항 노선의 영향으로 김해공항을 통한 입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베트남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79,113명, 16.8%), '30대 남성'(69,245명, 14.7%), '20대 남성'(65,018명, 13.8%), '30대 여성'(61,388명, 13.0%) 등 순으로, 20·30대 청년층에 고르게 분포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베트남인의 재방문율은 39.2%[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1.7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베트남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42.6%),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32.1%), 계획한 여행 경비에

적합한 여행지여서(31.2%),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해서(31.1%)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베트남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60.1%), 친구/친지 방문(19.1%), 사업 또는 전문활동(14.6%), 교육(6.1%)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교육' 목적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베트남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63.0%)과 단체여행(36.8%)이며, 에어텔은 0.2% 차지, 조사 대상국 중 '단체여행'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베트남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65.9%), 부산(24.3%), 경기(21.5%), 강원(12.7%), 경남(7.8%)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서울' 방문 비중은 두 번째로 낮았지만, '경남' 방문 비중은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베트남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51.0%), 지방 한정(28.0%),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21.0%)으로, 조사 대상국 중 '지방 한정'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베트남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85.3%), 식도락 관광(80.4%), 자연경관 감상(7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61.0%), 박물관/전시관 관람(32.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자연경관 감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베트남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48.8%), 대형쇼핑몰(46.1%), 전통시장(44.3%), 대형마트(37.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전통시장'은 첫 번째로, '대형마트'는 세 번째로 방문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베트남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식료품(63.4%), 향수/화장품(57.0%), 의류(45.3%), 인삼/한약재(35.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인삼/한약재' 구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베트남인은 한국에 평균 7.1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1,343.7[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250.7[전체 :

USD 321.9]를 지출. 체류 기간은 평균을 상회하나, 1인 및 1일 지출은 조사 대상국 중 각각 두 번째·세 번째로 낮음

✔ **(만족도 평가)** 방한 베트남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8.2%[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1.0% [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7.9%[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세부 지역은 북부(하노이, 하이퐁 등 18개 지역), 중부(다낭 등 8개 지역), 남부(호치민 등 8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베트남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40.5%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7.2%p 상회하며 높게 나타남[전체 : 23.3%]

⇒ 베트남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북부(47.1%), 남부(45.6%), 중부(22.8%)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베트남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42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86.1%), 한국(85.1%), 중국(74.1%), 태국(65.1%), 싱가포르(64.4%) 등 순. 이 중 '한국' 및 '중국' 방문 의향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베트남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북부(87.6%), 남부(85.4%), 중부(80.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베트남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38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30.9%), 한국(27.1%), 중국(18.3%) 등을 꼽음.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이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북부 거주자는 '한국'(34.5%)을, 중부 및 남부 거주자는 '일본'(각 36.8%, 30.2%)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베트남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92명)는 그 이유(중복응답

기준)로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영상(68.4%), 대중매체(56.0%), 유명 인플루언서·연예인 여행 후기(49.6%)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베트남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9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44.7%), '먼 이동거리'(34.2%), '불편한 언어소통'(33.4%) 등을 주로 꼽음[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표본 30명 미만이므로 해석에 유의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베트남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6.5%),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35.4%), '한국공공기관 홍보 및 마케팅 등'(34.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대중매체 시청'·'공공기관 홍보'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베트남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Facebook'(63.6%), 'TikTok'(63.4%), 'YouTube'(61.9%)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베트남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Traveloka'(45.3%), 'Booking.com'(37.9%), 'Agoda'(31.7%) 등을 꼽음

한국관광공사의 하노이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Vietravel 등 베트남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 중인 가을 시즌 방한 여행 상품들은 주로 4박 5일 일정(북촌, N서울타워, 남이섬, 에버랜드, 해운대)에 1박 단가 VND4,997,500(약 26.6만원)대로, 일본 상품(5박 6일, 1박 단가 VND8,152,000-약 43.4만원) 대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나, 태국 및 중국 상품과 비교 시 지리적 접근성과 비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베트남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8.0%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으면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78.9%]

⇒ 일반 베트남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65.1%), 한국 영화(52.2%), 한국 드라마(50.6%), 한국 대중가요(47.1%), 한국 패션(44.5%)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패션' 경험률은 첫 번째로, '한국 음식'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56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32.3%), 한국 영화(13.3%), 한국 대중가요(10.8%)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90점[전체 : 3.62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음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베트남인(호치민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89.2%[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3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96.4%[전체 : 93.1%]. 조사 대상국 중 방문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김치(48.6%), 한국식 치킨(25.0%), 비빔밥(21.1%)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최근 1년 내 '김치'를 가장 많이 취식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베트남인은 1.1%(23,133명, 전년 대비 13.5% 증가)를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9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5,224명), 내과통합(4,641명), 성형외과(3,783명), 치과(2,638명), 검진센터(1,480명) 등 순. 피부과 이외 내과 수요도 높게 나타남

⇒ 주요 고객은 여성(15,627명, 67.6%)과 20대(12,155명, 52.7%) 및 30대(6,149명, 26.7%)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9,828명), 대구(2,225명), 경기(2,150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베트남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5.2%[전체 : 82.3%]로, 전년(83.8%) 대비 1.4%p 증가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58.4%), 제품 및 브랜드(35.7%), 현대생활문화(34.8%), 전통문화유산(26.4%), 관광(19.9%)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베트남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17.1%), 한국 음식(14.5%), 한류스타(9.2%)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류스타' 연상도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베트남인 수는 2016년 233,763명, 2017년 308,898명, 2018년 389,005명, 2019년 495,051명, 2020년 152,559명, 2021년 26,586명, 2022년 284,113명, 2023년 573,916명, 2024년 621,173명, 2025년 678,594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베트남인은 1.6%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9.2%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11위를 기록

2-2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세부 지역은 북부(하노이, 하이퐁 등 18개 지역), 중부(다낭 등 8개 지역), 남부(호치민 등 8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베트남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76.8%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73.6%[전체 : 58.8%]로 전체 평균을 14.8%p 상회하며, 해외여행 의향자(n=342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6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베트남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남부(82.5%), 북부(77.0%), 중부(68.0%)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남부(77.8%), 북부(71.9%), 중부(70.2%)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베트남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42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9.9%),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5.5%),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41.4%)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베트남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37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47.5%),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45.0%),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31.2%) 등을 주로 꼽음 [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3 해외여행 트렌드

✔ **(설 연휴 해외여행 동향)** 베트남 관광 분야 시장 조사 기업인 The Outbox Company에 따르면 2026년 뗏(설) 기간 베트남 응답자의 34%가 해외여행 의향이 있었는데, 이는 전년(26%) 대비 8%p 상승한 수치임. 이들 해외여행 의향자의 37%는 전문가가 관리하는 구조화된 여행상품인 '풀 패키지 투어'(All-inclusive)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리고 41%는 해외여행 비용으로 4,000만 VND(한화 약 215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35%는 4~5성급 상급 호텔 숙박을 선호하는 등 성수기 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불 의사를 밝힘

✔ **(여행 계획 시 높은 AI 활용도)** 2025년 10월 글로벌 OTA인 아고다 설문 조사 결과, 베트남은 아시아 9개국 중 여행 시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국가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베트남인의 81%가 "다음 여행 계획에 AI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아시아 전체 평균 63%). AI 정보 신뢰도는 '신뢰한다' 28%, '중립' 59%, '신뢰하지 않는다' 13%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중립적 인식이 우세하였음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하노이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베트남의 노동법전에 따라 고용자는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소 1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매 5년마다 1일씩 가산됨. 기업 휴가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자녀가 있을 시 주로 학교 방학 기간인 6-8월 중에 사용함. 한편, 베트남의 공휴일은 총 12일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9~10월경에 차년도 연휴 일정 발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연휴 날짜 배치, 주말 중복에 따른 대체 휴일 혹은 근무일 조정 등을 발표하면서, 연휴 일정에 따라 관광업계의 상품 구성이 달라짐. 베트남의 최대 연휴는 구정 연휴로, 전/후 한 달간은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연휴에는 대부분의 지역 상점들이 문을 닫음

✔ **(방학 현황)** 초·중·고 및 대학교 모두 동일하게 여름방학은 5월 말~8월 말, 겨울방학은 없음

✔ **(비자/규제 현황)** 베트남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49개국으로, 전 세계 86위(2025년 88위,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베트남인은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함. 그리고 현재 베트남은 불법체류 다발국 21개국(법무부 고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한국 법무부는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베트남 단체 관광객 대상 전자 비자 수수료 면제를 시행함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경제성장률)** 2025년 베트남 GDP는 전년 대비 8.02% 성장(2022년을 제외하면 2011~2025년 중 최고, 4분기 +8.46%)하며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 공업·건설(+8.95%)과 서비스업(+8.62%)이 성장을 견인했고, 소매판매·소비서비스 매출이 +9.2% 늘며 내수 회복을 뒷받침. 외국인 관광객도 2,000만 명을 넘어섬

✔ **(교역·투자·물가)** 2025년 총 교역액은 9,300.7억 달러(전년 대비 +17%대), 수출 4,750.6억 달러(+17.0%)로 무역수지 200.5억 달러 흑자를 기록. FDI 실행액은 276.2억 달러(+9.0%)로 제조업 중심 유입이 지속. 소비자물가(CPI)는 3.31%로 목표 범위 내 안정, 기준금리(재융자 금리)는 4.5%로 유지, 실업률은 2.22%로 낮은 수준. 다만 대외 수요 변동·미중 정책 변화 등은 2026년 불확실성 요인임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베트남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싱가포르



105

요약 | 싱가포르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399,635명 (+6.4%)		2.1% (8위)	인천공항 (81.4%)	제주공항 (10.5%)	20대 여성 (14.0%)	30대 여성 (12.8%)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68.7%	좋은 과거 방문 경험 (44.7%)	한국 전통 문화 경험 (36.9%)	개별여행 (95.9%)	단체여행 (4.0%)	여가 (82.9%)	사업 (13.7%)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62.8%)	지방 한정 (9.7%)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27.5%)	7.2일	USD 2,225.0	USD 331.9	97.2%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54.9%	말레이시아 (81.4%)	일본 (80.4%)	한국 (66.5%)	일본 (24.2%)	중국 (18.8%)	말레이시아 (16.7%)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n=9명)**			
	YouTube (45.8%)	Instagram (33.2%)	Agoda (38.3%)	Klook (31.4%)	불편한 언어소통 (41.6%)	한류 관심 부재 (21.6%)	비싼 경비/물가, 특가 부족 (각 21.0%)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상위 3위)**			
	96.3%	77.4%	일상 벗어나기 (63.1%)	여유로운 일상 (62.2%)	경제적 여유 부족 (42.2%)	경비/물가 상승 (25.8%)	불안한 국내외 정세 (25.7%)	

1 한국여행 동향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싱가포르인 수는 399,635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2019년 대비 162.4% 회복)

⇒ 2019년 246,142명, 2020년 18,009명, 2021년 7,525명, 2022년 165,272명, 2023년 347,814명, 2024년 375,428명, 2025년 399,635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싱가포르인은 2.1%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8위를 기록

⇒ 2019년 1.4%(12위), 2020년 0.7%(20위), 2021년 0.8%(18위), 2022년 5.2%(7위), 2023년 3.2%(8위), 2024년 2.3%(8위), 2025년 2.1%(8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싱가포르인의 방문 시기는 12월(64,053명), 11월(48,541명), 6월(40,211명), 10월(39,995명), 4월(37,953명), 5월(37,734명), 3월(36,370명), 9월(29,816명) 등 순으로, 주로 방학과 스키, 겨울 축제 등 동계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 및 연말(12월)에 방한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싱가포르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325,239명, 81.4%), '제주공항'(42,128명, 10.5%), '김해공항'(25,082명, 6.3%)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싱가포르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54,038명, 14.0%), '30대 여성'(49,304명, 12.8%), '40대 여성'(38,770명, 10.1%) 등 순으로, 여성층이 폭넓은 연령대에 걸쳐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싱가포르인의 재방문율은 68.7%[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8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싱가포르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과거 방문 경험이 좋아서(44.7%),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36.9%),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4.1%), 계획한 여행경비에 적합한 여행지여서(32.8%)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과거 방문 경험'은 첫 번째로, '여행 경비 적합성'은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싱가포르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82.9%), 사업 또는 전문활동(13.7%), 친구/친지 방문(2.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여가/위락/휴식'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싱가포르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5.9%)과 단체여행(4.0%)이며, 에어텔은 0.2%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싱가포르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8.4%), 부산(16.7%), 제주(14.3%), 경기(7.3%), 강원(6.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제주'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싱가포르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62.8%), 지방 한정(9.7%),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27.5%)으로 구분[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싱가포르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85.9%), 식도락 관광(68.2%), 자연경관 감상(54.0%),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42.6%), 휴양/휴식(31.4%)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쇼핑' 참여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싱가포르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49.8%), 백화점(45.6%), 대형쇼핑몰(36.9%), 전통시장(26.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백화점' 방문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싱가포르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72.8%), 의류(63.0%), 식료품(54.7%)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의류' 구매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싱가포르인은 한국에 평균 7.2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225.0[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331.9[전체 : USD 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싱가포르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2%[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3.0%[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6.8%[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싱가포르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54.9%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으면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23.3%]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싱가포르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60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말레이시아(81.4%), 일본(80.4%), 한국(66.5%), 중국(65.1%), 대만(63.6%) 등 순. 이 중 '말레이시아'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첫 번째로, '대만'은 두 번째로, '중국'은 세 번째로 높았고,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1.3%p 상회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싱가포르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54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24.2%), 중국(18.8%), 말레이시아(16.7%), 한국(8.3%)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말레이시아' 최우선 방문 의향은 가장 높았지만,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8.5%p 하회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싱가포르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47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41.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1.6%),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물가' 및 '한국여행 관련 특가/프로모션 부족'(각 21.0%)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불편한 언어소통'은 두 번째로, '항공권·여행상품 특가/프로모션 부족'은 세 번째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싱가포르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1.9%),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4.6%), '주변 사람 추천'(33.7%)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싱가포르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45.8%), 'Instagram'(33.2%), 'Facebook'(32.8%)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싱가포르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Agoda'(38.3%), 'Klook'(31.4%), 'Trip.com'(28.3%)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싱가포르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Chan Brothers, CTC 등 싱가포르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방한 여행 상품들은 6박 기준 1인당 1,700 ~ 2,500싱가포르 달러(약 180만원 ~ 266만원) 대. 서울, 부산, 제주 등 한국-싱가포르 직항을 통해 입국이 용이한 지역 방문 상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강원, 전남 등 동계 스키상품, 자연, 미식 체험 등 지역/여행테마 다양화 추세. 한편, 일본의 엔저 효과 및 다양한 여행상품 보유, 중국-싱가포르 상호 비자 면제('24.02) 등으로 인해 경쟁이 보다 심화 될 것으로 예상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싱가포르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2.7%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3.9%p 상회함[전체 : 78.9%]

⇒ 일반 싱가포르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60.5%), 한국 드라마(50.7%), 한국 영화(43.4%), 한국 대중가요(41.5%), 한국 뷰티(40.1%)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31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9.6%), 한국 드라마(21.7%), 한국 뷰티(11.0%)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80점[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싱가포르인(싱가포르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85.2%[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1.8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0.4%[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김치(36.2%), 한국식 치킨(28.3%), 비빔밥(22.3%), 라면(21.2%)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싱가포르인은 2.1%(43,222명, 전년 대비 62.1% 증가)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6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33,402명, 77.1%), 성형외과(3,843명, 8.9%), 내과통합(3,315명, 7.7%), 안과(502명, 1.2%) 등 순으로 피부과에 집중된 편

⇒ 주요 고객은 여성(34,813명, 80.5%)과 30대(15,613명, 36.8%), 20대(9.915명, 23.4%), 40대(9,707명, 22.9%)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42,000명, 97.2%)이 대부분 차지

1-6 한국 이미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싱가포르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23.8%), 한국 음식(16.3%), 한국 드라마(9.6%) 등 순[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싱가포르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9,474천 명, 2017년 9,889천 명, 2018년 10,378천 명, 2019년 10,711천 명, 2020년 1,543천 명, 2021년 833천 명, 2022년 5,154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3년 이후값은 원자료에 미수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싱가포르인 수는 2016년 361,807명, 2017년 404,132명, 2018년 437,280명, 2019년 492,252명, 2020년 55,273명, 2021년 857명, 2022년 131,969명, 2023년 591,267명, 2024년 691,226명, 2025년 726,251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싱가포르인은 1.7%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5.1%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9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싱가포르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6.3%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면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77.4%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으며[전체 : 58.8%], 해외여행 의향자(n=360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6.0회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음[전체 : 3.8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싱가포르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60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63.1%),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62.2%),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1.7%)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싱가포르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37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42.2%),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25.8%), '불안한 국내외 정세'(25.7%)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제2의 도시" 여행 부상)** 글로벌 OTA인 스카이스캐너와 익스피디아에 따르면, 2026년에 들어 싱가포르 여행객은 전통적인 관광 도시 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현지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2선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구이양(중국)은 316%, 파당(인도네시아)은 141%, 치앙마이(태국)와 다낭(베트남)은 20~30% 가량 검색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추세는 유럽 중소 도시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싱가포르발 직항편이 없는 마드리드, 더블린, 제네바의 여객 수송량은 '24-'25년에 각각 10% 이상 증가하였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는 40% 증가하였음

✔ **(짧고 저렴한 지역 여행, '마이크로케이션' 인기)** 동남아 OTA인 트래블로카 분석에 따르면, 짧고 저렴한 지역 여행을 선호하는 '마이크로케이션' 트렌드가 최근 들어 싱가포르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됨. 2025년 싱가포르발 여행 검색의 60%가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인근 국가가 차지하였는데, 짧은 이동 시간과 낮은 예산 부담, 간편한 계획이 단거리 여행 선호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됨. 이외 유연근무 확산과 지역 연결성 강화로 인해 마이크로케이션 트렌드는 2026년에도 싱가포르 해외여행 수요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여행 급부상)** 싱가포르 기반 멀티 통화 모바일 지갑인 YouTrip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싱가포르인 최다 방문 국가 1위 자리를 차지하였음. 중국 급부상의 요인으로는 일본 및 유럽 대비 높은 가성비, 위안화 대비 싱달러 강세, 싱-중국 간 항공편 다양화, 비자 면제, 정치 및 경제 안정성, 유명 관광지의 '데스티네이션 듀프(대체 여행지/예. 스위스 알프스→윈난으로 대체)' 역할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주요 인기 도시는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청두 등임. 이러한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일본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즉 중국은 '가성비·빈번한 여행', 일본은 '특별한 장거리 여행'으로 포지션이 분화하고 그 외 한국, 대만 등 기존 인기 지역도 강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싱가포르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싱가포르 노동법에 따르면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연간 휴가가 주어지는데, 첫 해에는 최소 7일, 그 후 매년 1일씩 추가되면서 8년차부터는 최소 14일의 유급 연간 휴가를 쓸 수 있음. 한편,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 특성상 해외여행이 일상적인 편이나, 연중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열대지방이면서 겨울방학 및 크리스마스가 겹치는 12월에 해외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편임

✔ **(방학 현황)** 초·중·고의 경우 크게 5월 말~6월 말(여름방학)과 11월 말~12월 말(겨울방학)인데, 초·중·고가 4학기로 운영되면서 3월(봄)과 9월(가을)에 1주일 내외로 짧은 방학이 있음

✔ **(비자/규제 현황)** 싱가포르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92개국으로, 전 세계 1위(2025년 1위, 전년과 동일,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싱가포르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싱가포르 경제는 5.0% 성장(2024년 5.3% 대비 소폭 둔화)했으며, 제조업(+8.7%)과 서비스업(+4.3%)이 성장을 견인. 서비스업 내 도매업·정보통신업이 각 +6.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명목 GDP는 약 7,900억 싱가포르달러(+3.1%). 무역 연관 서비스업·첨단 제조업 중심의 대외 지향적 구조가 성장을 뒷받침

✔ **(2026년 1분기)** 통상산업부(MTI) 선행 추정치 기준 2026년 1분기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직전 분기 5.7% 대비 완만). 대외 수요와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을 주도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인도네시아



117

요약 | 인도네시아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365,596명 (+8.7%)		1.9% (9위)	인천공항 (59.0%)	기타항구 (17.9%)	30대 남성 (14.2%)	20대 남성 (13.8%)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40.3%	다양한 관광지 정보 경험 (45.2%)	한국 전통 문화 경험 (41.5%)	개별여행 (68.0%)	단체여행 (31.8%)	여가 (67.9%)	사업 (24.4%)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54.7%)	지방 한정 (7.2%)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38.1%)	7.7일	USD 1,802.3	USD 285.6	98.8%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22.4%	일본 (87.8%)	싱가포르 (83.2%)	한국 (79.0%)	일본 (35.7%)	싱가포르 (17.2%)	한국 (16.1%)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n=17명)**			
	YouTube (70.1%)	Instagram (57.7%)	Agoda (38.3%)	Klook (31.4%)	불편한 언어소통 (37.7%)	불편한 종교 환경 (35.8%)	부정적인 한국 이미지 (27.7%)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n=29명)**			
	65.9%	63.7%	일상 벗어나기 (58.1%)	여유로운 일상 (56.1%)	경제적 여유 부족 (53.0%)	경비/물가 상승 (35.0%)	시간 불충분 (34.1%)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인도네시아인 수는 365,596명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2019년 대비 131.2% 회복)

⇒ 2019년 278,575명, 2020년 66,762명, 2021년 46,563명, 2022년 106,750명, 2023년 250,249명, 2024년 336,185명, 2025년 365,596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인도네시아인은 1.9%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9위를 기록

⇒ 2019년 1.6%(11위), 2020년 2.7%(10위), 2021년 4.8%(5위), 2022년 3.3%(8위), 2023년 2.3%(11위), 2024년 2.1%(9위), 2025년 1.9%(9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방문 시기는 4월(36,580명), 5월(34,665명), 12월(34,073명), 10월(33,323명), 3월(32,325명), 6월(32,029명), 11월(30,357명) 등 순. 인도네시아의 최대 연휴인 르바란(4월) 이외 연휴와 봄/가을 시즌, 학생 방학 기간 등에 방문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됨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215,644명, 59.0%), '기타 항구'(65,553명, 17.9%), '부산항구'(32,776명, 9.0%), '제주항구'(21,600명, 5.9%), '김해공항'(16,641명, 4.6%) 등 순. 선박 등 항구를 통한 입국 비중(약 35%)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30대 남성'(33,752명, 14.2%), '20대 남성'(32,799명, 13.8%), '30대 여성'(31,306명, 13.2%), '20대 여성'(30,638명, 12.9%) 등 순으로, 20·30대 남녀에 고르게 분포. 참고로 2025년 방한 인도네시아인 중 승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5.0%(128,106명)로 높은 편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재방문율은 40.3%[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2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하고 나서(45.2%),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1.5%),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9.6%),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38.5%)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67.9%), 사업 또는 전문활동(24.4%), 교육(4.3%), 친구/친지 방문(2.6%) 등 순[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68.0%)과 단체여행(31.8%)이며, 에어텔은 0.2% 차지, 조사 대상국 중 '단체여행'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8.6%), 강원(18.0%), 부산(17.9%), 경기(14.3%), 인천(6.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강원'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54.7%), 지방 한정(7.2%),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38.1%)으로, 전체 평균 대비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80.7%), 식도락 관광(75.0%), 자연경관 감상(69.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58.8%), 박물관/전시관 관람(38.8%), 전통문화 체험(33.1%)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자연경관 감상'은 두 번째로, '전통문화 체험'은 세 번째로 참여 비중이 높음[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5.8%), 대형쇼핑몰(54.4%), 백화점(30.0%), 전통시장(27.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대형쇼핑몰' 방문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인도네시아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8.2%), 식료품(63.5%), 의류(59.3%), 보석/악세서리(25.1%), 가방류(24.5%)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가방류' 구매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인도네시아인은 한국에 평균 7.7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1,802.3[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285.6 [전체 : USD 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인도네시아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8.8%[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1.8%[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8.5%[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세부 지역은 수마트라(수마트라섬), 자와(자와섬(자카르타)), 그 외(소순다열도, 술라웨시섬 등 5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인도네시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22.4%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23.3%]

⇒ 인도네시아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자와(26.8%), 그 외(23.8%), 수마트라(13.8%)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인도네시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6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87.8%), 싱가포르(83.2%), 한국(79.0%), 말레이시아(69.5%), 중국(63.6%) 등 순. 이 중 '싱가포르'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일본' 및 '한국'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인도네시아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수마트라(83.0%), 그 외(81.5%), 자와(75.2%)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인도네시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288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35.7%), 싱가포르(17.2%), 한국(16.1%)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싱가포르' 최우선 방문 의향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그 외 40.1%, 자와 39.9%, 수마트라 24.0%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인도네시아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46명)는 그 이유(중복 응답 기준)로 음식/식문화(66.7%), 유명 인플루언서·연예인 여행 후기(52.8%), 계절/기후(51.2%)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인도네시아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17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37.7%), '불편한 종교 환경'(35.8%), '부정적인 한국 관련 이미지'(27.7%) 등을 주로 꼽음[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표본 30명 미만이므로 해석에 유의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인도네시아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50.1%),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39.1%),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6.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OTT 플랫폼 시청'은 두 번째로,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은 세 번째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인도네시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70.1%), 'Instagram'(57.7%), 'TikTok'(56.0%)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인도네시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Traveloka'(80.2%), 'Tiket.com'(51.7%), 'Agoda'(38.8%)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자카르타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인도네시아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 중인 방한 여행상품들은 주로 5박 6일 일정으로, 대다수가 서울(경복궁, 강남, 홍대 등) 방문 상품임. 단, 틱톡 등에서 바이럴 된 콘텐츠를 통해 신규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 관광, 특히 부산 방문 상품이 적극적으로 개발·판매 중임. 한편, 5박 6일 일정의 한국 여행상품 가격은 약 USD 1,270(약 175만원)으로 동일 기간의 일본 여행상품(약 USD 1,590, 약 220만원) 대비 가격이 다소 저렴한 편. 단, 일본의 경우 전자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체감하는 방한 상품 가격 경쟁력은 크지 않은 편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인도네시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5.7%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으면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78.9%]

⇒ 일반 인도네시아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드라마(63.2%), 한국 영화(60.0%), 한국 음식(58.1%), 한국 대중가요(54.9%), 한국 뷰티(37.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드라마'·'한국 영화'·'한국 대중가요' 경험률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45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드라마(28.0%), 한국 음식(17.8%), 한국 영화(14.4%)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드라마' 선호도가 가장 높음[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88점[전체 : 3.62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음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인도네시아인(자카르타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85.8%[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9회[전체 : 월 2.0회],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5.3%[전체 : 93.1%]. 방문 빈도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음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김치(33.0%), 라면·불고기(각 31.7%), 한국식 치킨(28.5%)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최근 1년 내 '라면'을 가장 많이 취식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인도네시아인은 1.1%(21,257명, 전년 대비 104.6% 증가, 주요국 중 증가율 네 번째로 높음)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0위 차지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13,528명), 성형외과(4,889명), 내과통합(929명), 검진센터(465명) 등 순으로, 피부과에 집중된 편

⇒ 주요 고객은 여성(17,389명, 81.8%)과 30대(7,350명, 34.7%), 20대(5,324명, 25.1%), 40대(4,288명, 20.2%)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19,031명), 부산(1,165명), 제주(240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6.6%[전체 : 82.3%]로, 전년(80.6%) 대비 6.0%p 증가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59.5%), 현대생활문화(37.0%), 제품 및 브랜드(32.0%), 경제 수준(22.3%), 인적자원(19.6%)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인도네시아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31.3%), 한국 드라마(17.8%), 한국 음식(7.6%) 등 순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 연상도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음[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인도네시아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8,340천 명, 2017년 8,856천 명, 2018년 9,468천 명, 2019년 11,689천 명, 2022년 3,541천 명, 2023년 7,518천 명, 2024년 8,947천 명

⇒ 지표 : outbound trips – total – visitors – 방문객 전체(숙박+당일) 기준(단위 천 명)

⇒ 2020~2021년 값은 원자료에 미수록. 2024년 기준 2019년의 76.5% 수준 기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인 수는 2016년 271,014명, 2017년 352,330명,

2018년 396,852명, 2019년 412,779명, 2020년 77,724명, 2021년 5,209명, 2022년 119,723명, 2023년 429,382명, 2024년 517,651명, 2025년 640,577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인도네시아인은 1.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3.7%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12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세부 지역은 수마트라(수마트라섬), 자와(자와섬(자카르타)), 그 외(소순다열도, 술라웨시섬 등 5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인도네시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5.9%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63.7%[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96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4.5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인도네시아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자와(69.4%), 그 외(64.6%), 수마트라(61.5%)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은 그 외(65.3%), 자와(64.5%), 수마트라(61.0%)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인도네시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6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8.1%),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56.1%),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45.6%)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인도네시아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29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53.0%),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35.0%),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34.1%)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 표본 30명 미만이므로 해석에 유의

2-4 해외여행 트렌드

✔ **(최대 연휴 '르바란' 기간 해외여행 현황)** 글로벌 OTA인 트립닷컴의 2026년 3.20.~3.29. 기간 중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르바란 기간(3.18~24) 해외여행 예약은 전년(3.28~4.7)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해외 목적지는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방콕, 퍼스, 홍콩, 도쿄, 멜버른, 광저우, 페낭, 호치민, 한국 등 순으로 나타남

✔ **(경제 불황과 근거리 여행 인기)** 주요 OTA인 Tiket.com에 따르면, 2025년에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거리 목적지를 선호하던 과거와는 달리,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들이 선호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음. 단, 해외여행 자체에 대한 관심 자체는 줄지 않으면서 항공권 및 숙박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40% 증가하였다고 밝힘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자카르타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인도네시아의 노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자는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소 1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그리고 동일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근로 시 근속 7년차, 8년 차에 각각 1개월의 장기 휴가를 지급함. 기업의 휴가 시즌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초·중·고 방학 기간 중에 장기 휴가를 신청함. 한편, 인도네시아의 최대 연휴는 르바란(4월)으로, 순수 르바란 연휴 기간은 2일이지만, 당국에서 정한 르바란 전후의 임시공휴일 및 개인 연차 등을 활용 할 경우 무슬림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약 1주일간의 휴일을 보낼 수 있음

✔ **(방학 현황)** 초·중·고는 여름 방학은 6월 말부터 2주간, 겨울 방학은 12월 중·하순부터 2주간, 대학교의 여름 방학은 7~8월, 겨울 방학은 12~1월

✔ **(비자/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71개국으로, 전 세계 67위(2025년 71위, 전년 대비 4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인도네시아인은 한국 입국 시 비자 필요. 다만, 현재 인도네시아는 불법체류 다발국 21개국(법무부 고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한국 법무부는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시행함

⇒ 2026년 2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관광 활성화 대책(입국 편의성 개선)의 후속 조치로, 동년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함(15일 범위 내에서 한국 여행 가능)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인도네시아 GDP는 5.11% 성장(2024년 5.03% 상회)하며 5년 연속 5%대 성장을 이어감. 4분기 성장률이 5.39%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수출은 +7.03%(대미 수출 +16.6%), 무역수지 흑자는 410.5억 달러(+31.02%),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63억 달러를 기록. 기준금리는 2024년 말 6.00%에서 2025년 9월 4.75%까지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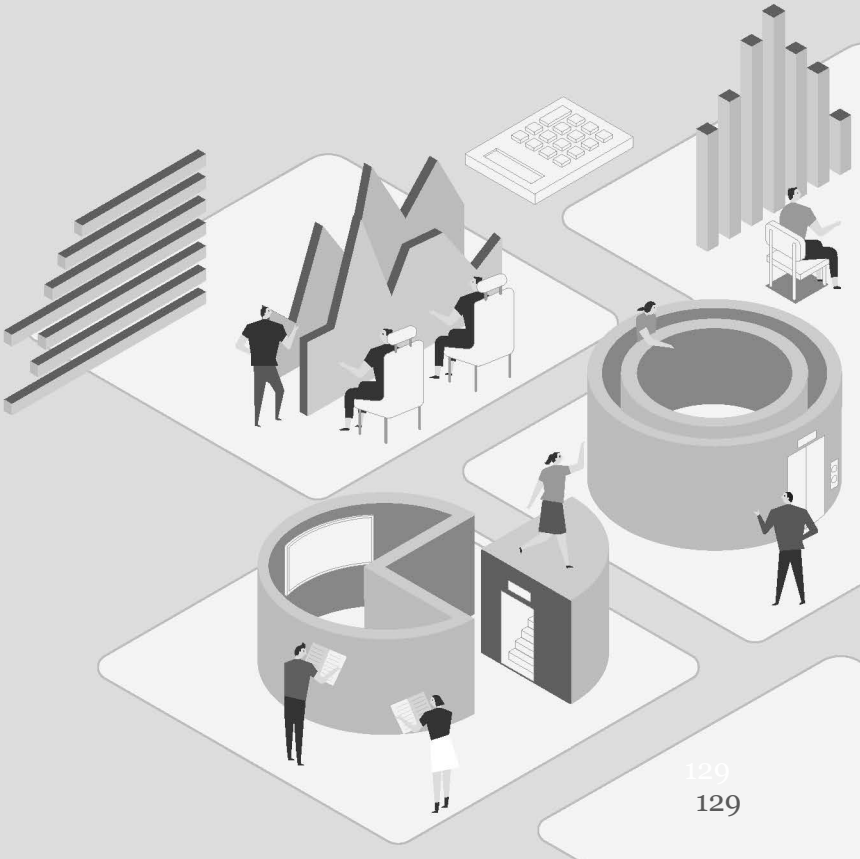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 2026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61%로, 2025년 4분기(5.39%) 대비 상승. 프라보워 정부의 확장 재정(무상급식·무료 건강검진 등 공공복지)이 2026년에도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태국



129

요약 | 태국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333,930명 (+3.1%)		1.8% (10위)	인천공항 (82.5%)	김해공항 (12.2%)	30대 여성 (21.2%)	20대 여성 (14.3%)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79.6%	한류 콘텐츠 경험 (42.6%)	한국 전통 문화 경험 (41.3%)	개별여행 (92.0%)	단체여행 (7.0%)	여가 (63.9%)	친구/친지 방문 (19.6%)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78.1%)	지방 한정 (15.8%)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6.2%)	6.4일	USD 1,565.6	USD 306.1	98.6%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25.3%	일본 (85.5%)	한국 (64.9%)	중국 (63.2%)	일본 (55.7%)	한국 (14.8%)	중국 (7.9%)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n=28명)**			
	YouTube (61.2%)	TikTok (53.2%)	Agoda (52.4%)	Booking.com (38.0%)	불편한 출입국 절차 (51.6%)	한류 관심 부재 (30.0%)	날씨/기후 부적합 (29.6%)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67.4%	56.4%	역사/문화 경험 (56.4%)	일상 벗어나기 (49.6%)	경비/물가 상승 (51.9%)	경제적 여유 부족 (51.0%)	해외여행 무관심 (31.2%)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태국인 수는 333,930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2019년 대비 58.4% 회복),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

⇒ 2019년 571,610명, 2020년 76,568명, 2021년 8,319명, 2022년 179,259명, 2023년 379,442명, 2024년 323,856명, 2025년 333,930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태국인은 1.8%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0위를 기록

⇒ 2019년 3.3%(6위), 2020년 3.0%(8위), 2021년 0.9%(17위), 2022년 5.6%(6위), 2023년 3.4%(7위), 2024년 2.0%(10위), 2025년 1.8%(10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태국인의 방문 시기는 10월(40,937명), 4월(40,689명), 12월(39,120명), 11월(32,303명), 5월(29,480명) 등 순으로, 10월 학교 방학과 4월 송크란 연휴 그리고 연말에 방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태국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275,653명, 82.5%), '김해공항'(40,725명, 12.2%), '제주공항'(8,769명, 2.6%)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태국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30대 여성'(63,218명, 21.2%), '20대 여성'(42,710명, 14.3%), '40대 여성'(39,562명, 13.3%), '30대 남성'(32,194명, 10.8%) 등 순으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주로 여성층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태국인의 재방문율은 79.6%[전체 : 56.6%]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음. 평균 방한 횟수는 3.1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태국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42.6%),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1.3%),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하고 나서(35.3%), 계획한 여행 경비에 적합한 여행지여서(31.6%)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여행 경비 적합'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태국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63.9%), 친구/친지 방문(19.6%), 사업 또는 전문활동(11.6%), 교육(4.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친구/친지 방문'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태국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2.0%)과 단체여행(7.0%)이며, 에어텔은 1.0%임[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태국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71.0%), 부산(15.6%), 경기(11.4%), 인천(4.3%), 경남(3.7%) 등 순[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태국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78.1%), 지방 한정(15.8%),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6.2%)으로, 조사 대상국 중 '수도권 한정' 방문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태국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85.1%), 자연경관 감상(68.7%), 식도락 관광(65.6%), 휴양/휴식(46.6%),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46.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휴양/휴식'은 첫 번째로, '자연경관 감상'은 세 번째로 참여 비중이 높음[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태국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대형쇼핑몰(45.8%), 백화점(43.0%), 전통시장(42.7%), 로드샵(42.4%)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전통시장'은 두 번째로, '백화점'은 세 번째로 방문 비중이 높음[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태국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81.7%), 식료품(43.4%), 신발류(37.6%), 의류(35.1%), 가방류(31.1%)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신발류'와 '가방류'는 첫 번째로, '향수/화장품'은 두 번째로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태국인은 한국에 평균 6.4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1,565.6[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306.1[전체 : USD 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태국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8.6%[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6.0%[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8.2%[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태국 내 세부 지역은 방콕(방콕), 중부(아유타야 등 26개 지역), 북부/북동부(치앙마이 등 36개 지역), 남부(푸켓 등 14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태국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25.3%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23.3%]

⇒ 태국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방콕(42.5%), 중부(25.5%), 남부(23.5%), 북부·북동부(16.5%)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태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62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85.5%), 한국(64.9%), 중국(63.2%), 싱가포르(54.6%), 홍콩(52.9%) 등 순.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9.7%p 상회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태국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방콕(74.9%), 남부(64.3%), 중부(61.4%), 북부·북동부(59.9%)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태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256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55.7%), 한국(14.8%), 중국(7.9%)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일본' 최우선 방문 의향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방콕 61.7%, 북부·북동부 60.3%, 중부 53.4%, 남부 44.4%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태국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38명)는 그 이유(중복응답 기준)로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영상(72.1%), 유명 인플루언서·연예인 여행 후기(54.0%), 대중매체(51.2%)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태국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28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51.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30.0%), '여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기후/계절'(29.6%) 등을 주로 꼽음[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표본 30명 미만이므로 해석에 유의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태국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58.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42.5%),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35.7%)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은 첫 번째로,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은 두 번째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태국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61.2%), 'TikTok'(53.2%), 'Facebook'(50.8%)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태국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Agoda'(52.4%), 'Booking.com'(38.0%), 'Traveloka'(36.3%)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방콕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방한 관광 단체상품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계절적 특성에 기반하여 주로 3박 5일 일정의 시즌 상품(봄-벚꽃, 가을-단풍, 겨울-눈/얼음 등)으로 구성되며, 쇼핑·문화체험 및 K-뷰티를 결합한 연계 상품 등도 판매 중. 가격대는 중저가 상품의 경우 15천바트~33천바트(약 62만원~135만원), 프리미엄 상품은 38천바트~65천바트(약 156만원~267만원) 내외에서 형성됨. 지역적으로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계절적 특성이 뚜렷한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연계 상품이 주를 이루며, 경주 벚꽃 마라톤대회 참가·제주 감귤체험 등을 결합한 특수목적형 관광상품 신규 개발 및 판촉 중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태국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0.7%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1.9%p 상회함[전체 : 78.9%]

⇒ 일반 태국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59.6%), 한국 영화(51.5%), 한국 대중가요(49.1%), 한국 드라마(48.8%), 한국 뷰티(42.7%), 한국 패션(42.1%) 등 순으로 나타남.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뷰티' 경험률은 두 번째로, '한국 패션'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22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4.5%), 한국 드라마(16.6%), 한국 영화(13.4%)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40점[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태국인(방콕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86.4%[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1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6.8%[전체 : 93.1%]. 조사 대상국 중 방문 경험률은 두 번째로, 만족도는 세 번째로 높음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김치(43.4%), 한국식 치킨(27.8%), 라면(25.8%), 김치볶음밥(16.7%)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최근 1년 내 '김치'를 두 번째로 많이 취식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태국인은 2.9%(58,124명, 전년 대비 52.3% 증가)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5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39,667명, 67.6%), 성형외과(8,358명, 14.2%), 내과통합(6,156명, 10.5%), 치과(1,208명, 2.1%) 등 순으로, 피부과 목적 위주

⇒ 주요 고객은 여성(48,117명, 82.8%)과 30대(27,086명, 46.6%), 40대(13,366명, 23.0%), 20대(12,597명, 21.7%)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50,111명, 86.2%)이며, 이어 부산(2,033명, 3.5%), 경기(1,895명, 3.3%), 대구(1,192명, 2.1%), 인천(1,099명, 1.9%)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태국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6.2%[전체 : 82.3%]. 전년(76.8%) 대비 9.4%p 증가하면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함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54.5%), 현대생활문화(42.2%), 관광(33.0%), 제품 및 브랜드(25.2%), 전통문화유산(22.3%) 등을 꼽음. 이 중 '관광' 요인의 경우

조사 대상국 중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함[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태국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 (24.8%), 한국 음식(11.6%), 한류스타(10.8%)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류스타' 연상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태국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8,204천 명, 2017년 8,963천 명, 2018년 9,966천 명, 2019년 10,446천 명, 2020년 1,706천 명, 2021년 33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2년 이후 값은 원자료에 미수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태국인 수는 2016년 901,525명, 2017년 987,211명, 2018년 1,132,160명, 2019년 1,318,977명, 2020년 219,830명, 2021년 2,758명, 2022년 198,037명, 2023년 995,558명, 2024년 1,148,848명, 2025년 1,233,103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태국인은 2.9%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7.3%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6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태국 내 세부 지역은 방콕(방콕), 중부(아유타야 등 26개 지역), 북부/북동부(치앙마이 등 36개 지역), 남부(푸켓 등 14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태국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7.4%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56.4%[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62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2.9회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낮음[전체 : 3.8회]
  - ⇒ 태국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방콕(81.9%), 남부(72.3%), 중부(62.7%), 북부·북동부(60.5%)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방콕(72.5%), 남부(61.7%), 중부(53.4%), 북부·북동부(47.0%)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태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62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6.4%),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49.6%),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48.9%)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태국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95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51.9%),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51.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31.2%)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 **(태국인 해외여행 현황)** 태국여행업협회(TTAA)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사 노선 축소와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2026년 태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하계 비수기(5월~9월)의 경우 15%~20% 감소가 예상됨
- ✔ **(높은 중국 및 일본 방문 수요)** 글로벌 OTA인 트립닷컴은 태국을 포함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 출발 중국 노선 항공권 예약이 2026년에 전년 대비 세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무엇보다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주요 대도시뿐

아니라 베이징, 시안 등 2선 도시로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어, 태국 여행객의 중국 여행 목적지가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으론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 여행객들이 중국 이외 일본에도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측됨. 해외여행 목적지로서 일본의 주요 매력 요인은 문화유산, 현대적인 도시 환경, 음식 콘텐츠 등이며, 도쿄와 오사카의 경우 글로벌 최상위 방문 도시로 지속 언급되고 있어 태국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일본 여행 수요가 단기 유행이 아닌 구조적 수요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카오의 공세)** 2026년 1~4월 마카오를 방문한 태국인은 88,000명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0% 급증하면서, 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 중 3위를 차지함, 참고로 마카오는 방콕-마카오 정기 직항 노선, 항공·호텔·여행사·OTA·결제 플랫폼 연계 프로모션, 트루머니(True Money) 등 태국 현지 결제 플랫폼과의 핀테크 협력, 헝친-마카오 및 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 연계 상품 등을 앞세워 태국인의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를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방콕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태국은 '근로보호법'에 따라 고용자는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소 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일반적으로 태국인의 해외여행은 송크란 연휴 기간(태국전통설날)인 4월이 최대 성수기이며, 연말휴가 및 신년휴가가 있는 연말, 연초에 수요가 집중 되며, 초/중/고 방학이 있는 3-5월, 10월에는 가족단위 해외여행이 주를 이룸

✔ **(방학 현황)** 초·중·고의 경우 3월 초~5월 초, 10월이며, 대학교는 6월 초~8월 초(여름방학), 12월 말~1월 초(겨울방학)

✔ **(비자/규제 현황)** 태국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77개국으로, 전 세계 62위(2025년 66위, 전년 대비 4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태국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 참고로 현재 태국은 불법체류 다발국 21개국(법무부 고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4년)** 태국 경제성장률은 2.5%로, 수출 회복(+5.8%)과 관광산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2.0%) 대비 개선. 다만 높은 가계부채와 민간투자 부진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안정

✔ **(2025년)** 2025년 태국 경제는 약 2.3~2.4% 성장(수출 회복·공공투자 확대가 견인, 가계부채·민간소비 둔화가 제약).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2.9%(총수출 3,396억 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4%로 경미한 디플레이션,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약 32.9바트. 데이터센터·전기차(EV)·디지털 산업 투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말레이시아



141

요약 | 말레이시아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329,147명 (+9.4%)		1.7% (11위)	인천공항 (88.5%)	김해공항 (5.2%)	20대 여성 (17.7%)	30대 여성 (15.1%)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50.2%	한국 전통 문화 경험 (46.7%)	새로운 국가 방문 (36.3%)	개별여행 (70.8%)	단체여행 (27.1%)	여가 (72.5%)	사업 (19.3%)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58.7%)	지방 한정 (3.7%)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37.6%)	6.9일	USD 1,749.4	USD 293.9	97.4%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25.6%	일본 (80.1%)	태국 (70.3%)	한국 (67.5%)	일본 (29.0%)	한국 (14.4%)	중국 (14.3%)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59.8%)	TikTok (48.1%)	Booking.com (42.1%)	Agoda (39.5%)	불편한 언어소통 (34.6%)	한류 관심 부재 (26.7%)	경비/물가 부적합 (26.6%)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80.7%	68.0%	일상 벗어나기 (63.6%)	여유로운 일상 (63.3%)	경제적 여유 부족 (57.2%)	시간 불충분 (31.3%)	국내여행 선호 (25.7%)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말레이시아인 수는 329,147명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2019년 대비 80.6% 회복)

⇒ 2019년 408,590명, 2020년 48,550명, 2021년 4,488명, 2022년 70,449명, 2023년 259,872명, 2024년 300,836명, 2025년 329,147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말레이시아인은 1.7%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1위를 기록

⇒ 2019년 2.3%(9위), 2020년 1.9%(11위), 2021년 0.5%(23위), 2022년 2.2%(11위), 2023년 2.4%(10위), 2024년 1.8%(11위), 2025년 1.7%(11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방문 시기는 12월(43,865명), 11월(36,250명), 10월(34,016명), 9월(31,359명), 4월(30,811명) 등 순으로, 봄 꽃(4월) 및 가을 단풍 시즌(9~11월)과 동계 방학 및 연말 휴가시즌(12월)에 방한 수요가 집중되는 편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291,261명, 88.5%), '김해공항'(17,103명, 5.2%), '제주공항'(12,659명, 3.8%)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53,721명, 17.7%), '30대 여성'(45,986명, 15.1%), '30대 남성'(29,816명, 9.8%), '40대 여성'(29,149명, 9.6%) 등 순.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재방문율은 50.2%[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5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말레이시아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6.7%),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36.3%),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5.4%), 과거 방문 경험이 좋아서(31.7%)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72.5%), 사업 또는 전문활동(19.3%), 친구/친지 방문(4.6%), 교육(3.6%) 등 순[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70.8%)과 단체여행(27.1%)이며, 에어텔은 2.1%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93.2%), 강원(23.6%), 경기(17.5%), 부산(12.5%), 인천(6.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강원'은 첫 번째로, '서울'은 세 번째로 방문 비중이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58.7%), 지방 한정(3.7%),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37.6%) 차지[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80.9%), 식도락 관광(63.9%),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56.8%), 자연경관 감상(56.3%), 전통문화체험(35.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전통문화체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67.1%), 백화점(40.3%), 대형쇼핑몰(35.5%), 전통시장(25.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로드샵' 방문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말레이시아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71.4%), 의류(50.6%), 식료품(47.8%), 보석/악세서리(25.3%)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말레이시아인은 한국에 평균 6.9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1,749.4[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293.9[전체 : USD 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말레이시아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4%[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1.3%[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7.2%[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세부 지역은 중부(쿠알라룸푸르 등 3개 지역), 동북부(파항 등 7개 지역), 그 외(조호르, 사바 등 6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말레이시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25.6%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23.3%]

⇒ 말레이시아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동북부(26.6%), 중부(25.7%), 그 외 지역(24.4%)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말레이시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16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80.1%), 태국(70.3%), 한국(67.5%), 싱가포르(65.0%), 중국(61.8%) 등 순. 이 중 '태국'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았고,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2.3%p 상회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말레이시아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그 외 지역(69.6%), 중부(68.6%), 동북부(64.3%)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말레이시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12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29.0%), 한국(14.4%), 중국(14.3%) 등을 꼽음[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중부 31.1%, 동북부 28.7%, 그 외 27.2%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말레이시아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45명)는 그 이유(중복응답 기준)로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영상(70.6%), 유명 인플루언서·연예인 여행 후기(58.9%), 자연경관(54.1%)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말레이시아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41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3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6.7%),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26.6%) 등을 주로 꼽음[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말레이시아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9.5%),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5.4%), '주변 사람 추천'(31.4%)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말레이시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59.8%), 'TikTok'(48.1%), 'Facebook'(42.1%)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말레이시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Booking.com'(42.1%), 'Agoda'(39.5%), 'Airasia'(31.0%)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쿠알라룸푸르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Apple Vacations, ICE Holiday 등 말레이시아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된 방한 상품들은 주로 4박 6일 또는 6박 8일의 일정으로 구성됨. 4박 6일의 경우 서울과 강원, 경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금액은 약 3천링깃~4천링깃(약 100만원~120만원) 대임. 6박 8일의 경우 서울-강원-부산 또는 서울-제주-강원 등 지역 다양한 관광지를 포함하며, 금액은 약 6천링깃(약 200만원) 대임. 한편, 현지에서 서울 외 지방 관광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산을 포함한 경상권 상품들이 다수 개발되어 인기를 얻고 있음. 특정 한국 지방으로의 직항 노선이 부재할 경우, 주로 인근 국가의 환승편을 통하여 김해공항을 입국해 부산과 함께 인근 도시 경주, 대구, 거제를 방문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말레이시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1.2%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2.3%p 상회함[전체 : 78.9%]

⇒ 일반 말레이시아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61.6%), 한국 드라마(58.3%), 한국 영화(56.5%), 한국 대중가요(51.1%), 한국 뷰티(40.6%)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음식·드라마·영화·대중가요·뷰티 경험률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24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5.3%), 한국 드라마(24.2%), 한국 영화(10.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드라마' 최선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78점[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말레이시아인(쿠알라룸푸르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86.0%[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0회[전체 : 월 2.0회],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5.3%[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46.9%), 김치(33.0%), 라면(31.0%), 비빔밥(19.1%)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최근 1년 내 '한국식 치킨'은 첫 번째로, '라면'은 두번째로 많이 취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말레이시아인은 0.6%(12,086명, 전년 대비 106.8% 증가, 주요국 중 세 번째로 증가율 높음)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4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8,958명), 성형외과(1,346명), 내과통합(934명), 한방통합(135명), 검진센터(113명) 등 순으로 피부과 위주

⇒ 주요 고객은 여성(9,916명, 82.0%)과 30대(5,251명, 43.9%) 및 20대(3,270명, 27.3%)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11,486명)이 대부분 차지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말레이시아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5.6%[전체 : 82.3%], 전년(83.6%) 대비 2.0%p 증가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57.4%), 현대생활문화(38.7%), 제품 및 브랜드(36.0%), 관광(25.7%), 전통문화유산(22.0%)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관광'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말레이시아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27.4%), 한국 음식(12.3%), 한국 드라마(11.4%) 등 순으로, 'K-pop' 연상도가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음[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말레이시아인 수는 2016년 394,268명, 2017년 439,548명, 2018년 468,360명, 2019년 501,592명, 2020년 76,573명, 2021년 1,831명, 2022년 74,095명, 2023년 415,712명, 2024년 506,883명, 2025년 636,575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말레이시아인은 1.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5.6%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13위를 기록

2-2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세부 지역은 중부(쿠알라룸푸르 등 3개 지역), 동북부(파항 등 7개 지역), 그 외(조호르, 사바 등 6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말레이시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80.7%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68.0%[전체 : 58.8%]로 전체 평균을 9.2%p 상회하며, 해외여행 의향자(n=316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4.2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말레이시아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중부(88.8%), 동북부(78.5%), 그 외 지역(75.8%)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중부(72.4%), 동북부(66.3%), 그 외 지역(65.9%)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말레이시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16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63.6%),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63.3%),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3.6%)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말레이시아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44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57.2%),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31.3%),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25.7%)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3 해외여행 트렌드

✔ **(말레이시아 하리라야 연휴 기간 인기 해외여행지)** 글로벌 OTA인 트립닷컴에 따르면, 2025년 하리라야(Hari Raya, 라마단 종료 기간 축제) 연휴 기간(3.29~4.6) 말레이시아인의 해외여행 예약이 전년 하리라야 기간(4.6~4.14)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기존에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는 '방콕'과 '싱가포르'였으나, 2025년의 경우 중국의 '상하이'와 '광저우' 인기가 높아짐. 참고로 2025년 연휴 기간 해외여행 예약 상위 10대 도시는 상하이, 싱가포르, 광저우, 방콕, 청두, 도쿄, 베이징, 홍콩, 서울, 타이베이 순임. 해외여행 예약 성장률 상위 10대 도시는 쿤밍, 오사카, 충칭, 도쿄, 쑤저우, 청두, 부산, 서울, 광저우, 베이징 순임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쿠알라룸푸르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말레이시아는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연간 휴가가 주어지는데, 근속 기간 2년 미만 시 최소 연간 8일, 2년 이상~5년 미만은 최소 연간 12일, 5년 이상은 최소 연간 16일임. 기업의 경우 별도로 휴가시즌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을 경우 대부분 초·중·고 방학기간 중에 장기 휴가를 신청하는 경향. 한편, 말레이시아의 최대 연휴는 라마단 종료후 '하리 라야 푸아사(Hari Raya Puasa)'로, 전국적인 연휴기간은 2일이나 일부 주에서는 3일인 경우가 있고, 무슬림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여 보통 1주일 간 휴일을 보냄

✔ **(방학 현황)** 초·중·고는 보통 6월, 9월 각 10일 내외, 12월 말~다음해 1월초까지 3주간의 방학이 있으며, 대학교는 1학기(10월~2월) 종료 후 보통 2주간의 방학이 있으며, 2학기(3월~7월) 종료후 4주~8주간의 방학이 있음

✔ **(비자/규제 현황)** 말레이시아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3개국으로, 전 세계 7위(2025년 11위,

전년 대비 4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말레이시아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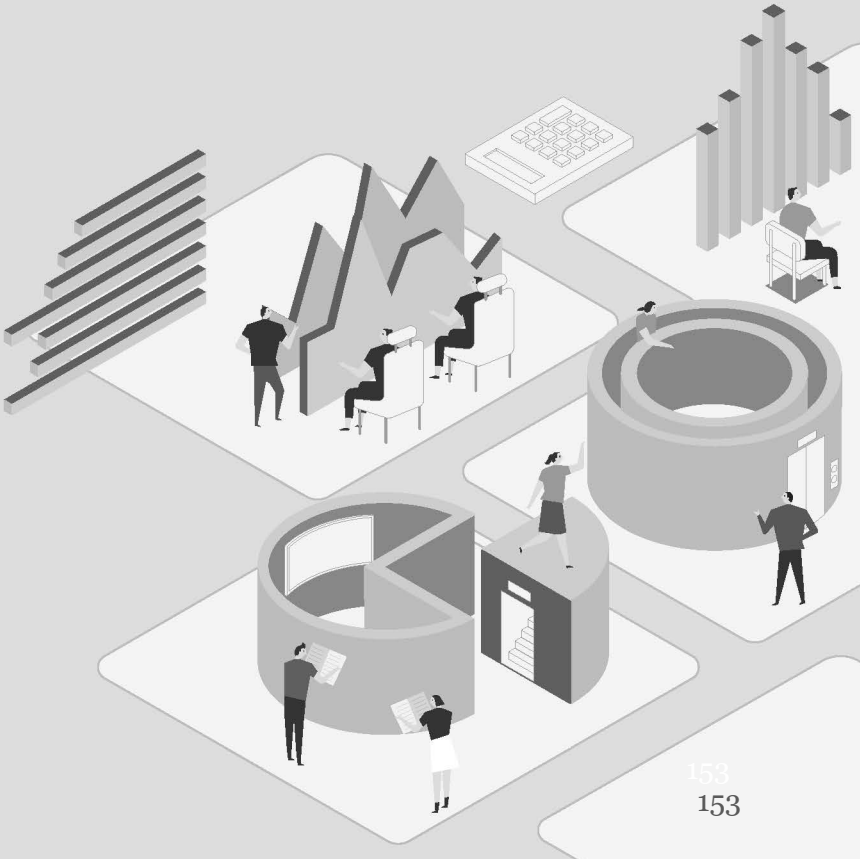
✔ **(2025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5.2% 성장하며 전년(5.1%)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견조한 내수 수요와 고용 안정, 정책 지원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에 기반하였으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투자 역시 공공 인프라 사업과 민간 투자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1.8%) 대비 하락한 1.4%를 기록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캐나다



153

요약 | 캐나다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282,618명 (+11.1%)		1.5% (12위)	인천공항 (85.7%)	부산항구 (3.8%)	30대 남성 (10.9%)	30대 여성 (10.0%)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45.7%	새로운 국가 방문 (47.3%)	한국 전통 문화 경험 (43.5%)	개별여행 (95.0%)	단체여행 (4.0%)	여가 (54.9%)	사업 (22.0%)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67.1%)	지방 한정 (4.7%)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28.2%)	9.2일	USD 2,810.3	USD 420.6	98.9%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7.5%	일본 (61.0%)	한국 (38.4%)	태국 (37.5%)	일본 (32.2%)	태국 (11.3%)	중국 (9.5%)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45.3%)	Instagram (30.4%)	Expedia (38.9%)	Booking.com (26.0%)	불편한 언어소통 (35.4%)	경비/물가 부적합 (31.4%)	먼 이동거리 (24.1%)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77.5%	45.2%	일상 벗어나기 (60.3%)	역사/문화 경험 (50.0%)	경제적 여유 부족 (50.8%)	해외여행 무관심 (37.6%)	경비/물가 상승 (33.6%)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캐나다인 수는 282,618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2019년 대비 137.6% 회복)

⇒ 2019년 205,408명, 2020년 34,734명, 2021년 29,795명, 2022년 93,064명, 2023년 201,849명, 2024년 254,332명, 2025년 282,618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캐나다인은 1.5%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2위를 기록

⇒ 2019년 1.2%(13위), 2020년 1.4%(13위), 2021년 3.1%(8위), 2022년 2.9%(9위), 2023년 1.8%(12위), 2024년 1.6%(12위), 2025년 1.5%(12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캐나다인의 방문 시기는 4월(30,972명), 10월(30,938명), 5월(27,787명), 9월(27,534명), 3월(25,018명) 등 순으로, 봄·가을을 중심으로 연중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캐나다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242,076명, 85.7%), '부산항구'(10,637명, 3.8%), '김해공항'(9,548명, 3.4%), '김포공항'(8,522명, 3.0%)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캐나다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30대 남성'(29,020명, 10.9%), '30대 여성'(26,812명, 10.0%), '61세 이상 여성'(26,634명, 10.0%), '20대 여성'(26,211명, 9.8%), '61세 이상 남성'(23,416명, 8.8%) 등 순으로,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성·연령대가 고르게 분포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캐나다인의 재방문율은 45.7%[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9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캐나다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47.3%),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3.5%), 과거 방문 경험이 좋아서(24.7%),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3.5%)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류 콘텐츠' 영향력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캐나다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54.9%), 사업 또는 전문활동(22.0%), 친구/친지 방문(20.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친구/친지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캐나다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5.0%)과 단체여행(4.0%)이며, 에어텔은 1.1%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캐나다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90.6%), 부산(16.3%), 경기(12.9%), 제주(8.8%), 인천(5.6%) 등 순[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캐나다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67.1%), 지방 한정(4.7%),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28.2%)으로 구분[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캐나다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69.7%), 식도락 관광(66.7%),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58.5%), 자연경관 감상(56.2%), 박물관/전시관 관람(39.2%) 등 순[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캐나다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47.6%), 대형쇼핑몰(43.9%), 백화점(39.8%), 전통시장(32.8%) 등 순[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캐나다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5.5%), 의류(60.0%), 식료품(34.6%)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캐나다인은 한국에 평균 9.2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810.3[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420.6[전체 : USD 321.9]를 지출. 1일 지출이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음

✔ **(만족도 평가)** 방한 캐나다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8.9%[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3.2%[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8.3%[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내 세부 지역은 북서부(브리티시컬럼비아(밴쿠버)) 등 7개 지역), 대서양(퀘백 등 5개 지역), 온타리오(온타리오(오타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캐나다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7.5%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5.8%p 하회함[전체 : 23.3%]

⇒ 캐나다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온타리오(9.5%), 북서부(9.0%), 대서양(3.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캐나다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10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61.0%), 한국(38.4%), 태국(37.5%), 싱가포르(35.1%), 홍콩(34.2%) 등 순. 필리핀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목적지에 대한 방문 의향이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6.8%p 하회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캐나다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북서부(46.1%), 온타리오(43.4%), 대서양(22.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캐나다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160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32.2%), 태국(11.3%), 중국(9.5%), 인도(8.1%), 필리핀(8.0%), 싱가포르(7.9%), 한국(6.0%)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필리핀' 최우선 방문 의향이 첫 번째로, '인도'가 세 번째로 높았고,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0.8%p 하회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온타리오 35.2%, 대서양 30.8%, 북서부 30.4% 순)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캐나다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86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35.4%),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31.4%), '먼 이동거리'(24.1%)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경비/물가'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불편한 언어소통' 선택자(n=31명)는 방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1+2+3순위 기준)으로 '현지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어려움'(84.6%), '긴급 상황 발생 시 의사 전달 어려움'(56.1%), '외국인을 위한 표지판/안내문 부족할 것 같음'(43.4%) 등을 주로 꼽음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캐나다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주변 사람 추천'(35.6%),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31.2%),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28.0%)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캐나다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45.3%), 'Instagram'(30.4%), 'Facebook'(25.2%)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캐나다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Expedia'(38.9%), 'Booking.com'(26.0%), 'Aircanada.com'(19.9%)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토론토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캐나다 주요 여행사 Royal Scenic 등에서 단기(3박 4일)부터 장기(7박 8일)까지 다양한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 중임. 3박 4일 상품은 서울 또는 제주 등 단일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7박 8일 상품은 서울·부산·경주 등 주요 도시를 연계한 일정으로 구성됨. 상품 가격(항공 제외)은 1박당 약 CAD 582(약 57만원) 수준으로, 유사 기간 일본 여행 상품(1박당 약 CAD 457, 약 45만원) 대비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한편, 캐나다인의 주요 방한 관심 테마는 기존 서울 중심 관광에서 미식, 역사·문화, 자연, K-컬처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 그리고 일본·한국을 함께 방문하는 한·일 연계 여행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특히 일본을 거점으로 한국을 연계 방문하는 상품들이 캐나다인의 한국 여행 접근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G Adventures, Air Canada Vacations 등 주류 여행사에서도 한·일 연계 상품을 판매 중임. 이러한 연계 상품은 주로 15박 16일 내외의 장기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각 절반 정도 체류하는 형태로 구성됨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캐나다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2.7%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6.1%p 하회함[전체 : 78.9%]

⇒ 일반 캐나다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37.2%), 한국 대중가요(24.9%), 한국 드라마(22.4%), 한국 뷰티(19.7%), 한국 영화(18.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영화' 경험률이 세 번째로 낮음[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292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35.2%), 한국 뷰티(15.1%), 한국 드라마·한국 대중가요(각 12.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음식' 최선호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47점 [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캐나다인(토론토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58.4%[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1.3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0.8%[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김치(27.4%), 한국식 치킨(24.4%), 만두(23.6%), 불고기(18.9%)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캐나다인은 1.2%(23,624명, 전년 대비 59.1% 증가)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8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13,246명), 검진센터(2,837명), 성형외과(2,704명), 내과통합(2,160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21,734명), 경기(600명), 부산(432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캐나다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23.4%), 한국 음식(18.3%), 북핵 위협·전쟁 위험(5.5%)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북핵 위협·전쟁 위험' 연상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캐나다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31,278천 명, 2017년 32,730천 명, 2018년 33,440천 명, 2019년 33,064천 명, 2020년 8,971천 명, 2021년 4,954천 명, 2022년 21,400천 명, 2023년 30,346천 명, 2024년 33,091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4년 기준 2019년의 100.1% 회복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캐나다인 수는 2016년 273,213명, 2017년 305,591명, 2018년 330,600명, 2019년 375,262명, 2020년 53,365명, 2021년 3,536명, 2022년 55,877명, 2023년 425,874명, 2024년 579,445명, 2025년 688,019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캐나다인은 1.6%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8.7%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10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내 세부 지역은 북서부(브리티시컬럼비아(밴쿠버)) 등 7개 지역), 대서양(퀘백 등 5개 지역), 온타리오(온타리오(오타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캐나다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77.5%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45.2%로 전체 평균을 13.6%p 하회하며[전체 : 58.8%], 해외여행 의향자(n=210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5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캐나다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북서부(79.7%), 온타리오(79.6%), 대서양(72.8%) 거주자 순으로 높음.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은 북서부(48.4%), 온타리오(45.4%), 대서양(41.6%)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캐나다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10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60.3%),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0.0%),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44.9%)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캐나다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151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50.8%),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37.6%),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33.6%)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응답 비중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자전거 관광 인기)** 건강, 웰니스, 지속 가능한 여행 등에 대한 캐나다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관광'이 주요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단순한 국내 레저 활동을 넘어 해외 목적지를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 자전거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40~50대 중장년층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자전거 관광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특정 루트와 문화 체험을 목표로 하는 '목적형 여행'을 지향하면서 일반 관광 대비 체류 기간과 지출액이 높은 편임. 주요 목적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의 경우 자전거

인프라(전용 도로, 표지 시스템 등)가 완비되었다는 점이 주요 장점임. 이외 아시아 시장 내 깨끗한 도로와 안정성을 갖춘 일본, 고유문화와 음식을 결합한 베트남이 대표 목적지으로 꼽힘

- ✔ **(더 저렴하고, 한적한 국내 여행지 선호)** 고물가, 경기 불황,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인해 해외 유명 관광지 대신 비슷한 분위기와 경험을 더 저렴하고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방문하는, 일명 '트래블 듀프(Travel Dupe)' 트렌드가 확산되는 추세임. 관련해 Globus, Tours4fun, Calgary Tours 등의 주요 여행사들이 캐나다 내에서 유럽의 분위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현지 여행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 **(반미 감정 확산과 여행 수요 감소)**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상품 및 에너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캐나다 전역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빠르게 확산되었음. 이러한 반미 감정 확산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이외 미국 여행 회피 현상으로 나타남. 참고로 캐나다 여행객들의 미국 내 레저 활동 예약은 전년 대비 40% 감소함. 그리고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온 캐나다인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토론토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 **(휴가/연휴 현황)** 캐나다의 휴일은 모든 주에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 이외에도 주마다 공휴일이 별도로 존재함. 기업의 연차 휴가의 경우 최소 2주가 보장되며, 대부분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자녀 학교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장기 휴가를 떠남
- ✔ **(방학 현황)** 초·중·고는 방학은 6월 말~8월 말(8~9주), 12월 말(1주), 3월 중순(1~2주)이며, 대학교의 방학은 4월 말~8월 말, 12월 중순~1월 초(3주), 2월 중순(1주)
- ✔ **(비자/규제 현황)** 캐나다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3개국으로, 전 세계 7위(2025년 8위, 전년 대비 1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캐나다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 ~ 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캐나다 경제는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며 고용이 둔화(2025년 3월 실업률 6.7%)되고 성장세가 위축. 소비자물가는 안정세(2025년 3월 CPI 2.3%)를 보였으며, 중앙은행(BOC)은 2025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2.25%까지 인하

✔ **(2026년)** 기준금리는 2026년 들어 2.25% 수준에서 연속 동결됐고, 연방은행은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약 1.2%로 전망.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는 2.8%(국제 유가 반등 영향, 근원물가는 2.0% 안정), 실업률은 6.7%. 미국의 관세 정책이 2026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호주



165

요약 | 호주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267,157명 (+9.3%)		1.4% (13위)	인천공항 (81.6%)	부산항구 (6.4%)	20대 여성 (10.8%)	61세 이상 여성 (9.5%)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36.3%	새로운 국가 방문 (54.2%)	한국 전통 문화 경험 (49.6%)	개별여행 (93.7%)	단체여행 (5.5%)	여가 (68.4%)	사업 (17.6%)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54.9%)	지방 한정 (3.5%)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41.6%)	9.0일	USD 2,401.6	USD 314.5	97.7%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12.5%	일본 (68.3%)	태국 (49.1%)	싱가포르 (48.3%)	일본 (33.1%)	태국 (9.9%)	싱가포르 (9.6%)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44.4%)	Facebook (35.6%)	Airbnb (23.4%)	Qantas· Jetstar (22.3%)	여행지로 낮은 인지도 (33.0%)	한류 관심 부재 (27.0%)	불편한 언어소통 (24.7%)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86.5%	56.5%	일상 벗어나기 (55.5%)	역사/문화 경험 (55.0%)	경제적 여유 부족 (39.0%)	해외여행 무관심 (36.5%)	국내여행 선호 (32.0%)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호주인 수는 267,157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2019년 대비 154.2% 회복)

⇒ 2019년 173,218명, 2020년 23,172명, 2021년 3,503명, 2022년 65,502명, 2023년 198,604명, 2024년 244,338명, 2025년 267,157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호주인은 1.4%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3위를 기록

⇒ 2019년 1.0%(14위), 2020년 0.9%(16위), 2021년 0.4%(29위), 2022년 2.0%(13위), 2023년 1.8%(13위), 2024년 1.5%(13위), 2025년 1.4%(13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호주인의 방문 시기는 4월(36,222명), 12월(27,570명), 10월(27,259명), 9월(25,954명), 11월(23,673명) 등 순으로, 방학이 있는 4월과 가을·연말을 중심으로 분산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호주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217,960명, 81.6%), '부산항구'(17,100명, 6.4%), '김해공항'(10,663명, 4.0%), '김포공항'(8,724명, 3.3%)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호주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28,097명, 10.8%), '61세 이상 여성'(24,796명, 9.5%), '20대 남성'(22,924명, 8.8%), '30대 남성'(22,653명, 8.7%), '61세 이상 남성'(22,462명, 8.7%) 등 순으로,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성·연령대가 고르게 분포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호주인의 재방문율은 36.3%[전체 : 56.6%]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음. 재방문자의 평균 방한 횟수는 2.0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호주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54.2%),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9.6%),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5.9%),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하고 나서(23.2%)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호주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68.4%), 사업 또는 전문활동(17.6%), 친구/친지 방문(12.2%) 등 순[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호주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3.7%)과 단체여행(5.5%)이며, 에어텔은 0.9%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호주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92.7%), 부산(29.1%), 경기(19.7%), 강원(8.9%), 제주(8.4%) 등 순[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호주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54.9%), 지방 한정(3.5%),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41.6%)으로, 조사 대상국 중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호주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식도락 관광(75.7%), 쇼핑(74.1%), 자연경관 감상(67.9%),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64.7%), 박물관/전시관 관람(48.6%), 휴양/휴식(35.6%)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휴양/휴식'은 두 번째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은 세 번째로 참여 비중이 높음[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호주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0.9%), 대형쇼핑몰(46.3%), 백화점(35.5%), 전통시장(31.7%) 등 순[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호주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58.2%), 의류(57.4%), 식료품(40.7%), 보석/액세서리(23.9%), 전통 민예품(20.3%)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호주인은 한국에 평균 9.0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401.6[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314.5[전체 : USD 321.9]를 지출. 조사 대상국 중 8~10일 체류 비중이 가장 높음

✔ **(만족도 평가)** 방한 호주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7%[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0.2%[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8.8%[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호주 내 세부 지역은 동북부(퀸즐랜드), 동남부(뉴사우스웨일스, 수도 준주(캔버라) 등 4개 지역), 중부(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등 2개 지역), 서부(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호주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12.5%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0.9%p 하회함[전체 : 23.3%]

⇒ 호주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동북부(14.7%), 서부(12.9%), 동남부(12.0%), 중부(9.5%)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호주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63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68.3%), 태국(49.1%), 싱가포르(48.3%), 홍콩(42.2%), 인도네시아(40.9%), 베트남(39.0%), 한국(37.4%) 등 순.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7.8%p 하회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호주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동북부(41.2%), 동남부(37.3%), 중부(37.0%), 서부(33.4%)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호주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240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33.1%), 태국(9.9%), 싱가포르(9.6%), 인도네시아(8.1%), 베트남(7.7%), 중국(7.4%), 인도(6.0%), 한국(4.9%) 등을 꼽음.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음[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동북부 46.5%, 동남부 31.1%, 서부 29.8%, 중부 23.1% 순)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호주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109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33.0%),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7.0%), '불편한 언어 소통'(24.7%) 등을 주로 꼽음[전체 : 불편한 언어 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호주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36.0%), '주변 사람 추천'(35.9%),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0.7%)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호주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44.4%), 'Facebook'(35.6%), 'TikTok'(27.9%)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호주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Airbnb'(23.4%), 'Qantas·Jetstar'(22.3%), 'Expedia'(21.7%)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시드니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호주 시장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폭넓게 둘러보는 일주형 상품, 제주를 포함한 프리미엄 소그룹 상품, 한식을 주제로 한 체험형 상품 등 세분화 된 다양한 방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일례로 MW Tours의 'Cultural South Korea'는 서울, 제주, 부산, 경주, 대구, 평창 및 설악산 등을 둘러보는 11일 일정의 합류형(Seat in Coach) 상품으로, 1인당 AUD 7,099부터 판매됨(2인 1실 기준, 국제선 항공료 제외). Bunnik Tours의 'Korea & Jeju In-Style – Travel with Dennis Bunnik'은 서울에서 출발해 제주, 부산, 경주을 방문한 후 부산로 돌아오는 최대 16명이 참여하는 13일 일정의 프리미엄 소규모 단체상품으로, 국제선 항공료가 포함된 2026년 10월 23일 출발 기준 상품의 가격은 1인당 AUD 12,995임(2인 1실 기준). Intrepid Travel의 'South Korea Real Food Adventure'는 서울에서 출발해 전주, 경주, 부산을 방문한 후 서울로 돌아오는 8일 일정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음식, 요리 체험 등 한국 미식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출발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이처럼 호주 시장에서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종합 상품뿐 아니라 프리미엄 소규모 여행과 음식 체험 등 특정 테마를 강조한 방한상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음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호주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5.4%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3.4%p 하회함[전체 : 78.9%]

⇒ 일반 호주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32.4%), 한국 대중가요(29.0%), 한국 드라마(22.2%), 한국 영화(20.2%), 한국 뷰티(19.9%)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304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9.4%), 한국 대중가요(15.7%), 한국 뷰티(13.4%)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대중가요' 최선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61점[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호주인(시드니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65.6%[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2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5.7%[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29.5%), 김치(20.6%), 만두(18.2%), 불고기(15.5%)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호주인은 1.0%(20,006명, 전년 대비 45.1% 증가)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2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12,533명), 성형외과(2,443명), 내과통합(1,959명), 검진센터(796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18,722명), 부산(546명), 경기(238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호주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2.4%[전체 : 82.3%]. 전년(76.8%) 대비 5.6%p 증가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42.4%), 현대생활문화(38.9%), 전통문화유산(22.4%), 제품 및 브랜드(21.4%), 문화예술(20.0%)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호주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 (19.8%), 한국 음식(17.2%), 한국 영화(6.7%) 등 순[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호주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10,390천 명, 2017년 10,932천 명, 2018년 11,403천 명, 2019년 11,624천 명, 2020년 2,433천 명, 2021년 269천 명, 2022년 4,573천 명, 2023년 8,718천 명

⇒ 지표 : outbound trips – total – visitors – 방문객 전체(숙박+당일) 기준(단위 천 명)

⇒ 2023년 기준 2019년의 75% 수준 기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호주인 수는 2016년 445,332명, 2017년 495,054명, 2018년 552,440명, 2019년 621,771명, 2020년 143,508명, 2021년 3,265명, 2022년 88,648명, 2023년 613,062명, 2024년 920,196명, 2025년 1,058,396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호주인은 2.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5.0%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7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호주 내 세부 지역은 동북부(퀸즐랜드), 동남부(뉴사우스웨일스, 수도 준주(캔버라) 등 4개 지역), 중부(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등 2개 지역), 서부(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호주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86.5%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56.5%[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63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0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 호주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서부(91.5%), 동남부(86.7%), 동북부(86.4%), 중부(80.7%)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서부(62.8%), 동남부(59.2%), 동북부(52.5%), 중부(48.2%)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호주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63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5.5%),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5.0%),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49.9%)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호주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112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39.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36.5%),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32.0%)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 **(아시아 목적지 인기)** 호주 공영 방송국인 ABC의 2026년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호주 여행객들이 중동 경유를 꺼리면서 상대적으로 비행시간이 짧고 체류 효율이 높은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아시아 목적지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무엇보다 최근 3년간 호주 달러가 현지 통화 대비 약 20% 절상되면서 선호도가 보다 증가한 것으로 설명함. 관련해 4월에 발표된 호주 여행산업협회(ATIA) 자료에 따르면, 미국행은 연간 –4.8%, 2월 –9.7% 감소한 반면, 베트남 +16.1%, 중국 +15.9%, 일본 +15.6% 증가하면서 아시아 목적지 선호도 강화 흐름이 확인됨

✔ **(글로벌 미식·뷰티 관광지로서 한국 부상)** 호주 주요 일간지인 Sydney Morning Herald 산하 여행 전문 매체인 Traveller가 '2026년 세계 10대 미식 및 와인 여행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함. 세부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미식 경쟁력을 조명하면서, 반찬 문화(banchan), 한식 바비큐, 비빔밥, 길거리 음식, 현대적인 다이닝까지 폭넓은 음식 선택지를 주요 강점으로 언급함. 한편, 호주 일간지인 'The Australian'은 한국의 서울을 글로벌 뷰티 관광의 핵심 목적지로 소개하였는데, PDRN(연어 DNA 주사) 등 비수술 미용 시술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 증가와 미국이나 유럽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주된 배경으로 언급함

✔ **(검색 키워드로서 '한국 대중문화' 인기)** Google Australia의 'Year in Search 2025'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주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참여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는 Games)가 Toys and Entertainment 부문에서, 전통놀이인 딱지치기와 관련된 'How to make Ddakji' 검색어는 DIY 부문에서 각각 4위에 오름

✔ **(럭셔리 여행 시장 전망)** 호주 'Virtuoso Luxe Report 2026'에 따르면, 호주 및 뉴질랜드 지역 내 럭셔리 여행 수요가 2026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조사 대상 어드바이저의 절반 이상이 여행 수요 증가를 예상하였고, 여행 1회당 지출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봄(63%는 소폭 증가, 16%는 큰 폭의 증가). 주요 럭셔리 여행 트렌드로는 '탐험형 크루즈', '다세대 여행', '액티브 및 어드벤처 여행', '문화 체험', '진정성', '헬스 및 웰니스'가 꼽힘. 여행 동기로는 '기념일 여행', '신규 목적지 탐색', '자기 계발', '현지인과의 교류' 등 경험 요소가 강화되는 추세임. 한편, 1인 여행, 가족 단위 여행, 크루즈 여행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로 선정됨. 이외 주목받는 신규 목적지로는 남극, 스리랑카, 베트남, 이집트, 모로코, 아이슬란드, 부탄 등이 포함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시드니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호주의 공정근로법에 따라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통상 근로시간 기준 연 4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함. 기업휴가 시즌은 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 중순 또는 마지막 주부터 다음 연도 1월 초에서 중순까지임

✔ **(방학 현황)** 초·중·고의 방학은 봄 방학(9월 25일~10월 6일), 여름 방학(12월 20일~2024년 1월 29일 동부/2월 5일 서부), 가을 방학(4월 11일~4월 21일), 겨울 방학(7월 3일~7월 14일)이고(2023년 뉴사우스웨일즈주 기준), 대학교 방학은 겨울방학(7월), 여름 방학(11월~2월)

* 참고로 기후 조건으로 인해 NSW 서부지역 학교의 여름 방학은 동부지역 학교 여름 방학보다 기간이 김

✔ **(비자/규제 현황)** 호주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3개국으로, 전 세계 7위(2025년 7위, 전년과 동일,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호주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호주 통계청(ABS) 2026년 3월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호주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 2025년 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전 분기 대비 0.8% 증가함. 데이터센터·녹색에너지 전환 관련 기업투자와 공공수요가 성장을 견인했으나 가계소비는 부진. 2025년 총교역액은 6,349억 달러(+1.7%)로, 수출은 3,377억 달러(-0.9%, 금 등 귀금속 +60.9% 급증)·수입은 2,972억 달러(+4.8%)를 기록

✔ **(2026년 초)** 2026년 3월 실업률은 4.3%로 타이트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임금상승률(WPI)은 3.4%.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가 가계 실질 구매력·주택투자에 부담으로 작용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러시아



177

요약 | 러시아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224,524명 (+13.9%)		1.2% (14위)	인천공항 (57.3%)	기타항구 (21.1%)	20대 여성 (17.4%)	30대 여성 (13.1%)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52.6%	한국 전통 문화 경험 (44.1%)	새로운 국가 방문 (39.0%)	개별여행 (97.5%)	단체여행 (1.6%)	여가 (49.5%)	사업 (31.8%)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72.0%)	지방 한정 (6.5%)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21.5%)	8.8일	USD 2,265.7	USD 307.3	98.7%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6.7%	중국 (63.1%)	태국 (60.3%)	일본 (37.0%)	중국 (35.3%)	태국 (23.4%)	일본 (9.9%)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49.1%)	Telegram (41.9%)	Ozon travel (24.8%)	Aviasales (21.8%)	여행지로 낮은 인지도 (35.8%)	경비/물가 부적합 (27.7%)	한류 관심 부재 (23.2%)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67.8%	39.9%	역사/문화 경험 (66.8%)	일상 벗어나기 (50.5%)	경제적 여유 부족 (58.0%)	국내외 정세 불안 (32.0%)	물가/경비 상승 (26.7%)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러시아인 수는 224,524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2019년 대비 65.4%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편)

⇒ 2019년 343,057명, 2020년 73,086명, 2021년 32,897명, 2022년 60,019명, 2023년 158,775명, 2024년 197,198명, 2025년 224,524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러시아인은 1.2%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4위를 기록

⇒ 2019년 2.0%(10위), 2020년 2.9%(9위), 2021년 3.4%(6위), 2022년 1.9%(19위), 2023년 1.4%(14위), 2024년 1.2%(14위), 2025년 1.2%(14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러시아인의 방문 시기는 4월(26,827명), 10월(23,822명), 5월(21,633명), 8월(21,474명), 7월(20,446명) 등 순으로 비교적 연중 고른 편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러시아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128,646명, 57.3%), '기타 항구'(47,430명, 21.1%), '김포공항'(16,612명, 7.4%), '김해공항'(15,034명, 6.7%), '부산 항구'(10,370명, 4.6%) 등 순. '인천공항' 이외 '기타 항구'를 통한 입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러시아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31,454명, 17.4%), '30대 여성'(23,676명, 13.1%), '30대 남성'(22,817명, 12.6%) 등 순으로, 20·30대 청년층 중심으로 방한 수요가 높음. 참고로 2025년 방한 러시아인 중 승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43,780명)로 높은 편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러시아인의 재방문율은 52.6%[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4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러시아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4.1%),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39.0%),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하고 나서(33.6%),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3.6%)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류 콘텐츠' 영향력을 세 번째로 낮게 평가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러시아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49.5%), 사업 또는 전문활동(31.8%), 친구/친지 방문(12.4%)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사업 또는 전문활동'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러시아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7.5%) 이며, 단체여행은 1.6%, 에어텔은 0.9% 차지. 조사 대상국 중 '개별여행'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러시아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5.4%), 경기(19.3%), 부산(16.4%), 인천(11.6%), 강원(5.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인천'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러시아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72.0%), 지방 한정(6.5%),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21.5%)으로 구분[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러시아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73.8%), 식도락 관광(63.4%), 자연경관 감상(56.0%),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51.0%), 휴양/휴식(33.6%), 박물관/전시관 관람(32.0%), 비즈니스 전문활동(28.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휴양/휴식'과 '비즈니스 전문활동' 참여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러시아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9.3%), 대형쇼핑몰(49.0%), 백화점(36.8%), 전통시장(21.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로드샵' 방문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러시아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7.8%), 의류(59.6%), 식료품(39.9%), 신발류(32.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신발류' 구매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러시아인은 한국에 평균 8.8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265.7[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307.3[전체 : USD 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러시아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8.7%[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88.2%[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7.8%[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내 세부 지역은 동부(프리모르스키주(블라디보스토크)·노보시비르스크주·이르쿠츠크주 등 21개 지역), 북서/우랄(상트페테르부르크·스베르들롭스크주·칼리닌그라드주 등 18개 지역), 서부(타타르스탄·로스토프주·볼고그라드주 등 28개 지역), 중앙(모스크바(연방시)·툴라주·야로슬라블주 등 1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러시아인 전체 응답자(n=930명)의 6.7%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6.6%p 하회함[전체 : 23.3%]

⇒ 러시아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중앙(8.3%), 북서/우랄(7.9%), 동부(6.9%), 서부(4.4%)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러시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71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중국(63.1%), 태국(60.3%), 일본(37.0%), 한국(36.4%), 베트남(35.4%), 인도(34.2%) 등 순. 이 중 '인도' 방문 의향이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았고,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8.8%p 하회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러시아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서부(40.1%), 중앙(35.3%), 북서/우랄(35.1%), 동부(34.2%)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러시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24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중국(35.3%), 태국(23.4%), 일본(9.9%), 한국(9.8%)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중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첫 번째로, '태국'은 두 번째로 높았으나, '한국'은 전체 평균을 6.9%p 하회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중국'을 가장 많이 선택함(동부 48.8%, 서부 33.5%, 북서/우랄 31.5%, 중앙 29.3% 순). 한편, 중앙 지역 거주자의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16.4%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러시아인 중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n=32명)는 그 이유(중복응답 기준)로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영상(53.5%), 전통문화·역사(48.7%), 관광지·관광 명소(45.8%)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러시아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93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35.8%),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27.7%),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3.2%)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낮은 한국 인지도'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선택자(n=33명)는 한국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1+2+3순위기준)로 '주변에 한국 여행 경험자 없음'(68.0%), '자국에서 인기 해외여행 목적지로 손꼽히는 곳 아님'(47.3%), '한국 또는 한국 여행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 없음'(40.8%) 등을 주로 꼽음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러시아인(n=930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주변 사람 추천'(34.3%), '여행 관련 블로그 방문'(33.7%),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30.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여행 관련 블로그 방문'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러시아인(n=930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49.1%), 'Telegram'(41.9%), 'VK'(27.4%)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러시아인(n=930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Ozon travel'(24.8%), 'Aviasales'(21.8%), 'Tutu.ru'(20.1%)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모스크바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러시아 대표 여행사인 ANEX, Biblio Globus, Russian Express 등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방한 상품은 서울의 궁궐과 전통시장, 부산의 해변, 고층빌딩, 경주의 사찰 및 고분 등 역사와 현대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혼합 상품으로 주로 7박 8일 일정(USD 1,800~2,000, 약 250~270만 원)으로 구성됨. 그리고 서울의 한옥마을 투어와 명동 쇼핑을 결합한 7박 8일 여행상품(USD 2,400, 약 320만 원), 서울과 수도권 단기 여행 상품(5박 6일 / USD 1,900, 약 270만 원), 한-중(8박 9일 / USD 2,530, 약 350만 원) 및

한-일(9박 10일 / USD 7,450, 약 1천만 원) 연계 상품도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이외 다양한 테마와 결합한 여행 상품들이 판매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 뷰티 파크, 설화수 플래스십 스토어 및 스파 일정을 포함한 뷰티 투어 상품(서울, 부산 8박 9일 / USD 4,000, 약 530만 원), 서울의 COEX Ktown4u, 드라마 촬영지 등을 방문하는 한류 여행상품(7박 8일 / USD 3,250, 약 430만 원), 국내 대학과 연계한 단기 어학 상품(15박 16일 / USD 3,000, 약 400만 원) 등의 판매량도 높은 편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러시아인 전체 응답자(n=930명)의 77.2%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 78.9%]

⇒ 일반 러시아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45.8%), 한국 영화(29.7%), 한국 뷰티(26.8%), 한국 드라마(23.7%), 한국 애니메이션(19.8%)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718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32.2%), 한국 뷰티(16.3%), 한국 영화(14.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뷰티' 최선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48점 [전체 : 3.62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러시아인은 1.0%(20,262명, 전년 대비 21.9% 증가)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1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5,641명), 내과통합(5,550명), 검진센터(3,114명), 치과(2,256명) 등 순으로, 피부 외에 내과·검진 등 치료·건강검진 목적 비중이 높음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12,786명), 부산(3,051명), 경기(1,873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러시아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78.2%[전체 : 82.3%]. 전년(71.6%) 대비 6.6%p 증가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제품 및 브랜드(48.4%), 문화콘텐츠(30.5%), 경제 수준(25.5%), 현대생활문화(24.2%), 관광(20.7%) 등을 꼽음. 특히 '제품 및 브랜드' 요인은 조사 대상국 중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러시아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한국 음식(15.3%), 자동차(13.4%), 뷰티 제품·화장품(10.8%)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자동차' 및 '뷰티 제품·화장품' 연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러시아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31,659천 명, 2017년 39,629천 명, 2018년 41,964천 명, 2019년 45,330천 명, 2020년 12,361천 명

⇒ 지표 : outbound trips – total – visitors – 방문객 전체(숙박+당일) 기준(단위 천 명)

⇒ 2021년 이후 값은 원자료에 미수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러시아인 수는 2016년 54,839명, 2017년 77,251명, 2018년 94,810명, 2019년 120,043명, 2020년 22,260명, 2021년 3,723명, 2022년 10,324명, 2023년 41,965명, 2024년 99,264명, 2025년 194,908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러시아인은 0.5%의 비중을 차지, 방일 규모는 아직까지 미미하나, 전년 동기 대비 96.4% 증가하면서 주요국 중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짐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내 세부 지역은 동부(프리모르스키주(블라디보스토크)·노보시비르스크주·이르쿠츠크주 등 21개 지역), 북서/우랄(상트페테르부르크·스베르들롭스크주·칼리닌그라드주 등 18개 지역), 서부(타타르스탄·로스토프주·볼고그라드주 등 28개 지역), 중앙(모스크바(연방시)·툴라주·야로슬라블주 등 1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러시아인 전체 응답자(n=930명)의 67.8%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39.9%로 전체 평균을 18.9%p 하회하며[전체 : 58.8%], 해외여행 의향자(n=371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1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러시아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중앙(75.5%), 북서/우랄(67.8%), 서부(65.0%), 동부(61.7%)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은 중앙(45.5%), 동부(39.1%), 북서/우랄(38.4%), 서부(36.5%)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러시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71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66.8%),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0.5%),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35.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영향력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러시아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203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58.0%),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아서'(32.0%),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26.7%)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아서' 응답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2026년 해외여행 시장 전망)** 러시아 여행사인 FUN&SUN의 분석에 따르면, 중동 위기로 인해 2026년 러시아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7%가량 감소할 것이나, 새로운 항공사 및 직항 목적지의 부상으로 2027년부터는 연간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참고로 2025년 기준 러시아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주요 방문지인 튀르키예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가량

감소(43%→35%)하였으나,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였음. 이외 베트남(924%), 이집트(46%), 중국(43%)과 같은 대체 목적지들의 상승세가 뚜렷하였음

✔ **(2026년 여름 시즌 인기 여행지)** 2026년 여름 시즌 기준 러시아에서 직항편이 운항되는 국가는 총 35개국으로, 이 중 튀르키예, 이집트, 중국,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주요 인기 관광지로 꼽힘. 참고로 10박 기준 2인 여행 패키지 비용은 튀르키예,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는 13~14만 루블(약 240~260만 원), 중국 하이난은 14~15만 루블(약 260~280만 원), 태국은 16~17만 루블(약 300~315만 원), 베트남은 19~20만 루블(약 350~37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됨

✔ **(중국 하이난, 여성 의료 목적 방문지로 인기)** 최근 러시아 관광객들 사이에서 건강 증진 차원에서 중국 하이난으로의 의료 관광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35세 이상 여성들이 방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하이난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동양 의학 치료와 현대적인 프로그램을 결합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사지, 침술, 온열요법 등을 포함함. 그리고 항공편과 4성급 호텔 숙박을 포함한 2인 여행 비용은 약 15만 루블(약 280만원) 부터 시작됨. 참고로 중국의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면제 협정은 본래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였으나, 2026년 5월에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의료관광을 포함한 여행 접근성이 개선되었음

✔ **(이벤트 관광 수요 증가)** 러시아 여행사인 YouTravel.m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6년 봄 시즌에 러시아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서울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37%)이며, 이어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11%), '솔라나 시티 페스티벌'(9%), '교토 벚꽃 여행'(8%) 등 순. 참고로 최근 2년간 문화 및 음악 행사 관련 예약은 18%에서 34%로 10%p 이상 증가함. 이벤트 관련 여행의 평균 비용은 1인당 16만 5천 루블(약 2,128달러)로, 일반적인 여행보다 22% 높았으며, 예약 시점도 평균 4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그리고 2026년 말까지 문화 및 음악 행사와 관련된 예약 점유율이 전체 예약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모스크바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러시아 노동법 상 기본 유급휴가는 28일이지만 국경 지역, 극지 등 지역에 따라 추가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음(연해주 36일, 사할린/캄차크 44일, 사하공화국 52일 등). 러시아 근로자는 1월에 1~2주가량의 연중 최대 연휴와 7~8월에 여름 장기휴가가 주어짐

✔ **(방학 현황)** 초·중·고의 방학은 3월~4월(1주일), 6월 초~8월 말(3개월), 11월 초(1주일), 12월 말~1월(2주)이고, 대학교의 방학은 7월 초~8월 말(2개월), 1월

✔ **(비자/규제 현황)** 러시아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14개국으로, 전 세계 47위(2025년 49위,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러시아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러시아 경제는 2023년(+4.1%)·2024년(+4.9%)의 예상 밖 고성장에서 고금리·수출 둔화·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성장세가 둔화해 2025년에는 1.0%의 완만한 성장에 그침. 인플레이션은 5.6%로 다소 완화됐으나(2022년 11.9%), 물가 안정을 위한 고금리 정책이 투자활동 위축으로 이어짐.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G20 중 최저)이나 이는 동원령·인재 유출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기인

✔ **(2026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전망. 루블화 환율은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유가 상승 등으로 절상돼 2026년 5월 기준 달러당 70루블 초반대를 기록했으며, 현지에서는 2026년 연평균 환율을 달러당 81.5루블 선으로 전망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인도



189

요약 | 인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8">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 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 colspan="2">방한 비중
(순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199,277명
(+12.8%)</td><td colspan="2">1.1%
(15위)</td><td>인천공항
(46.9%)</td><td>기타항구
(21.3%)</td><td>30대 남성
(25.2%)</td><td>40대 남성
(17.2%)</td></tr>
<tr><td rowspan="6">한국 여행 실태</td><td>재방문율</td><td colspan="3">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목적
(상위 2위)</td><td rowspan="6">2025 외래 관광객 조사</td></tr>
<tr><td>51.7%</td><td>새로운 국가 방문
(59.6%)</td><td colspan="2">한국 전통 문화 경험
(45.6%)</td><td>개별여행
(94.6%)</td><td>단체여행
(5.0%)</td><td>사업
(70.0%)</td><td>여가
(18.5%)</td></tr>
<tr><td colspan="4">지역 방문 형태</td><td>체재 기간</td><td>1인 지출</td><td>1일 지출</td><td>전반적 만족도</td></tr>
<tr><td>수도권 한정
(63.2%)</td><td>지방 한정
(9.2%)</td><td colspan="2">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27.6%)</td><td>11.1일</td><td>USD
2,654.1</td><td>USD
316.7</td><td>99.0%</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4">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15.0%</td><td>싱가포르
(86.5%)</td><td>일본
(81.5%)</td><td>태국
(72.2%)</td><td>일본
(26.1%)</td><td>싱가포르
(25.3%)</td><td>태국
(10.0%)</td></tr>
<tr><td colspan="2">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YouTube
(63.3%)</td><td>Instagram
(46.9%)</td><td>MakeMyTrip
(61.3%)</td><td>Booking.com
(42.8%)</td><td>불편한 언어소통
(29.8%)</td><td>여행지로 낮은 인지도
(22.5%)</td><td>경비/물가 부적합
(21.2%)</td></tr>
<tr><td rowspan="2">해외 여행 수요</td><td>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2">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d rowspan="2"></td></tr>
<tr><td>73.1%</td><td>70.3%</td><td>일상 벗어나기
(55.7%)</td><td>여유로운 일상
(47.0%)</td><td>경제적 여유 부족
(38.6%)</td><td>물가/경비 상승
(30.9%)</td><td>불안한 국내외 정세
(25.9%)</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인도인 수는 199,277명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2019년 대비 139.0% 회복)

⇒ 2019년 143,367명, 2020년 33,830명, 2021년 31,338명, 2022년 64,829명, 2023년 122,771명, 2024년 176,668명, 2025년 199,277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인도인은 1.1%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5위를 기록

⇒ 2019년 0.8%(16위), 2020년 1.3%(14위), 2021년 3.2%(7위), 2022년 2.0%(15위), 2023년 1.1%(18위), 2024년 1.1%(15위), 2025년 1.1%(15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인도인의 방문 시기는 5월(22,256명), 4월(21,196명), 6월(19,905명), 9월(19,353명), 10월(17,400명) 등 순으로 비교적 고른 편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인도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93,553명, 46.9%), '기타 항구'(42,532명, 21.3%), '부산항구'(36,688명, 18.4%), '제주항구'(9,948명, 5.0%) 등 순으로, 선박 등 항구를 통한 입국 비중이 약 47%에 달함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인도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30대 남성'(26,861명, 25.2%), '40대 남성'(18,337명, 17.2%), '20대 남성'(16,411명, 15.4%) 등 순으로, 30·40대 남성이 방한을 주도. 참고로 2025년 방한 인도인 중 승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92,733명)로 매우 높은 편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인도인의 재방문율은 51.7%[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2.9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인도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59.6%),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5.6%),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8.8%), 계획한 여행경비에 적합한 여행지여서(22.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인도인의 주요 목적은 사업 또는 전문활동(70.0%), 여가/위락/휴식(18.5%), 친구/친지 방문(8.4%)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사업 또는 전문활동' 비중은 가장 높고 '여가/위락/휴식' 비중은 가장 낮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인도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4.6%)과 단체여행(5.0%)이며, 에어텔은 0.3%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인도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79.4%), 경기(26.7%), 부산(17.4%), 인천(8.6%), 제주(6.4%)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경기'는 첫 번째로, '인천'은 세 번째로 방문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인도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63.2%), 지방 한정(9.2%),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27.6%)으로 구분[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인도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78.6%), 식도락 관광(66.4%), 자연경관 감상(58.0%), 비즈니스 전문활동(57.8%),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43.5%)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비즈니스 전문활동'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인도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대형쇼핑몰(49.6%), 백화점(45.0%), 로드샵(34.0%), 공항면세점(25.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백화점'과 '공항면세점'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인도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7.6%), 의류(51.3%), 식료품(33.8%), 신발류(22.8%), 전자제품(17.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전자제품'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인도인은 한국에 평균 11.1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654.1[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316.7[전체 : USD 321.9]를 지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길게 체류하며 1인 지출 금액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나, 1일 지출 금액은 평균을 하회하며 상대적으로 낮음

✔ **(만족도 평가)** 방한 인도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9.0%[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0.4%[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7.7%[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인도 내 세부 지역은 중북부(델리·우타르프라데시·서벵갈 등 25개 지역), 서부(마하라슈트라(뭄바이)·구자라트·고아 등 5개 지역), 남부(카르나타카·타밀나두·텔랑가나 등 8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인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15.0%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8.3%p 하회함[전체 : 23.3%]

⇒ 인도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서부(18.7%), 중북부(16.4%), 남부(9.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인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27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싱가포르(86.5%), 일본(81.5%), 태국(72.2%), 말레이시아(71.6%), 홍콩(중국)(69.6%), 인도네시아(62.2%), 한국(61.8%) 등 순. 이 중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 '홍콩(중국)'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인도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중북부(65.5%), 서부(60.0%), 남부(57.6%)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인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23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26.1%), 싱가포르(25.3%), 태국(10.0%), 한국(8.8%)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싱가포르' 최우선 방문 의향이 가장 높았고,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7.9%p 하회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중북부 거주자는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33.9%)을, 남부 및 서부 거주자는 '싱가포르'(각 38.1%, 29.5%)를 가장 많이 선택함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인도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52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29.8%),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22.5%),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21.2%) 등을 주로 꼽음[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인도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2.2%),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6.5%),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34.6%)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인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63.3%), 'Instagram'(46.9%), 'Facebook'(35.4%)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인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MakeMyTrip'(61.3%), 'Booking.com'(42.8%), 'Airbnb'(19.6%)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뉴델리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Thomas Cook 등 인도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되었던 한국 여행 상품들은 주로 5박 6일 일정(경복궁, DMZ 등 방문)에 1박 당 단가는 약 74만원임. 한국-인도 간 항공 노선이 열악함에 따라 직항 노선 이용 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본 및 유럽 상품과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게 됨. 이 외 태국, 두바이, 베트남 상품과 비교 시 지리적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편. 다만 저가형 상품의 경우 주로 주변 국가를 경유하는 항공 노선을 활용해 방한 상품을 판매 중임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인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1.8%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2.9%p 상회함[전체 : 78.9%]

⇒ 일반 인도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드라마(48.5%), 한국 영화(46.0%), 한국 음식(44.4%), 한국 대중가요(40.8%), 한국 패션(40.0%)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27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드라마(21.1%), 한국 음식(13.0%), 한국 영화(12.7%)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음식' 최선호 비중이 두 번째로 낮음[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93점 [전체 : 3.62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인도인은 0.2%(4,149명, 전년 대비 70.7%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20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2,208명), 내과통합(531명), 검진센터(448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3,402명), 부산(198명), 경기(158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인도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9.0%[전체 : 82.3%]로, 조사 대상국 중 5위 기록. 전년(85.0%) 대비 4.0%p 증가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43.5%), 현대생활문화(32.2%), 과학기술(28.9%), 제품 및 브랜드(28.5%), 경제 수준(19.4%)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과학기술'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함[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인도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 (15.5%), 한국 드라마(10.6%), 뷰티 제품·화장품(7.5%) 등 순[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인도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21,872천 명, 2019년 26,689천 명, 2020년 7,117천 명, 2021년 8,397천 명, 2022년 21,305천 명, 2023년 27,513천 명, 2024년 30,446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17~2018년은 원자료에 미수록, 2024년 기준 2019년의 114.1% 수준 기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인도인 수는 2016년 122,939명, 2017년 134,371명, 2018년 154,029명, 2019년 175,896명, 2020년 26,931명, 2021년 8,831명, 2022년 54,314명, 2023년 166,394명, 2024년 233,061명, 2025년 315,062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인도인은 0.7%의 비중을 차지, 전년 대비 35.2% 증가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인도 내 세부 지역은 중북부(델리·우타르프라데시·서벵갈 등 25개 지역), 서부(마하라슈트라(뭄바이)·구자라트·고아 등 5개 지역), 남부(카르나타카·타밀나두·텔랑가나 등 8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인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73.1%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70.3%로 전체 평균을 11.5%p 상회하며[전체 : 58.8%], 해외여행 의향자(n=327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5.7회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음[전체 : 3.8회]

⇒ 인도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서부(76.9%), 중북부(72.1%), 남부(71.6%)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은 서부(77.0%), 남부(71.0%), 중북부(66.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인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27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5.7%),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47.0%),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45.6%) 등 순[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인도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84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38.6%),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30.9%),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아서'(25.9%) 등을 주로 꼽음

[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인도 2026년 해외여행 트렌드)** 항공권 검색 엔진인 스카이스캐너가 2025년 10월에 발표한 인도인들의 '2026년 7가지 주요 여행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① 목적지 체크인 : 인도인의 82%는 여행지의 랜드마크 보다는 주요 숙박 시설의 매력도를 기준으로 목적지를 선택하였음. ② 로컬 마트 : 여행자 10명 중 8명은 현지 음식 체험을 위해 슈퍼마켓을 방문하였고, 73%는 현지 음식을 먹기 위해 편의점을 찾았음. ③ 웰니스 : 여행자의 57%가 해외에서 스킨케어 및 뷰티 제품을 구매하였고, 절반가량은 웰니스 체험을 위해 여행 목적지를 선택함. ④ 고산체험 : 인도인의 92%가 등산 등 고산 체험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Z세대(51%)와 밀레니얼 세대(47%)가 트레킹과 고산 탐험에 흥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⑤ 가족 중심 : 여행자의 47%는 부모, 44%는 자녀와 동반하는 등 가족 중심 동반 여행이 여전히 강세임. ⑥ 유대 관계 증진 : 인도인의 87%는 여행을 통해 해외에서 우정이나 연애 관계가 촉발되었다고 봄. ⑦ 서적 관련 여행 : 인도인 10명 중 8명은 서적에서 영감을 받아 휴가를 예약했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인도 Z세대의 여행)** 글로벌 OTA인 아고다가 2026년 4월에 발표한 '2026 여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Z세대에게 있어 여행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됨. 이들은 주로 짧고 잦은 여행을 선호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84%가 연간 1~6회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72%는 1~7일 사이의 단기 체류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리고 여행의 동기가 '어디에 가느냐' 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되면서, 문화적 탐험(56%)과 야외 활동(36%)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한편으론, 72%의 응답자가 휴식을 여행의 주된 동기로 꼽으면서, 목적 중심적이면서도 개인의 충전 또한 중시하는 경향을 띰. 이외 전통적인 가족 여행에서 벗어나 파트너와의 여행(57%)이나, 나홀로 여행(22%)을 선호하는 등 동반자 유형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일정 설계와 유연한 예약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다운 면모도 보임

✔ **(럭셔리 관광 수요)** 인도의 백만장자 가구 수는 현재 전체 가구의 0.31%(871,700가구)를 차지하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순자산이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인 가구 수는 445% 급증하였음. 글로벌 리서치 그룹인 Hurun Luxury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 백만장자의 11% 가량이 럭셔리 쇼핑, 고급 식사, 비즈니스 기회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리고 오래전부터 예술 컬렉션, 고급 쇼핑 목적지로 알려진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각각 9% 선호도를 보임. 이외 고급 숙소와 서비스 등을 이유로 호주와 미국의 선호도는 각각 8%를 기록함

✔ **(디지털 결제 선호)** 여행사 토마스쿡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인 여행객들이 해외여행 중 결제의 신속성, 보안성, 편의성, 그리고 실시간 거래 제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기존의 현금 및 카드 대신 모바일 기반의 환전 앱(App), 비접촉식 결제(Tap and Pay), 멀티 커런시(다통화) 외화 선불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뉴델리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인도는 공장법에 따라 고용자는 과년도에 240일 이상 계속 근로한 성인 근로자에 대해 20일마다 1일, 15세 미만 어린 근로자는 15일마다 1일의 휴일을 주어야함. 기업휴가는 주로 여름 방학 시즌인 5월~6월과 디왈리 휴가시즌인 10월~11월에 집중됨. 한편, 인도의 대부분의 공휴일은 힌두교, 무슬림, 시크교 등 종교와 관련되면서 각 주마다 공휴일이 다르며, 매년 음력 기준으로 날짜를 변경함

✔ **(방학 현황)** 초·중·고 및 대학교의 여름 방학(5월~6월), 겨울 방학(12월 중순~1월 초순)

✔ **(비자/규제 현황)** 인도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56개국으로, 전 세계 80위(2025년 82위,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인도인은 한국 입국 시 비자 필요(제주도는 무사증 입국 가능). 참고로, 현재 인도는 불법체류 다발국 21개국(법무부 고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한국 법무부는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인도 단체 관광객 대상 비자 수수료 면제를 시행함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인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8월 1.55%로 201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고, 중앙은행(RBI)은 기준금리(6.50%)를 인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회계연도 2025년 810억 달러(전년 대비 +13.7%)로 세계 15위, 증시(센섹스·니프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시가총액 4.5조 달러로 세계 4위 규모로 부상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인도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프랑스



201

요약 | 프랑스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180,076명 (+9.5%)		1.0% (16위)	인천공항 (88.2%)	김포공항 (4.1%)	20대 여성 (20.0%)	20대 남성 (15.8%)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30.7%	한국 전통 문화 경험 (70.3%)	새로운 국가 방문 (55.6%)	개별여행 (96.8%)	단체여행 (2.1%)	여가 (66.8%)	친구/친지 방문 (17.9%)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50.8%)	지방 한정 (1.7%)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47.4%)	12.1일	USD 2,875.7	USD 288.2	97.6%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5.6%	일본 (52.8%)	태국 (42.2%)	베트남 (36.7%)	일본 (34.7%)	태국 (17.4%)	베트남 (15.2%)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46.0%)	Instagram (36.7%)	Booking.com (45.5%)	Air France (29.7%)	여행지로 낮은 인지도 (40.2%)	경비/물가 부적합 (31.6%)	한류 관심 부재 (21.2%)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90.9%	57.0%	일상 벗어나기 (68.9%)	역사/문화 경험 (65.8%)	경제적 여유 부족 (60.9%)	해외여행 무관심 (24.7%)	불안한 국내외 정세 (19.7%)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프랑스인 수는 180,076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2019년 대비 162.5% 회복)

⇒ 2019년 110,794명, 2020년 19,371명, 2021년 15,700명, 2022년 62,619명, 2023년 133,406명, 2024년 164,508명, 2025년 180,076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프랑스인은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6위를 기록

⇒ 2019년 0.6%(19위), 2020년 0.8%(19위), 2021년 1.6%(11위), 2022년 2.0%(17위), 2023년 1.2%(16위), 2024년 1.0%(16위), 2025년 1.0%(16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프랑스인의 방문 시기는 4월(22,806명), 8월(21,602명), 10월(20,693명), 5월(17,440명), 7월(16,896명), 9월(16,097명) 등 순으로 나타남. 통상 프랑스인의 방한 수요는 봄 방학(부활절 연휴 전후, 4-5월), 여름휴가(7~8월), 추수감사절(만성절 전후, 10월)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프랑스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158,872명, 88.2%), '김포공항'(7,300명, 4.1%), '김해공항'(6,517명, 3.6%)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프랑스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33,904명, 20.0%), '20대 남성'(26,802명, 15.8%), '30대 남성'(18,043명, 10.7%) 등 순으로, 20대 청년층(남녀)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프랑스인의 재방문율은 30.7%[전체 : 56.6%]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음. 재방문자의 평균 방한 횟수는 2.0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프랑스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70.3%),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55.6%),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45.1%),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하고 나서(23.7%)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전통문화'는 첫 번째로, '새로운 국가 방문'은 세 번째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프랑스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66.8%), 친구/친지 방문(17.9%), 사업 또는 전문활동(11.1%) 등 순[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프랑스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6.8%)이며, 단체여행은 2.1%, 에어텔은 1.1% 차지, 조사 대상국 중 '개별여행'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프랑스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97.1%), 부산(37.7%), 제주(12.6%), 경북(9.7%), 경기(8.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서울', '부산', '경북'은 첫 번째로, '제주'는 세 번째로 방문 비중이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프랑스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50.8%), 지방 한정(1.7%),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47.4%)으로, 조사 대상국 중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프랑스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82.4%), 쇼핑(76.1%), 식도락 관광(67.9%), 자연경관 감상(66.7%), 박물관/전시관 관람(52.5%), 전통문화 체험(35.8%)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은 첫 번째로, '전통문화체험'은 두 번째로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프랑스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대형쇼핑몰(52.5%), 로드샵(45.8%), 백화점(38.7%), 전통시장(33.2%), 편의점(33.1%)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편의점'은 첫 번째로, '대형쇼핑몰'은 두 번째로, '전통시장'은 세 번째로 방문 비중이 높음[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프랑스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2.7%), 의류(61.6%), 식료품(39.1%), 보석/악세서리(34.3%), 전통 민예품(28.9%), 한류 스타 관련 상품(20.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보석/악세서리', '전통민예품', '한류스타 관련 상품'은 첫 번째로, '의류'는 세 번째로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프랑스인은 한국에 평균 12.1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875.7[전체 : USD 1,802.3] 및 1일 평균 USD 288.2

[전체 : USD 321.9]를 지출. 체재 기간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길면서 1인 지출 금액이 전체 평균을 USD 1,000가량 상회하나, 1일 지출 금액은 평균을 하회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만족도 평가)** 방한 프랑스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6%[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84.9% [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8.1%[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내 세부 지역은 북부(오드프랑스·그랑테스트·페이드라투아르 등 7개 지역), 파리(일드프랑스), 남부(오베르뉴론알프·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옥시타니 등 5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프랑스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5.6%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23.3%]

⇒ 프랑스 세부 지역별 한국 여행 경험률은 파리(11.0%), 북부(5.1%), 남부(2.6%)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프랑스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65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52.8%), 태국(42.5%), 베트남(36.7%), 인도네시아(29.2%), 필리핀(27.6%), 한국(26.6%) 등 순임. 대부분의 주요 아시아 목적지에 대한 방문 의향이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한국'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낮음[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프랑스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파리(36.6%), 북부(25.2%), 남부(19.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프랑스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191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34.7%), 태국(17.4%), 베트남(15.2%), 한국(9.5%)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베트남' 최우선 방문 의향이 두 번째로 높았고,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7.2%p 하회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북부 37.1%, 남부 34.0%, 파리 32.5% 순)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프랑스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149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40.2%),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31.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1.2%)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낮은 한국 인지도'·'여행경비 및 물가'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선택자(n=60명)는 인지도가 낮은 이유(1+2+3순위 기준)로 '주변에 한국 여행 경험자가 없음'(39.6%), '지리적으로 먼 국가라 잘 알지 못함'(39.1%), '한국 또는 한국 여행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음'(34.2%) 등을 주로 꼽음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 선택자(n=47명)는 적정 체류 기간은 평균 12.0일, 적정 여행경비는 평균 2,930.3 USD라고 응답함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프랑스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주변 사람 추천'(32.8%),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31.6%),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30.5%)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프랑스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46.0%), 'Instagram'(36.7%), 'TikTok'(31.5%)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프랑스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Booking.com'(45.5%), 'Air France'(29.7%), 'Airbnb'(22.8%)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파리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Asia, Les Maisons du Voyage 등 프랑스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되었던 대부분의 한국 여행 상품들은 10박 12일 일정에 1박 단가 평균 439유로(약 68만원)대로, 이는 대만(8박 11일, 1박 단가 401유로, 약 62만원), 일본(7박9일, 1박 단가 411유로, 약 64만원) 상품 대비 1박 당 30유로 가량 높은 수준이며, 일정 또한 상대적으로 길어 카탈로그 상 총 판매가는 오히려 높게 인식되는 경향. 한편, 프랑스인에게 인기 있는 방한

테마는 역사 문화, 한류 K-팝, 아웃도어 등이며, 주요 방문 지역은 서울, 수원, 경주, 안동, 부산, 전주, 순천, 제주 등임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프랑스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0.6%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8.2%p 하회함[전체 : 78.9%]

⇒ 일반 프랑스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34.1%), 한국 영화(23.5%), 한국 뷰티(19.0%), 한국 드라마(18.1%), 한국 대중가요(17.6%)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드라마' 경험률이 두 번째로 낮음[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282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30.2%), 한국 영화(17.1%), 한국 뷰티(13.6%)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영화' 최선호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36점[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프랑스인(파리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60.8%[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1.4회[전체 : 월 2.0회],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87.5%[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비빔밥(30.9%), 한국식 치킨(26.5%), 김치(19.0%), 불고기(16.1%) 등 순. 조사 대상 지역 중 최근 1년 내 '비빔밥'을 가장 많이 취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프랑스인은 0.5%(9,276명, 전년 대비 73.5%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6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6,125명), 내과통합(760명), 성형외과(587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8,690명)이며, 이어 부산(272명), 인천(99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프랑스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1.4%[전체 : 82.3%]. 전년(84.6%) 대비 3.2%p 하락(조사 대상국 중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짐)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42.6%), 현대생활문화(34.2%), 제품 및 브랜드(24.2%), 문화예술(21.1%), 경제 수준(20.5%)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프랑스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22.9%), 한국 음식(8.4%), IT제품·브랜드(6.8%) 등 순[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프랑스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26,483천 명, 2017년 29,055천 명, 2018년 30,509천 명, 2019년 30,407천 명, 2020년 11,937천 명, 2021년 13,681천 명, 2022년 28,085천 명, 2023년 33,018천 명, 2024년 36,522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4년 기준 2019년의 120.1% 수준 기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프랑스인 수는 2016년 253,449명, 2017년 268,605명, 2018년 304,896명, 2019년 336,333명, 2020년 43,102명, 2021년 7,024명, 2022년 52,782명, 2023년 277,436명, 2024년 385,071명, 2025년 457,566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프랑스인은 1.1%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8.8%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15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내 세부 지역은 북부(오드프랑스·그랑테스트·페이드라투아르 등 7개 지역), 파리(일드프랑스), 남부(오베르뉴론알프·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옥시타니 등 5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프랑스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0.9%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면서 전체 평균을 16.4%p 상회함[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57.0%[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65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5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프랑스 세부 지역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파리(96.3%), 북부(89.9%), 남부(88.2%) 거주자 순. 향후 3년 해외여행 의향률은 파리(66.0%), 남부(54.2%), 북부(53.6%)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프랑스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65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68.9%),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65.8%),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31.7%)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영향력은 두 번째로 높음[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프랑스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91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60.9%),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24.7%),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아서'(19.7%) 등을 주로 꼽음. '경제적 여유 부족' 영향력이 전체 평균을 13.9%p 상회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2026년 프랑스인 여행 동향)** 국제 정세 불안 및 항공료·항공유 비용 상승 영향으로 프랑스인들의 여행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프랑스 언론 드몽드에 따르면, 2026년 프랑스 여름 휴가 관련 조사 결과 '확실히 휴가를 떠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전년(50%)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관련해 프랑스 관광 업계는 유럽 인근 국가 및 근거리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장거리 여행 예약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함. 현지 여행사들의 3~4월 장거리 여행 예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한편, 프랑스 조사기관인 Orchestra에 따르면, 2026년 3월 초 기준 여행사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6% 감소하였는데, 특히 이집트(–67.3%), 태국(–51.6%), 인도네시아(–63.6%), 베트남(–39.5%), 인도(–30.1%) 등 아시아 및 장거리 목적지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음

✔ **(2026년 프랑스인 여행 트렌드)** 항공권 검색 엔진인 스카이스캐너가 프랑스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프랑스인 여행객의 7가지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① 산악 여행 : 응답자의 57%가 2026년 여름 또는 가을철에 등산여행을 계획 중임. ② 가족여행 : Z세대의 47%가 부모와의 여행을 선호하며, 31%는 이미 부모 또는 조부모와의 동반여행 경험이 있었음. ③ 마트 방문 : 프랑스인의 47%는 해외여행 시 현지 마트를 방문하였는데, 주된 이유로 전통 식재료 체험(34%), 현지 일상 문화 경험(31%), 로컬 간식 구매(30%) 등을 꼽음. ④ 독서 : 응답자의 34%가 책이나 작가의 영향을 받아 여행지를 선택하였으며, 젊은 세대는 휴식 이상의 지적·문화적 영감 추구'를 목적으로 도서관·서점 방문을 선호하였음. ⑤ 숙소 중심 여행 : 응답자의 35%는 숙소 선택이 곧 여행지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밝힘(Z세대 66%, 밀레니얼 45%, 베이비부머 29%). ⑥ 뷰티 여행 : Z세대의 55%, 베이비부머의 12%가 여행 중 뷰티 제품 구매나 체험 계획이 있었음. ⑦ 새로운 만남 추구 : 응답자의 38%는 친구·연인·새로운 만남을 위해 여행을 떠나거나 계획 중이었는데, 특히 Z세대의 65%가 이를 여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꼽음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파리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프랑스의 모든 피고용인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간 30일(5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음. 노동관계 법령에 의거 5월~10월 사이에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18일(3주), 연속된 12일(2주)의 휴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이에 따라 여름휴가 상품은 주로 10일~14일 기간으로 구성되며, 프랑스인의 원거리 목적지 방문은 2주간의 연속 휴가가 보장되는 5월~10월 사이에 집중됨

✔ **(방학 현황)** 초·중·고의 방학은 10월 말~11월 초(만성절, 2주간), 12월 말~1월 초(성탄절, 2주간), 2월 말~3월 초(스키, 2주간), 4월 말~5월 초(부활절, 2주간), 7월 초~8월 말(여름 방학, 2개월)

✔ **(비자/규제 현황)** 프랑스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6개국으로, 전 세계 4위(2025년 3위, 전년 대비 1단계 하락,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프랑스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프랑스 GDP는 2025년 0.9% 성장(항공·제조업 수출과 기업투자(+0.8%)가 견인, 소비 회복). 인플레이션(HICP)은 0.9%로 2024년(2.3%)에서 하락하며 최저점을 기록했고,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유럽의 경제 회복 흐름에 합류

✔ **(2026년 1분기)** 중동 분쟁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 2025년 4분기 +0.2%에서 2026년 1분기 0%로 정체(국내 수요 정체·수출 -3.8%).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2%(3월 1.7%에서 상승)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독일



213

요약 | 독일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175,836명 (+11.9%)		0.9% (17위)	인천공항 (82.4%)	부산항구 (6.8%)	20대 여성 (16.2%)	20대 남성 (13.5%)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37.7%	한국 전통 문화 경험 (66.8%)	새로운 국가 방문 (58.7%)	개별여행 (95.1%)	단체여행 (4.1%)	여가 (56.1%)	사업 (29.5%)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55.1%)	지방 한정 (4.1%)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40.9%)	11.4일	USD 2,913.0	USD 337.5	98.5%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4.9%	태국 (35.9%)	일본 (35.7%)	싱가포르 (23.5%)	일본 (29.7%)	태국 (29.1%)	베트남 (10.1%)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47.2%)	Instagram (35.1%)	Booking.com (40.2%)	Check24 (27.6%)	여행지로 낮은 인지도 (31.6%)	경비/물가 부적합 (30.8%)	먼 이동거리 (28.9%)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94.6%	61.7%	역사/문화 경험 (67.1%)	일상 즐기기 (57.8%)	국내여행 선호 (33.6%)	동반자 부재 (31.0%)	개인 건강 문제 (29.9%)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독일인 수는 175,836명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2019년 대비 145.6% 회복)

⇒ 2019년 120,730명, 2020년 24,128명, 2021년 20,038명, 2022년 65,107명, 2023년 132,720명, 2024년 157,185명, 2025년 175,836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독일인은 0.9%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7위를 기록

⇒ 2019년 0.7%(17위), 2020년 1.0%(15위), 2021년 2.1%(10위), 2022년 2.0%(14위), 2023년 1.2%(17위), 2024년 1.0%(17위), 2025년 0.9%(17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독일인의 방문 시기는 4월(27,847명), 10월(19,677명), 9월(19,312명), 3월(18,334명), 8월(16,519명) 등 순으로 나타남. 통상 독일인의 방한 수요는 부활절 연휴가 있는 3~4월과 방한 상품 패키지 일정이 많은 9~10월에 집중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독일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144,904명, 82.4%), '부산항구'(11,988명, 6.8%), '김포공항'(6,682명, 3.8%), '김해공항'(5,776명, 3.3%)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독일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26,681명, 16.2%), '20대 남성'(22,317명, 13.5%), '30대 남성'(21,646명, 13.1%) 등 순으로, 20~30대 청년층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독일인의 재방문율은 37.7%[전체 : 56.6%]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낮음. 재방문자의 평균 방한 횟수는 2.3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독일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66.8%),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58.7%),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5.7%),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하고 나서(28.0%)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전통문화'와 '새로운 국가 방문'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독일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56.1%), 사업 또는 전문활동(29.5%), 친구/친지 방문(10.5%), 교육(3.9%) 등 순[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독일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5.1%)과 단체여행(4.1%)이며, 에어텔은 0.8%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독일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91.2%), 부산(33.1%), 경기(14.3%), 제주(11.4%), 인천(7.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부산'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독일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55.1%),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40.9%), 지방 한정(4.1%)으로, 조사 대상국 중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독일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식도락 관광(62.7%),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61.5%), 쇼핑(57.0%), 자연경관 감상(49.6%), 박물관/전시관 관람(42.7%) 등 순[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독일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6.7%), 대형쇼핑몰(43.2%), 백화점(30.8%), 전통시장(26.3%) 등 순[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독일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55.6%), 의류(51.8%), 식료품(38.7%), 보석/악세서리(32.0%), 전통 민예품(22.2%)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보석/악세서리'는 두 번째로, '전통 민예품'은 세 번째로 구매 비중이 높음[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독일인은 한국에 평균 11.4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913.0[전체 : USD 1,801.9] 및 1일 평균 USD 337.5[전체 : USD 321.9]를 지출. 체재 기간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길고, 1인 지출 금액은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음

✔ **(만족도 평가)** 방한 독일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8.5%[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82.3%[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6.9%[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세부 지역은 북부(함부르크 등 5개 지역), 동부(베를린 등 5개 지역), 남부(바이에른 등 2개 지역), 서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헤센 등 4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독일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4.9%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방한 경험률이 두 번째로 낮음[전체 : 23.3%]

⇒ 독일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률은 동부(8.9%), 서부(5.1%), 북부(3.8%), 남부(2.4%)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독일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87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태국(35.9%), 일본(35.7%), 싱가포르(23.5%), 한국(21.3%), 베트남(18.1%), 중국(18.1%) 등 순. 모든 주요 아시아 목적지에 대한 방문 의향이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이 중 '일본'·'한국'·'베트남'·'중국'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태국'·'싱가포르'는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독일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동부(27.7%), 북부(24.5%), 남부(19.9%), 서부(15.9%) 거주자 순으로 높음

✔ **(향후 3년 내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독일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169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29.7%), 태국(29.1%), 베트남(10.1%), 중국(7.0%), 싱가포르(5.7%), 인도(3.9%), 필리핀(3.6%), 인도네시아(3.5%), 한국(3.1%)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첫 번째로, '베트남'은 세 번째로 높은 반면,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가장 낮음[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대부분의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꼽음(남부 34.9%, 서부 33.4%, 동부 28.3%, 북부 21.5% 순). 단, 북부 거주자는 '태국'(28.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서부 거주자 또한 '태국'(33.2%)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독일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176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31.6%),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30.8%), '먼 이동거리'(28.9%)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먼 이동거리'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

[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선택자(n=56명)는 인지도가 낮은 이유(1+2+3순위 기준)로 '주변에 한국 여행 경험자가 없음'(64.6%),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인지도가 더 높음'(45.7%), '자국에서 인기 해외여행 목적지로 손꼽히는 곳 아님'(40.6%) 등을 주로 꼽음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 선택자(n=54명)는 적정 체류 기간을 평균 13.1일, 적정 여행경비를 평균 2,671.4 USD라고 응답함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독일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31.7%),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28.6%), '주변 사람 추천'(27.8%)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독일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47.2%), 'Instagram'(35.1%), 'TikTok'(22.9%)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독일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Booking.com'(40.2%), 'Check24'(27.6%), 'Trivago'(17.6%)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프랑크푸르트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DERTour, Gebeco, Marco Polo Reisen 등 독일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한국 여행 상품들은 주로 11박 12일 일정에 1박 당 단가는 199~318유로(약 31~50만 원) 대로 일본 여행 상품(동일 기간, 1박 단가 308~356유로, 약 48~56만원) 보다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태국 및 베트남 상품(동일 기간, 1박 단가 100~243 유로, 약 15~38만원)과 비교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 한편, 독일인에게 인기 있는 한국 여행 테마는 관광, 문화, 바다이며, 주요 방문 지역은 서울, 부산, 제주도, 경주, 전주 등임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독일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59.2%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78.9%]

⇒ 일반 독일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34.9%), 한국 드라마(14.3%), 한국 영화(13.8%), 한국 뷰티(13.3%), 한국 대중가요(11.6%)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드라마'·'한국 영화'·'한국 대중가요' 경험률은 첫 번째로, '한국 뷰티'는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 [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275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41.2%), 한국 드라마(10.0%), 한국 뷰티(7.8%), 한국 영화(7.6%) 등 순임.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음식' 최선호 비중은 두 번째로 높은 반면, '한국 드라마' 최선호 비중은 첫 번째로, '한국 영화'는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16점 [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독일인(베를린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63.0%[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1.6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0.5%[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김치(26.9%), 한국식 치킨(25.4%), 비빔밥(20.1%), 김치볶음밥(14.3%)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독일인은 0.4%(8,102명, 전년 대비 62.9%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8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5,440명), 내과통합(759명), 성형외과(601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7,561명)이며, 이어 부산(218명), 인천(107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독일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76.6%[전체 : 82.3%]. 전년(74.2%) 대비 2.4%p 상승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현대생활문화(29.7%), 제품 및 브랜드(29.3%), 문화콘텐츠(28.5%), 경제 수준(25.3%), 과학기술(21.1%)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독일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한국 음식(16.5%), K-pop(10.2%), IT제품·브랜드(6.6%), 뷰티제품/화장품(6.2%) 등 순[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독일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90,966천 명, 2017년 92,402천 명, 2018년 108,542천 명, 2019년 99,533천 명, 2020년 36,867천 명, 2021년 48,667천 명, 2022년 86,623천 명, 2023년 102,058천 명, 2024년 114,397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4년 기준 2019년의 114.9% 수준 기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독일인 수는 2016년 183,288명, 2017년 195,606명,

2018년 215,336명, 2019년 236,544명, 2020년 29,785명, 2021년 5,197명, 2022년 45,748명, 2023년 233,410명, 2024년 325,870명, 2025년 429,479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독일인은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31.8% 증가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세부 지역은 북부(함부르크 등 5개 지역), 동부(베를린 등 5개 지역), 남부(바이에른 등 2개 지역), 서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헤센 등 4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독일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4.6%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전체 평균을 20.1%p 상회함[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61.7%[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87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4.5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독일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북부(96.2%), 남부(95.2%), 서부(94.2%), 동부(92.7%)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은 서부(66.1%), 동부(64.5%), 북부(62.2%), 남부(54.2%)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독일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87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67.1%),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57.8%),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6.6%)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독일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97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33.6%), '해외여행을 같이 갈 동반자가 없어서'(31.0%), '현재 나의 건강상의 문제로'(29.9%)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해외여행을 같이 갈 동반자 없음'은 두 번째로, '국내여행 선호'·'건강상 문제'는 세 번째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여행 심리 위축과 단거리 선호)** 영국의 시장조사 기업인 YouGov와 독일항공협회(BTW)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전체 응답자의 67%는 현재의 정치·경제적 기후 상황을 우려하였고, 이는 여행지 선택과 예약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특히 저소득에 대한 걱정과 고용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2026년에 아예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26%에 달함. 그리고 자국과 멀지 않은 근거리 여행지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높아지면서, 응답자의 35%가 유럽 내 여행지를 방문하길 원하였음. 또한 22%의 응답자는 안전 차원에서 기존에 방문한 적이 있는 친숙한 여행지와 호텔을 재예약하였음. 참고로 현재 독일인들이 여행 시 가장 큰 안전함을 느끼는 요소는 '유연한 예약 및 취소 옵션', '현지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보험이 포함된 패키지여행 상품' 등으로 나타남

✔ **(중동 수요 및 항공 경유 노선의 점진적 회복)** 2026년 6월 기준 중동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가 해제된 이후 두바이를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대다수 단기(Short notice) 예약 위주이며,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시즌의 예약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게 관찰됨. 더불어 걸프 지역(중동 허브 공항)을 경유하여 아시아나 인도양으로 향하는 장거리 항공 수요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음. 특히 태국과 몰디브 같은 목적지는 당장 올여름 '라스트 미닛'(출발 불과 몇 주 전까지 예약을 고의로 미루는 형태) 휴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겨울 시즌 장기 여행 계획 모두에서 높은 수요를 보임. 한편, 저렴한 라스트 미닛 딜을 제공하는 이집트,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전통 휴양지 수요도 안정화되는 추세임

✔ **(비즈니스 여행 지출 규모 세계 3위)** 글로벌 OTA인 부킹닷컴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독일의 비즈니스 여행 지출액은 690억 유로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함. 이는 최근 독일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비즈니스 출장이 필수적인 경제 구조를 반영한 결과임. 특히 자동차, 기계 공학, 화학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 분야에서 높은 출장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북미 및 아시아 노선에서 높은 활성도를 보임

✔ **(독일인의 겨울 여행지)** 글로벌 OTA인 트립닷컴의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2025년 연말 휴가 기간(12월 20일~26일) 동안 주로 장거리 여행과 따뜻하고 화창한 여행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해당 기간 최다 예약 국가는 대표 휴양지인 태국이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국, 일본 또한 높은 예약률을 기록함(1. 태국, 2. 터키, 3. 스페인, 4. 중국, 5. 이탈리아, 6. 영국, 7. 프랑스, 8. 한국, 9. 일본, 10. 그리스). 관련해 프랑크푸르트 주재 한국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독일인들은 따뜻한 동남아 국가나 호주 방문 시 한국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독일 내 직항이 없는 지역으로 방문 시 동일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환승하기 위함이며, 방한 관광에 대한 선호가 한국을 환승 국가로 선정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프랑크푸르트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독일은 연방 휴가법에 따라 고용자는 노동자가 6개월 이상 근무 시 연차 휴가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무일 6일제 기준 연 24일, 5일제 기준 연 20일, 4일제 기준 연 16일임. 한편, 독일의 경우 7~8월이 최고의 휴가 시즌이며, 이외 부활절, 오순절, 크리스마스 전후는 대부분의 학교가 약 1주일 내지 2주일간의 단기 방학을, 직장인은 휴가를 내는 여행 시즌임

✔ **(방학 현황)** 초·중·고의 방학은 6월 말~7월 중순부터 8월 초~9월 중순까지, 1월 말~2월 초까지. 대학교의 방학은 7월 중순~10월 중순, 2월 중순~4월 중순까지

✔ **(비자/규제 현황)** 독일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6개국으로, 전 세계 4위(2025년 3위, 전년 대비 1단계 하락,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독일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 ~ 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독일 GDP는 2025년 0.2% 성장으로, 2023~2024년 2년 연속 역성장 이후 소폭 플러스로 전환. 민간소비(+1.6%)와 수입(+3.6%)이 완만히 늘었으나 설비투자(-1.9%)와 수출(-0.4%)은 부진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 미국의 고관세·보호무역 기조가 수출 중심 제조업에 부담으로 작용

✔ (2026년 상반기) 2026년 4월 실업률은 6.4%(실업자 약 300.8만 명)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소비자물가(CPI)는 중동 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를 기록. 한편 2025년 5월 출범한 기민·기사연합(CDU/CSU)–사민당(SPD) 연립정부가 인프라·국방 분야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며 경기 반등 동력을 모색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영국



227

요약 | 영국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171,940명 (+16.6%)		0.9% (18위)	인천공항 (75.8%)	부산항구 (8.4%)	20대 여성 (12.8%)	30대 남성 (12.5%)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40.9%	한국 전통 문화 경험 (66.8%)	새로운 국가 방문 (58.7%)	개별여행 (95.9%)	단체여행 (2.8%)	여가 (48.9%)	사업 (29.7%)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64.8%)	지방 한정 (2.9%)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32.3%)	9.6일	USD 3,084.0	USD 398.0	99.4%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8.1%	일본 (47.9%)	태국 (38.6%)	싱가포르 (35.7%)	일본 (26.1%)	싱가포르 (16.5%)	태국 (15.8%)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YouTube (48.0%)	Instagram (34.8%)	Booking.com (41.4%)	Expedia (27.4%)	여행지로 낮은 인지도 (33.7%)	먼 이동거리 (29.3%)	불편한 언어소통 (21.7%)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95.0%	62.4%	일상 즐기기 (66.5%)	역사/문화 경험 (59.9%)	경제적 여유 부족 (39.8%)	해외여행 무관심 (33.2%)	개인 건강문제 (31.8%)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영국인 수는 171,940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2019년 대비 119.7% 회복)

⇒ 2019년 143,676명, 2020년 20,419명, 2021년 8,974명, 2022년 44,806명, 2023년 121,376명, 2024년 147,493명, 2025년 171,940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영국인은 0.9%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8위를 기록

⇒ 2019년 0.8%(15위), 2020년 0.8%(18위), 2021년 0.9%(16위), 2022년 1.4%(20위), 2023년 1.1%(19위), 2024년 0.9%(18위), 2025년 0.9%(18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영국인의 방문 시기는 4월(24,459명), 10월(19,206명), 5월(16,606명), 9월(16,239명), 3월(15,717명), 8월(15,571명) 등 순으로, 통상 영국인의 방한 수요는 봄·가을에 집중되는 편임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영국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130,319명, 75.8%), '부산항구'(14,396명, 8.4%), '김포공항'(7,893명, 4.6%), '김해공항'(7,853명, 4.6%)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영국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21,310명, 12.8%), '30대 남성'(20,828명, 12.5%), '20대 남성'(19,467명, 11.7%) 등 순으로, 20~30대 청년층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영국인의 재방문율은 40.9%[전체 : 56.6%], 평균 방한 횟수는 2.4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영국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54.3%),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48.0%),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6.4%), 계획한 여행경비에 적합한 여행지여서(20.9%)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영국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48.9%), 사업 또는 전문활동(29.7%), 친구/친지 방문(18.4%), 교육(2.8%) 등 순[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영국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5.9%)과 단체여행(2.8%)이며, 에어텔은 1.3%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영국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93.5%), 부산(20.9%), 경기(16.7%), 제주(7.5%), 강원(6.5%), 인천(6.4%)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서울'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영국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64.8%),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32.3%), 지방 한정(2.9%)으로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영국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식도락 관광(77.1%), 쇼핑(68.5%), 자연경관 감상(67.8%),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66.4%), 박물관/전시관 관람(50.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영국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대형쇼핑몰(42.9%), 백화점(42.1%), 로드샵(41.7%), 전통시장(30.4%), 편의점(26.4%)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편의점' 방문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영국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56.2%), 의류(48.9%), 식료품(40.2%), 보석/악세서리(24.4%), 전통 민예품(20.3%)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영국인은 한국에 평균 9.6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3,084.0[전체 : USD 1,801.9] 및 1일 평균 USD 398.0[전체 : USD 321.9]를 지출. 1인 지출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고, 1일 지출은 세 번째로 높음

✔ **(만족도 평가)** 방한 영국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9.4%[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88.4%[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8.2%[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세부 지역은 런던(그레이터런던·시티오브런던), 북동부권(그레이터맨체스터·웨스크요크셔·머지사이드 등 24개 지역), 남서부권(브리스톨·옥스퍼드셔·이스트서식스 등 22개 지역), 잉글랜드 외(스코틀랜드·웨일스·노스아일랜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영국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8.1%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5.3%p 하회함[전체 : 23.3%]

⇒ 영국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률은 런던(16.1%), 잉글랜드 외 지역(8.8%), 잉글랜드 남서부권(6.3%), 잉글랜드 북동부권(4.6%)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영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0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47.9%), 태국(38.6%), 싱가포르(35.7%), 홍콩(29.8%), 중국(28.3%), 한국(27.7%) 등 순.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27.5%p 하회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영국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해외여행 의향자 기준)은 런던(38.5%), 잉글랜드 북동부권(34.6%), 잉글랜드 남서부권(19.8%), 잉글랜드 외 지역(17.4%)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영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197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26.1%), 싱가포르(16.5%), 태국(15.8%), 인도(8.2%), 중국(7.1%), 베트남·한국(각 5.8%)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싱가포르' 최우선 방문 의향이 세 번째로 높았고,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1.0%p 하회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잉글랜드 북동부권·런던·잉글랜드 남서부권 거주자는 '일본'(각 31.5%, 27.5%, 21.6%)을, 잉글랜드 외 지역 거주자는 '태국'(25.5%)을 가장 많이 선택함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영국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162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33.7%), '먼 이동거리'(29.3%), '불편한 언어소통'(21.7%)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먼 이동거리'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여행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선택자(n=55명)는 한국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1+2+3순위 기준)로 '주변에 한국 여행 경험자 없음'(62.2%), '자국에서 인기 해외

여행 목적지로 손꼽히는 곳 아님'(43.8%),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인지도가 더 높음'(40.8%) 등을 주로 꼽음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불편한 언어소통' 선택자(n=35명)는 방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1+2+3순위 기준)으로 '현지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어려움'(74.0%), '한국 전용 앱 이용이 어려울 것 같음'(57.5%), '외국인을 위한 표지판/안내문 체계 부족'(50.7%) 등을 주로 꼽음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영국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주변 사람 추천'(각 34.1%),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31.4%), '한국(공공기관) 홍보 및 마케팅'(27.2%)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영국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48.0%), 'Instagram'(34.8%), 'TikTok'(29.6%)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영국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Booking.com'(41.4%), 'Expedia'(27.4%), 'Airbnb'(22.0%)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런던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Inside Asia 등 영국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중인 주요 한국 여행 상품(Best of South Korea)은 12박 13일 일정(서울, 부산, 안동, 경주 등)에 1박 당 단가는 GBP427(약 77만 원)대로, 일본 상품(동일 기간, 1박 단가 GBP511, 약 91.7만원)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태국 및 베트남 상품 대비 지리적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영국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58.6%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78.9%]

⇒ 일반 영국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30.2%), 한국 대중가요

(27.4%), 한국 드라마(26.8%), 한국 영화(21.1%), 한국 뷰티(16.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음식' 경험률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272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6.6%), 한국 드라마(20.7%), 한국 뷰티(12.8%)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54점[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영국인(런던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61.0%[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1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6.4%[전체 : 93.1%]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31.1%), 김치(29.2%), 김치볶음밥(23.1%), 비빔밥(16.4%), 만두(14.7%)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영국인은 0.5%(10,092명, 전년 대비 78.4%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5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5,973명), 내과통합(1,126명), 성형외과(880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9,276명)이며, 이어 부산(306명), 인천(154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영국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7.4%[전체 : 82.3%]로, 조사 대상국 중 9위 차지. 전년(78.2%) 대비 9.2%p 상승(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증가폭이 높게 나타남)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40.7%), 현대생활문화(34.4%), 과학기술(23.5%), 전통문화유산과 문화예술(각 22.1%)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영국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 (18.6%), 한국 음식(12.4%), 한국 영화(9.4%), 한국 드라마(8.2%)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영화' 연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영국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81,757천 명, 2017년 87,242천 명, 2018년 90,571천 명, 2019년 93,086천 명, 2020년 23,827천 명, 2021년 19,142천 명, 2022년 71,311천 명, 2023년 86,205천 명, 2024년 91,435천 명

⇒ 지표 : outbound trips – total – visitors – 방문객 전체(숙박+당일) 기준(단위 천 명)

⇒ 2024년 기준 2019년의 98.2% 수준 기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영국인 수는 2016년 292,458명, 2017년 310,499명, 2018년 333,979명, 2019년 424,279명, 2020년 51,024명, 2021년 7,294명, 2022년 57,496명, 2023년 321,482명, 2024년 437,230명, 2025년 535,004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영국인은 1.3%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2.4% 증가. 국적별 방일 외래객 순위에서 14위를 기록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세부 지역은 런던(그레이터런던·시티오브런던), 북동부권(그레이터맨체스터·웨스크요크셔·머지사이드 등 24개 지역), 남서부권(브리스톨·옥스퍼드셔·이스트서식스 등 22개 지역), 잉글랜드 외(스코틀랜드·웨일스·노스아일랜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영국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5.0%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전체 평균을 20.5%p 상회하며 두드러짐[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62.4%[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90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5.3회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음[전체 : 3.8회]

⇒ 영국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런던(98.9%), 잉글랜드 남서부권(97.1%), 잉글랜드 북동부권(93.6%), 잉글랜드 외 지역(90.9%)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은 런던(67.5%), 잉글랜드 남서부권(62.7%), 잉글랜드 외 지역(62.0%), 잉글랜드 북동부권(59.5%) 거주자 순으로 높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영국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0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66.5%),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9.9%),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47.6%)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영향력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영국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102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39.8%),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33.2%), '현재 나의 건강상의 문제로'(31.8%)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중동 분쟁 여파로 여행 심리 위축)** 영국 기반 글로벌 은행인 Barclays 조사에 따르면, 중동 분쟁 여파로 영국 소비자들의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휴가를 미루는 경향이 나타남.

영국의 여행 소비는 2026년 3월(-3.3%)과 4월(-5.7%)에 연속 감소하며, 코로나19 제한 해제 이후 5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됨.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영국인 응답자의 13%는 여전히 2026년 휴가 및 여행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소를 위해 영국 내부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을 계획 중인 응답자는 19%로 집계됨

✔ **(중국, 영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 중국 외교부는 2026년 1월 29일에 이뤄진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 및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인의 관광·비즈니스·친지 방문 목적 중국 본토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함(기존에는 영국인이 중국 비자 신청 시 5~10일 시간 소요, 150~250파운드(약 30~40만 원) 비용이 발생했었음). 향후 정책 도입 이후 18개월 내 영국인의 중국 방문이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영국인이 주목하는 2026년 관광 트렌드)** 영국 국적항공사인 British Airways와 글로벌 여행 트렌드 예측 기관인 Globetrende가 협업하여 영국 여행객들의 여행 방식을 분석한 '2026년 여행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함. 먼저 ①Chronocations(시간 개념 무시 여행) : 휴가를 시간에서 해방되는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 증가. ②Uninhibited Holidays(외모 복장에 대한 부담감 완화, 사회적 비교에서 벗어난 휴가 추구) : 전통적으로 여행지에서 자기표현·몸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으나 점차 자유로운 즐김으로 변화. ③Stream Parks(기술 기반 몰입형 테마 공간) : 스트리밍 콘텐츠·게임 IP를 기반으로 한 혼합현실(MR) 테마 공간 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 ④The Valueverse(가치 중심 포인트 생태계) : 여행 포인트·로열티 프로그램이 단순 항공 업그레이드 넘어 개인 가치 기반 소비로 확장됨. ⑤ Neurosurfing(뇌파 기반 웰니스 휴가) : 단순 휴식 대신 명상, 호흡법, 사운드 배스 등 인지적 웰니스 활동 포함 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 ⑥Vintage Junkets(복고·진정성 여행) : 알고리즘 중심의 빠른 관광 대신 현지 시장, 골동품, 오래된 거리 등 레트로·빈티지 문화 탐방 선호도 증가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런던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영국의 기업 휴가는 노동법상 연간 최소 28일(풀타임 근무자 기준, 통상 공휴일 8일 포함)의 유급 휴가가 주어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후부터 휴무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업계에 따라 크리스마스 전 주에 휴무를 지정하기도 함

✔ **(방학 현황)** 학교 방학기간은 3학기제로 학기 중 1주간의 방학이 부여되며, 학기 종료 후 1.5주~6주간 방학을 실시함. 초·중·고 및 대학교의 방학은 여름 방학(7월 말~9월 초), 겨울 방학(12월 말~1월 초), 봄 방학(3월 말~4월 중순)

✔ **(비자/규제 현황)** 영국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4개국으로, 전 세계 6위(2025년 6위, 전년과 동일,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영국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영국 경제는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며 2024년(1.0%) 대비 개선. 다만 인플레이션이 정부 목표치(2%)에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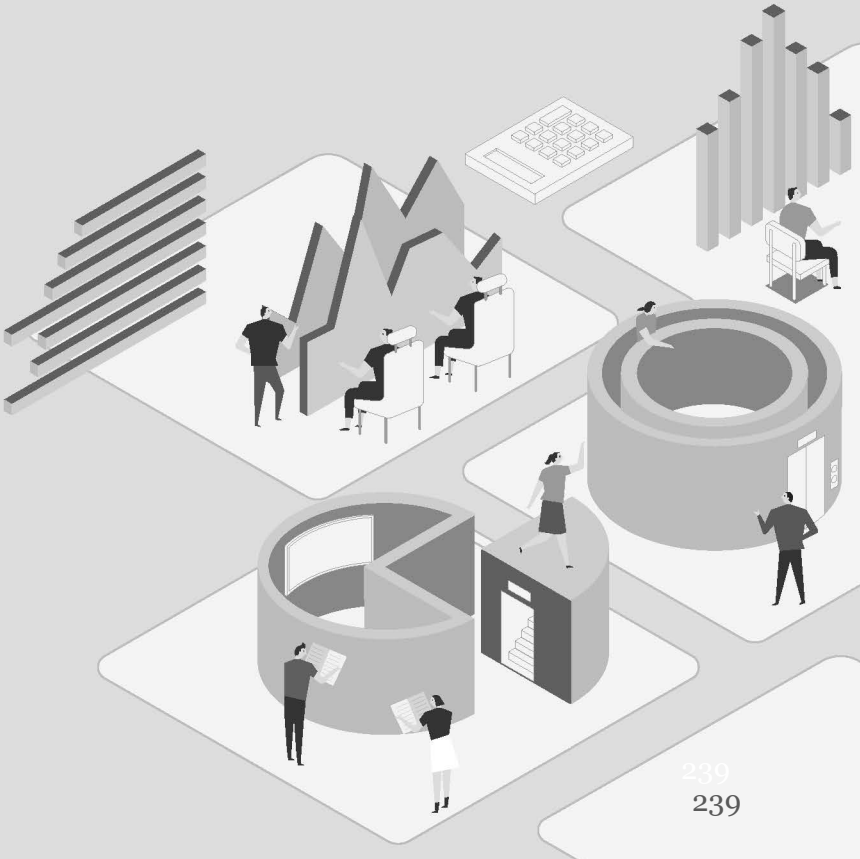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2026년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서비스업 0.8% 주도, 생산·건설 각 0.2%·0.4%). 소비자물가(CPI)는 2026년 3월 3.3%에서 4월 2.8%로 하락했으나 중동發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로 영란은행(BOE)은 4월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 무역수지 적자 확대(1분기 70억 파운드), 실업률 4.9%(2025.12~2026.2)와 임금 상승세 둔화(평균 정기 임금 +3.6%), 주택가격 상승세 완화(2026.3 전년비 0.0%) 등 노동·주택시장도 완화 흐름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몽골



239

요약 | 몽골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166,901명 (+17.6%)		0.9% (19위)	인천공항 (82.4%)	김해공항 (8.4%)	30대 여성 (13.5%)	10대 여성 (12.1%)	
한국 여행 실태	**재방문율**	**방한 관심 계기 (상위 2위)**		**방한 여행 형태 (상위 2위)**		**방한 목적 (상위 2위)**		2025 외래 관광객 조사
	69.3%	좋은 과거 방문 경험 (33.9%)	적합한 이동 거리 (24.0%)	개별여행 (97.0%)	단체여행 (2.8%)	여가 (32.1%)	사업 (30.4%)	
	지역 방문 형태			**체재 기간**	**1인 지출**	**1일 지출**	**전반적 만족도**	
	수도권 한정 (80.8%)	지방 한정 (8.6%)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0.6%)	10.0일	USD 1,822.1	USD 242.4	98.5%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11.4%	한국 (71.0%)	중국 (61.3%)	일본 (53.5%)	한국 (44.3%)	중국 (31.8%)	일본 (12.0%)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Facebook (78.0%)	YouTube (61.2%)	Nisleg.mn (35.5%)	Tapa Trip (25.4%)	불편한 출입국 절차 (43.2%)	불편한 언어소통 (21.7%)	방한상품 프로모션 부족 (21.5%)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41.5%	36.3%	역사/문화 경험 (48.9%)	일상 벗어나기 (38.9%)	경제적 여유 부족 (54.3%)	국내여행 선호 (35.2%)	경비/물가 상승 (34.1%)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몽골인 수는 166,901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2019년 대비 146.9% 회복)

⇒ 2019년 113,599명, 2020년 21,476명, 2021년 5,769명, 2022년 62,670명, 2023년 135,216명, 2024년 141,902명, 2025년 166,901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몽골인은 0.9%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19위를 기록

⇒ 2019년 0.6%(18위), 2020년 0.9%(17위), 2021년 0.6%(20위), 2022년 2.0%(16위), 2023년 1.2%(15위), 2024년 0.9%(19위), 2025년 0.9%(19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몽골인의 방문 시기는 6월(16,955명), 8월(15,682명), 1월(15,487명), 3월(14,847명), 7월(14,456명) 등 순. 통상적으로 몽골인의 한국 방문은 주로 '동계'(자국 대비 상대적으로 날씨가 따뜻한 지역 방문 선호) 시즌에 집중되었으나, 2025년의 경우 하계(6~8월) 시즌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방한이 이뤄짐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몽골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137,599명, 82.4%), '김해공항'(14,091명, 8.4%), '기타공항'(9,251명, 5.5%)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몽골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30대 여성'(22,453명, 13.5%), '10대 여성'(20,241명, 12.1%), '20대 여성'(19,148명, 11.5%), '40대 여성'(19,028명, 11.4%) 등 순으로, 여성층이 폭넓은 연령대에 걸쳐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 **(재방문율)** 방한 몽골인의 재방문율은 69.3%[전체 : 56.6%]이며, 평균 방한 횟수는 4.0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몽골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과거 방문 경험이 좋아서(33.9%),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24.0%),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21.8%), 다양한 관광지 관련 정보를 접하고 나서(19.5%)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긍정적인

과거 방문 경험'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몽골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32.1%), 사업 또는 전문활동(30.4%), 친구/친지 방문(25.9%), 교육(9.8%)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친구/친지 방문'과 '교육' 비중은 가장 높은 반면, '여가/위락/휴식' 비중은 두 번째로 낮았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몽골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7.0%)과 단체여행(2.8%)이며, 에어텔은 0.3% 차지, 조사 대상국 중 '개별여행'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몽골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77.3%), 경기(23.8%), 인천(7.3%), 부산(5.4%), 강원(3.4%)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경기' 방문 비중은 두 번째로 높은 반면, '부산' 방문 비중은 가장 낮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몽골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80.8%),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10.6%), 지방 한정(8.6%)으로, 조사 대상국 중 '수도권 한정' 방문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몽골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77.2%), 식도락 관광(71.8%), 자연경관 감상(49.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31.3%), 비즈니스 전문활동(28.5%), 휴양/휴식(25.7%), 뷰티/미용 관광(23.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뷰티/미용 관광' 참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몽골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6.6%), 대형쇼핑몰(52.1%), 백화점(40.2%), 대형마트(24.2%), 전통시장(23.7%)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대형쇼핑몰' 방문 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몽골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8.1%), 의류(63.8%), 식료품(44.4%), 신발류(34.6%), 보석/악세서리(25.3%), 가방류(23.9%)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의류'는 첫 번째로, '신발류'는 두 번째로, '가방류'는 세 번째로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남[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몽골인은 한국에 평균 10.0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1,822.1[전체 : USD 1,801.9] 및 1일 평균 USD 242.4[전체 : USD 321.9]를 지출. 체류 기간은 평균을 상회하며 긴 편이나, 1일 지출은 두 번째로 낮음

✔ **(만족도 평가)** 방한 몽골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8.5%[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94.2%[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7.5%[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몽골 내 세부 지역은 수도권(울란바타르), 서부(고비·호브드·오브스 등 5개 지역), 중부(다르항올·어문고비·오르홍 등 11개 지역), 동부(도르노드·도르노고비 등 5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몽골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11.4%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1.9%p 하회함[전체 : 23.3%]

⇒ 몽골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률은 수도권(25.5%), 중부(3.6%), 서부(3.1%), 동부(2.8%)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몽골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169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한국(71.0%), 중국(61.3%), 일본(53.5%), 싱가포르(23.7%), 베트남(22.3%) 등 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목적지에 대한 방문 의향이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5.9%p 상회하며 두드러짐[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몽골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동부(79.7%), 중부(76.9%), 수도권(68.0%), 서부(60.9%)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서부·동부는 30표본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몽골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155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한국(44.3%), 중국(31.8%), 일본(12.0%), 베트남(3.7%)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이 첫 번째로, '중국'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가장 많이 선택함(동부 47.8%, 중부 46.8%, 수도권 42.7%, 서부 39.7% 순). 단, 동부·수도권 거주자는 '중국'(각 44.1%, 34.1%), 서부 거주자는 '일본'(30.1%) 선택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서부·동부는 30 표본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최우선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몽골인

(n=69명)이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주변인 추천'(52.3%), '의료 관광'(34.8%),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영상 콘텐츠'(29.3%) 등을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몽골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36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43.2%), '불편한 언어소통'(21.7%), '한국여행 관련 항공권 및 여행상품 특가/프로모션 부족'(21.5%)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특가/프로모션 부족' 영향력을 두 번째로, '불편한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를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몽골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52.4%), '주변 사람 추천'(48.0%), '여행 관련 블로그 방문'(27.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주변 사람 추천' 영향력을 첫 번째로,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몽골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Facebook'(78.0%), 'YouTube'(61.2%), 'Instagram'(54.6%)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몽골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Nisleg.mn'(35.5%), 'Tapa Trip'(25.4%), 'Trip.com'(22.8%)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울란바타르 지사에 따르면

✔ **(방한 상품 현황)** 몽골인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및 관심도에 따라 현지 여행사의 방한 상품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몽골인은 한국 방문 시 주로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인센티브 및 산업시찰, 엑스포 참가 그리고 바다 등 자연감상 투어를 선호함. 참고로 기존에는 서울 포함 수도권 중심 여행 상품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바닷가 등 자연풍경이 아름다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현재 몽골의 주요 방한 상품은 제주 중심의 단기 직항 상품을 비롯해 서울·부산·제주 주요 도시 연계상품, 동계 계절상품, 의료·웰니스 관광상품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제주 상품의 경우 울란바타르-

제주 간 직항편을 활용한 5일 내외의 단기 패키지가 반복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상품 가격은 시기 및 숙박 조건에 따라 성인 기준 399만~429만 투그릭 수준이며, 일부 회차가 매진으로 표시되는 등 직항 기반 제주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확인됨. 한편, 몽골인은 겨울철 혹한기를 피해 중국 하이난, 베트남, 태국 등 따뜻한 지역으로 휴양 목적의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지 여행사의 동계 상품도 해변·리조트 중심의 휴양형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음. 중국 하이난은 대표적인 해외여행 목적지로, 몽골 현지 여행사들이 전세기편 또는 직항편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이난 상품은 일반적으로 6~8일 내외의 일정에 항공권, 호텔, 식사 및 관광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현지 공개 상품 기준으로 대체로 약 250만~400만 투그릭대의 가격 범위에서 판매됨. 베트남의 경우 냐짱·푸꾸옥·하노이·하롱베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6~8일 일정에 약 360만~500만 투그릭 수준. 이외 태국은 방콕·파타야 및 푸켓을 중심으로 8일 상품이 약 530만~600만 투그릭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며, 직항 항공편과 리조트 숙박, 해변 휴양 및 자유시간을 결합한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몽골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86.6%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 78.9%]

⇒ 일반 몽골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54.0%), 한국 드라마(42.5%), 한국 영화(38.0%), 한국 뷰티(28.7%), 한국 패션(18.0%)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03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9.6%), 한국 드라마(17.6%), 한국 뷰티(17.2%)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39점 [전체 : 3.62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몽골인 1.8%(35,586명, 전년 대비 38.3% 증가)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7위 차지

⇒ 진료과별로는 '내과통합'(10,624명, 22.4%)이 가장 많고 '피부과'(6,160명, 13.0%), '검진센터'(4,928명, 10.4%), '안과'(4,925명, 10.4%), '성형외과'(3,515명, 7.4%) 등 순. 대부분

국가가 '피부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과 달리 몽골은 '내과통합'이 1위로, 미용보다 치료·검진 목적의 의료 관광 성격이 뚜렷

⇒ 주요 고객은 여성(24,692명, 69.4%)과 30대(9,365명, 26.4%) 및 40대(8,242명, 23.3%)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27,544명, 77.4%), 경기(3,769명, 10.6%), 인천(1,126명, 3.2%) 등 순으로 수도권 중심

2 해외여행 동향

2-1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몽골인 수는 2016년 21,408명, 2017년 23,365명, 2018년 27,647명, 2019년 31,513명, 2020년 7,118명, 2021년 1,685명, 2022년 19,267명, 2023년 39,916명, 2024년 53,049명, 2025년 63,468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몽골인은 0.1%의 비중을 차지, 전년 대비 19.6% 증가

2-2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몽골 내 세부 지역은 수도권(울란바타르), 서부(고비·호브드·오브스 등 5개 지역), 중부(다르항올·어문고비·오르홍 등 11개 지역), 동부(도르노드·도르노고비 등 5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몽골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41.5%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해외여행 경험률이 가장 낮음[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36.3%로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낮으며[전체 : 58.8%], 해외여행 의향자(n=169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2.0회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음[전체 : 3.8회]

⇒ 몽골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수도권(54.4%), 동부(43.6%), 중부(33.6%), 서부(26.1%)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수도권(41.1%), 동부(34.2%), 중부(33.8%), 서부(32.4%) 거주자 순으로 높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몽골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169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48.9%),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38.9%),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34.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영향력이 세 번째로 낮음[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몽골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175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54.3%),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35.2%),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34.1%)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와 '해외여행을 갈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선택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3 해외여행 트렌드

✔ **(동계 시즌 해외여행)** 몽골은 높은 해발고도(평균 1,300m)와 중앙아시아 내륙 위치로 인해 초대륙성 기후를 보임. 특히, 11월에서 3월까지 평균 기온이 영하 30℃까지 떨어지면서 한국, 베트남, 태국, 중국(하이난), 두바이, 인도네이시아(발리) 등으로의 여행 수요가 증가함. 이 중 '한국'의 경우 동계 시즌 뿐만 아니라 연중 수요가 고른 편인데, 의료관광, 웰니스 서비스 이용이 주된 목적임. '베트남'은 하노이의 역사·문화 기반의 도시 관광과 하롱베이·닌빈 등 인근 자연경관 연계 상품이 주된 강점으로, 특히 가족, 단체 중심의 가성비 패키지 수요가 높은 편임. '중국' 하이난은 리조트 및 스파 중심의 휴양 웰니스 특화 지역으로 가족 단위의 안정적 휴양 상품 수요가 큼. '태국' 방콕은 마사지 쇼핑 등 도심 기반의 복합형 상품들이 수요가 높고 파타야, 푸켓과의 멀티 데스티네이션 연계 패키지 판매가 활발해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객층에게 인기가 높음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울란바타르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몽골은 노동법에 따라 기본 유급휴가는 연간 15일이며, 고용연차에 따라

최대 29일까지 가능함(기업 휴가 시즌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없음). 현지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동계(날씨가 따뜻한 지역 방문 등) 휴가 신청률이 높은 편

✔ **(방학 현황)** 초·중·고의 겨울 방학 기간은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이며, 여름방학은 6~8월 임. 대학교는 여름방학은 6~8월이며, 겨울방학은 12~1월

✔ **(비자/규제 현황)** 몽골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65개국으로, 전 세계 73위(2025년 76위, 전년 대비 3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몽골인은 한국 입국 시 비자발급이 필요함. 참고로, 현재 몽골은 불법체류 다발국 21개국(법무부 고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실물·물가)** 2025년 몽골의 교역규모는 27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0.9% 감소(중국의 석탄 수요 감소 영향). 수출 157.6억 달러(-0.1%), 수입 113.9억 달러(-1.9%), 무역수지는 43.7억 달러 흑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7.9%·2024년 8.4%에서 2025년 10.1%로 상승(식료품·수입물가 상승).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12% 수준을 유지

✔ **(2025년 대외부문·투자)** 2025년 총 외채 잔액은 404.6억 달러, 정부부채는 GDP 대비 약 39.4%, 외환보유고는 73.3억 달러로 안정적 수준.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잔액은 362.3억 달러로 광업 중심(오유 톨고이 개발사업)이며, 국가별로는 네덜란드(44%)·중국(15%)·싱가포르(8%) 순. 석탄·광물 자원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기 변화에 민감한 구조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멕시코



251

요약 | 멕시코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방한 비중
(순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85,503명
(+47.7%)</td><td>0.5%
(21위)</td><td>인천공항
(86.6%)</td><td>부산항구
(3.6%)</td><td>20대 여성
(15.0%)</td><td>30대 여성
(13.1%)</td></tr>
<tr><td rowspan="6">한국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6">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9.3%</td><td>일본
(76.2%)</td><td>중국
(61.6%)</td><td>한국
(57.8%)</td><td>일본
(43.4%)</td><td>한국
(19.9%)</td><td>중국
(13.7%)</td></tr>
<tr><td colspan="2">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YouTube
(64.1%)</td><td>Facebook
(45.3%)</td><td>Expedia
(38.2%)</td><td>Booking.com
(37.0%)</td><td>여행지로 낮은 인지도
(25.9%)</td><td>한류 관심 부재
(21.7%)</td><td>경비/물가 부적합
(21.5%)</td></tr>
<tr><td rowspan="2">해외여행 수요</td><td>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2">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67.1%</td><td>64.3%</td><td>역사/문화 경험
(63.1%)</td><td>일상 벗어나기
(57.8%)</td><td>경제적 여유 부족
(58.3%)</td><td>경비/물가 상승
(41.1%)</td><td>국내여행 선호
(18.9%)</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멕시코인 수는 85,503명으로 전년 대비 47.7% 증가(2019년 대비 280.5% 회복). 주요 방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 기록

⇒ 2019년 30,481명, 2020년 5,726명, 2021년 3,472명, 2022년 8,676명, 2023년 22,141명, 2024년 57,888명, 2025년 85,503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멕시코인은 0.5%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21위를 기록

⇒ 2019년 0.2%(30위), 2020년 0.2%(31위), 2021년 0.4%(30위), 2022년 0.3%(35위), 2023년 0.2%(33위), 2024년 0.4%(23위), 2025년 0.5%(21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멕시코인의 방문 시기는 4월(9,977명), 10월(9,909명), 9월(8,869명), 7월(8,430명), 11월(7,927명), 8월(7,584명) 등 순. 봄·가을을 중심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멕시코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74,073명, 86.6%), '부산항구'(3,043명, 3.6%), '김해공항'(2,870명, 3.4%), '김포공항'(2,402명, 2.8%)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멕시코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11,638명, 15.0%), '30대 여성'(10,204명, 13.1%), '30대 남성'(9,747명, 12.5%) 등 순으로, 20~30대 청년층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내 세부 지역은 북부(누에보레온(몬테레이)·바하칼리포르니아(티후아나)·케레타로(산티아고데케레타로) 등 14개 지역), 남부(멕시코시티·킨타나로오(캉쿤)·유카탄(메리다) 등 9개 지역), 기타(할리스코(과달라하라)·푸에블라·베라크루스 등 9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멕시코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3%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4.0%p 하회함[전체 : 23.3%]

⇒ 멕시코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률은 남부(12.3%), 북부(9.4%), 기타 지역(6.9%)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멕시코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9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76.2%), 중국(61.6%), 한국(57.8%), 홍콩(50.3%), 태국(39.5%) 등 순[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멕시코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남부(62.2%), 북부(60.9%), 기타 지역(51.4%)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멕시코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260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43.4%), 한국(19.9%), 중국(13.7%), 태국(6.1%), 싱가포르(5.1%) 등을 꼽음[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기타 지역 49.6%, 남부 42.1%, 북부 37.7%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최우선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멕시코인(n=52명)이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중복응답 기준)은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영상 콘텐츠'(64.1%), '음식/식문화'(54.7%), '전통문화/역사'(45.6%) 등 순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멕시코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86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25.9%),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1.7%),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21.5%) 등을 주로 꼽음[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멕시코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2.2%),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37.1%),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5.8%)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멕시코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64.1%), 'Facebook'(45.3%), 'TikTok'(38.0%)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멕시코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Expedia'(38.2%), 'Booking.com'(37.0%), 'Despegar.com Mexico'(33.0%)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멕시코시티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2024년 8월 1일자로 한국-멕시코 간 직항이 재개됨에 따라, 항공료 인하 및 비행 시간이 단축이 이뤄지면서 멕시코 현지 여행사를 중심으로 신규 방한 상품 개발 판촉활동이 급증하고 있음. 방한 상품의 주된 테마는 K-pop 관람, 음식 체험 등이며, 최소 7박 9일 이상 장기 체류하며 3천 달러 대 고가 상품(USD3,300, 약 458만원, 항공료 미포함/항공료 포함 시 약 600만원)을 주로 선호함. 한편, 한국으로의 직항 재개로 항공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일본 여행(일본행 항공편 가격은 한국행 직항 항공편 보다 약 1.5배~2배 비쌈) 보다 한국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참고로 멕시코 여행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해외여행 상품들은 항공권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해외여행 일정에 따라 항공권을 개별 구매하는 형태를 띰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멕시코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86.3%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전체 : 78.9%]

⇒ 일반 멕시코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드라마(45.4%), 한국 음식(44.3%), 한국 영화(40.1%), 한국 뷰티(35.5%), 한국 대중가요(32.9%)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01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드라마(24.2%), 한국 음식(16.8%), 한국 뷰티(12.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드라마' 최선호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59점 [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멕시코인(멕시코시티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68.8%[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2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2.4%[전체 : 93.1%]. 전년(61.2%) 대비 방문 경험률 상승 폭(+7.6%p)이 두바이 거주자와 동일하게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39.7%), 김치(23.6%), 김치볶음밥(22.5%), 만두(21.4%), 라면(19.6%)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멕시코인은 0.1%(2,186명, 전년 대비 133.3%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27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1,455명), 내과통합(226명), 성형외과(151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1,958명)이며, 이어 인천(90명), 부산(62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멕시코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8.0%[전체 : 82.3%], 전년(83.6%) 대비 4.4%p 상승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57.6%), 제품 및 브랜드(29.8%), 현대생활문화(29.4%), 경제 수준(23.3%), 과학기술(20.9%)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멕시코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25.7%), 한국 드라마(10.6%), 한국 음식(9.2%), 뷰티 제품/화장품(6.0%) 등 순[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멕시코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20,223천 명, 2017년 19,067천 명, 2018년 19,748천 명, 2019년 19,810천 명, 2020년 7,345천 명, 2021년 11,685천 명, 2022년 13,750천 명, 2023년 16,000천 명, 2024년 18,817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4년 기준 2019년의 95.0% 수준 기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멕시코인 수는 2016년 43,509명, 2017년 63,440명, 2018년 68,448명, 2019년 71,745명, 2020년 9,528명, 2021년 1,124명, 2022년 9,152명, 2023년 94,684명, 2024년 151,835명, 2025년 200,395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멕시코인은 0.5%의 비중을 차지, 전년 대비 32.0% 증가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내 세부 지역은 북부(누에보레온(몬테레이)·바하칼리포르니아(티후아나)·케레타로(산티아고데케레타로) 등 14개 지역), 남부(멕시코시티·킨타나로오(캉쿤)·유카탄(메리다) 등 9개 지역), 기타(할리스코(과달라하라)·푸에블라·베라크루스 등 9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멕시코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7.1%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전체 평균을 7.4%p 하회함[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64.3%[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99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6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멕시코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남부(71.1%), 북부(68.8%), 기타 지역(62.5%)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남부(65.5%), 북부(63.9%), 기타 지역(63.8%) 거주자 순으로 높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멕시코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9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63.1%),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7.8%),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33.6%)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멕시코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89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58.3%),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41.1%),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18.9%)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2022년 12월 27일에 멕시코 정부는 노동법 76조 및 78조를 개정하면서 휴가 일수를 기존 6일에서 12일로 2배 확대한다고 발표함(2023년 1월부터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휴가일수는 1년 차 12일로 시작해 20일까지 근속연수마다 2일씩 추가되며, 이후 6~10년 차에는 22일, 11~15년 차에는 24일이 주어짐. 위 개정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음. 단, 멕시코인의 휴가 일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장기준인 연간 18일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며, 인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 15일 이상)

✔ **(방학 현황)** 8월 학기체재로, 11월 20일 가을방학(혁명기념일, 1일), 12월 말~1월 초 겨울방학(크리스마스 전후~새해 첫날, 2주), 3월 말~4월 초 봄방학(부활절 전후, 2주), 그리고 7월 말~8월 말 여름방학(1달)

✔ **(비자/규제 현황)** 멕시코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57개국으로, 전 세계 22위(2025년 22위, 전년과 동일,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멕시코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 ~ 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2026년 성장·투자)** 멕시코 경제는 2025년 성장 둔화 국면을 지나 2026년 1%대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됨(IMF 1.6% 전망). 다만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공동검토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고정투자는 2026년 2월 기준 18개월 연속 감소세. 2026년 민간소비는 FIFA 북중미 월드컵 개최 효과(관광부 추산 방문객 550만 명·약 35억 달러 효과)와 고용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카자흐스탄



261

요약 | 카자흐스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
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 colspan="2">방한 비중
(순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64,990명
(+18.4%)</td><td colspan="2">0.3%
(24위)</td><td>인천공항
(94.4%)</td><td>김포공항
(2.0%)</td><td>20대 여성
(15.4%)</td><td>30대 여성
(12.4%)</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4">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7.0%</td><td>태국
(57.7%)</td><td>중국
(57.4%)</td><td>한국
(47.2%)</td><td>중국
(21.3%)</td><td>베트남
(20.4%)</td><td>한국
(20.0%)</td></tr>
<tr><td colspan="2">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YouTube
(50.2%)</td><td>Instagram
(47.5%)</td><td>Kaspi Travel
(45.8%)</td><td>AirAstana
(31.4%)</td><td>경비/물가
부적합
(40.5%)</td><td>여행지로서
낮은 인지도
(35.4%)</td><td>원하는
여행상품
부족
(24.4%)</td></tr>
<tr><td rowspan="2">해외
여행
수요</td><td>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2">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60.9%</td><td>36.2%</td><td>역사/문화
경험
(59.5%)</td><td>일상
벗어나기
(47.1%)</td><td>경제적
여유 부족
(69.2%)</td><td>경비/물가
상승
(29.5%)</td><td>개인
건강문제
(20.5%)</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카자흐스탄인 수는 64,990명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2019년 대비 122.7% 회복)

⇒ 2019년 52,966명, 2020년 10,240명, 2021년 7,212명, 2022년 30,273명, 2023년 46,874명, 2024년 54,893명, 2025년 64,990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카자흐스탄인은 0.3%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24위를 기록

⇒ 2019년 0.3%(22위), 2020년 0.4%(25위), 2021년 0.7%(19위), 2022년 0.9%(22위), 2023년 0.4%(24위), 2024년 0.3%(25위), 2025년 0.3%(24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카자흐스탄인의 방문 시기는 8월(7,222명), 7월(6,269명), 3월(6,267명), 4월(6,044명), 10월(6,014명) 등 순. 통상적으로 카자흐스탄인의 한국 방문은 여름방학 시즌인 5월 말~8월 말에 집중되는 경향이나, 2025년에는 봄·가을에도 고르게 분산됨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카자흐스탄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61,371명, 94.4%), '김포공항'(1,276명, 2.0%), '김해공항'(1,062명, 1.6%) 등 순으로, 인천공항 집중도가 매우 높음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카자흐스탄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9,299명, 15.4%), '30대 여성'(7,476명, 12.4%), '40대 여성'(6,215명, 10.3%), '10대 여성'(6,203명, 10.3%) 등 순으로, 20~40대 여성층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표하는 「외래관광객 조사」에서 '중동인'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다양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방한한 외래객을 포함함. 이에 카자흐스탄인의 방한여행 행태 대체자료로 중동인 통계값을 사용함

✔ **(재방문율)** 방한 중동인의 재방문율은 49.4%[전체 : 56.6%], 평균 방한 횟수는 2.6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중동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41.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35.8%),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7.9%)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중동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43.4%), 사업 또는 전문활동(35.9%), 친구/친지 방문(13.4%), 교육(5.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사업 또는 전문활동'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여가/위락/휴식' 비중은 세 번째로 낮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중동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5.5%)과 단체여행(4.2%)이며, 에어텔은 0.3%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중동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7.3%), 경기(20.3%), 부산(13.1%), 인천(11.7%), 제주(4.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인천' 방문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중동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76.4%),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19.2%), 지방 한정(4.4%)으로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중동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77.3%), 식도락 관광(61.0%), 자연경관 감상(50.0%),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48.8%), 비즈니스 전문활동(32.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비즈니스 전문활동'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중동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6.8%), 대형쇼핑몰(50.2%), 백화점(38.3%), 전통시장(19.2%) 등 순[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중동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5.6%), 의류(55.0%), 식료품(35.0%), 신발류(27.5%), 보석/악세서리(24.1%)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중동인은 한국에 평균 9.6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716.6[전체 : USD 1,801.9] 및 1일 평균 USD 355.1[전체 : USD 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중동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8%[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87.8%[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7.5%[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 세부 지역은 북서부(파블로다르주·북카자흐스탄주·아크몰라주/아스타나시 등 8개 지역), 중부(동카자흐스탄주·아바이주·카라간다주 등 4개 지역), 남부(알마티주/알마티시·제티수주·잠블주 등 5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카자흐스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7.0%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6.3%p 하회함[전체 : 23.3%]

⇒ 카자흐스탄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률은 중부(9.5%), 남부(7.0%), 북서부(5.5%)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카자흐스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168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태국(57.7%), 중국(57.4%), 한국(47.2%), 베트남(46.9%), 일본(41.1%) 등 순. '태국'·'중국'·'베트남'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목적지에 대한 방문 의향이 전체 평균을 하회[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카자흐스탄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중부(52.1%), 남부(47.7%), 북서부(42.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카자흐스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146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중국(21.3%), 베트남(20.4%), 한국(20.0%), 태국(19.4%), 일본(9.2%)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베트남' 최우선 방문 의향이 첫 번째로, '중국'·'태국'이 세 번째로 높은 반면 '일본'은 가장 낮게 나타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세부 지역별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가 상이하였는데, 남부 거주자는 '베트남'(23.9%)을, 중부 거주자는 '한국'(29.2%)과 '베트남'(28.0%)을, 북서부 거주자는 '태국'(32.4%)을 가장 많이 꼽음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카자흐스탄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42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40.5%),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35.4%), '원하는 한국 여행 상품이 없어서/부족해서'(24.4%)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적당하지 않은 여행경비 및 물가'와 '원하는 한국 여행 상품 부족'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카자흐스탄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33.3%), '주변 사람 추천'(30.3%),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29.6%)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카자흐스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50.2%), 'Instagram'(47.5%), 'TikTok'(33.2%)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카자흐스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Kaspi Travel'(45.8%), 'AirAstana'(31.4%), 'Booking.com'(25.6%)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알마티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Fun&Sun(TUI), KazUnion, Complete Service, Transavia 등 카자흐스탄 주요 여행사들은 최근 K-ETA 이슈로 인해 정규 방한 상품을 상시 판매하지는 않고 있으며, 고객들이 '방한'을 문의할 경우에만 개인 맞춤형으로 일정을 구성해 주고 있는 실정임. 최근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상품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직항노선 확대로 하이난 등 방중 카자흐스탄 관광객이 늘고 있음. 현재 알마티 지사와 협업하는 Sweatberry Tours, Campit, QTravel 등 개인 수요 맞춤형 기획 상품 전문 여행사(Boutique Travel Agency)들은 한국-일본, 한국-중국 등 2개국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카자흐스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83.2%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전체 : 78.9%]

⇒ 일반 카자흐스탄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57.3%), 한국 영화(42.6%), 한국 드라마(38.5%), 한국 뷰티(31.0%), 한국 대중가요(25.8%)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387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34.2%), 한국 드라마(17.7%), 한국 영화(13.0%)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40점 [전체 : 3.62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카자흐스탄인은 0.8%(15,188명. 전년 대비 4.9% 증가) 차지,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13위 기록

⇒ 주요 진료 과목은 내과통합(7,441명), 검진센터(5,416명), 피부과(1,736명) 등 순. 미용 이외 일반내과 및 검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 주요 고객은 여성(9,514명, 62.6%)이며, 연령대는 40대(3,344명, 22.1%), 60대 이상(2,847명, 18.8%), 30대(2,776명, 18.3%), 50대(2,564명, 16.9%) 등 비교적 고른 편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9,719명), 경기(3,126명), 인천(1,153명) 등 수도권 중심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카자흐스탄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6.2%[전체 : 82.3%]. 전년(87.4%) 대비 1.2%p 하락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제품 및 브랜드(42.6%), 문화콘텐츠(35.4%), 의료(27.4%), 현대생활문화(24.9%), 경제 수준(24.5%)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의료'는 첫 번째로, '제품 및 브랜드'는 두 번째로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카자흐스탄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한국 음식(19.7%), K-pop(10.3%), 뷰티 제품(8.6%), 자동차와 IT제품·브랜드(각 7.3%)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음식' 연상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카자흐스탄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9,756천 명, 2017년 10,261천 명, 2018년 10,646천 명, 2019년 10,707천 명, 2020년 2,865천 명, 2021년 3,501천 명, 2022년 7,670천 명

⇒ 지표 : outbound trips – total – visitors – 방문객 전체(숙박+당일) 기준(단위 천 명)

⇒ 2023년 이후 값은 원자료에 미수록

2-2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 세부 지역은 북서부(파블로다르주·북카자흐스탄주·아크몰라주/아스타나시 등 8개 지역), 중부(동카자흐스탄주·아바이주·카라간다주 등 4개 지역), 남부(알마티주/알마티시·제티수주·잠블주 등 5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카자흐스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0.9%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면서 전체 평균을 13.6%p 하회함[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36.2%로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으며[전체 : 58.8%], 해외여행 의향자(n=168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4.0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카자흐스탄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남부(64.9%), 중부(59.9%), 북서부(57.0%)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은 중부(40.0%), 남부(38.6%), 북서부(31.1%) 거주자 순으로 높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카자흐스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168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9.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47.1%),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위해'(39.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위해'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카자흐스탄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91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69.2%),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29.5%), '건강상(체력상)의 문제로'(20.5%)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3 해외여행 트렌드

✔ **(중동 정세 불안과 해외여행 시장 변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과 이란 영공 폐쇄로 인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방문 수요가 감소하고, 해당 수요가 이집트, 베트남 등으로 대체되고 있음. 카자흐스탄 여행사인 Kaztou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패키지상품 시장 점유율은 이집트(25%) > 튀르키예(21%) > 베트남(18%) > 태국(16%) > 카타르(8%) 순이었으나, 2026년 1~4월 기간에는 이집트(34%) > 베트남(33%) > 튀르키예(17%) > 태국(10%) 순으로 시장 판도가 뒤바뀌었다고 밝힘. 먼저 이집트의 경우 이동 거리가 짧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특히 올인클루시브 리조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베트남의 경우 최근 직항 노선이 증편된 것 이외 높은 가성비와 '아시아'라는 새로운 목적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모든 목적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보임. 참고로 하계 휴가 시즌 패키지 상품 가격은 이집트는 2인 기준 80만 텡게(약 240만 원)부터, 베트남 다낭은 2인 기준 73만 텡게(약 220만 원)부터 시작됨

✔ **(신규 취항과 하계 여행 목적지 다양화)** 2026년에 들어 다양한 직항 노선이 신규 취항하면서 기존 하계 휴가시즌 인기 목적지인 튀르키예(안탈리아, 보드룸) 이외 아웃바운드 목적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일례로 2026년에 지중해 연안 남키프로스 라르나카행 직항 노선이 아스타나(6.2.~)와 알마티(6.4.~)에서 각각 주 2회 신규 취항 시작함. 아스타나-광저우 및 아스타나-시안, 아스타나-우루무치 등 중국 노선 확대로 중국 패키지 여행이 증가함. 카자흐스탄 저비용 항공사 SCAT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텔아비브 등 유럽 노선이 확대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알마티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카자흐스탄의 노동법 상 기본 유급휴가는 24일임. 기업의 휴가 시즌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음. 한편,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초·중·고 방학 기간 중에 장기 휴가를 신청함

✔ **(방학 현황)** 초·중·고의 방학기간은 여름방학이 3개월(5월 말~8월 말)로 가장 길고, 겨울(12월 말~1월 초), 가을(11월) 및 봄(3월)에 약 10일간의 짧은 방학을 실시함. 대학교의 방학기간은 여름방학 3개월(6월~8월), 겨울방학(12월 말~1월 초)은 10일

✔ **(비자/규제 현황)** 카자흐스탄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78개국으로, 전 세계 61위(2025년 67위, 전년 대비 6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카자흐스탄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3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 참고로, 현재 카자흐스탄은 불법체류 다발국 21개국(법무부 고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원유 매장량 322.5억 배럴·세계 24위)이자 우라늄·크롬·구리 등 다수 광물이 세계 10위 내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3.6%, 2023년 5.0%, 2024년 4.8%를 기록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석유 생산·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5년 연간 5.1% 전망)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네덜란드



273

요약 | 네덜란드

<table>
<tr><th>구분</th><th colspan="8">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
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 colspan="2">방한 비중
(순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62,695명
(+13.9%)</td><td colspan="2">0.3%
(25위)</td><td>인천공항
(79.8%)</td><td>김해공항
(11.8%)</td><td>20대 여성
(16.2%)</td><td>20대 남성
(14.7%)</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4">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3.8%</td><td>인도네시아
(32.5%)</td><td>일본
(31.7%)</td><td>태국
(27.9%)</td><td>인도네시아(2
5.1%)</td><td>일본
(20.1%)</td><td>태국
(14.4%)</td></tr>
<tr><td colspan="2">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YouTube
(48.7%)</td><td>Instagram
(30.0%)</td><td>Booking.
com
(57.5%)</td><td>Skyscanner
(28.3%)</td><td>여행지로서
낮은 인지도
(40.9%)</td><td>한류 관심
부재
(29.8%)</td><td>먼 이동거리
(23.4%)</td></tr>
<tr><td rowspan="2">해외
여행
수요</td><td>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2">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96.5%</td><td>63.4%</td><td>여유로운
일상
(73.0%)</td><td>역사/문화
경험
(55.8%)</td><td>해외여행
무관심
(41.3%)</td><td>경제적
여유 부족
(39.8%)</td><td>경비/물가
상승
(31.5%)</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네덜란드인 수는 62,6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2019년 대비 160.2% 회복)

⇒ 2019년 39,138명, 2020년 12,521명, 2021년 13,434명, 2022년 25,651명, 2023년 49,225명, 2024년 55,038명, 2025년 62,695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네덜란드인은 0.3%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25위를 기록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네덜란드인의 방문 시기는 4월(7,228명), 7월(6,924명), 8월(6,891명), 10월(6,408명), 5월(6,388명), 9월(6,184명) 등 순으로, 동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네덜란드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50,038명, 79.8%), '김해공항'(7,379명, 11.8%), '김포공항'(1,868명, 3.0%)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네덜란드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8,043명, 16.2%), '20대 남성'(7,264명, 14.7%), '30대 남성'(6,453명, 13.0%) 등 순으로, 20대 청년층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세부 지역은 북부(흐로닝언 등 3개 지역), 동부(헬데를란트 등 3개 지역), 서부(노트르홀란트(암스테르담) 등 3개 지역), 남부(노르트브라반트 등 3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네덜란드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3.8%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음[전체 : 23.3%]

⇒ 네덜란드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률은 서부(5.7%), 남부(3.8%), 동부(2.1%), 북부(2.0%)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네덜란드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5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인도네시아(32.5%), 일본(31.7%), 태국(27.9%), 싱가포르(20.4%), 말레이시아(18.5%), 베트남(18.2%), 중국(15.4%), 필리핀(14.5%), 한국(14.0%) 등 순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이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가장 낮음[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네덜란드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서부(19.4%), 북부(14.3%), 동부(11.5%), 남부(9.1%)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네덜란드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174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인도네시아(25.1%), 일본(20.1%), 태국(14.4%), 싱가포르(6.7%), 인도(6.6%), 중국(6.0%), 한국(5.3%)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인도네시아' 최우선 방문 의향은 가장 높았으나,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남부·북부 거주자는 '인도네시아'(각 37.0%, 34.8%)를, 서부·동부 거주자는 '일본'(각 20.5%, 17.7%)을 가장 많이 선택함(※ 북부는 30 표본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네덜란드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203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40.9%),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29.8%), '먼 이동거리'(23.4%)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선택자(n=83명)는 인지도가 낮은 이유(1+2+3순위 기준)로 '자국에서 인기 해외여행 목적지로 손꼽히는 곳이 아님'(49.8%), '한국 또는 한국 여행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음'(49.0%), '주변에 한국 여행 경험자가 없음'(45.4%) 등을 주로 꼽음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네덜란드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37.7%),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34.4%), '주변 사람 추천'(29.0%)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네덜란드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48.7%), 'Instagram'(30.0%), 'TikTok'(25.6%)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네덜란드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Booking.com'(57.5%), 'Skyscanner'(28.3%), 'TUI.nl'·'Trivago'(각 28.1%) 등을 주로 활용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네덜란드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47.1%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음[전체 : 78.9%]

⇒ 일반 네덜란드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음식(21.5%), 한국 영화(14.8%), 한국 드라마(14.3%), 한국 대중가요(13.9%), 한국 뷰티(9.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음식'·'한국 드라마'·'한국 뷰티' 경험률은 첫 번째로, '한국 영화'·'한국 대중가요'는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219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28.3%), 한국 드라마(14.4%), 한국 대중가요(11.6%)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26점[전체 : 3.62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네덜란드인은 0.1%(2,169명, 전년 대비 73.7%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25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1,723명), 내과통합(262명), 성형외과(230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2,436명)이며, 이어 부산(68명), 인천(47명) 등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네덜란드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18,152천 명, 2017년 20,763천 명, 2018년 20,981천 명, 2019년 22,045천 명, 2020년 7,667천 명, 2021년 11,601천 명, 2022년 23,146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3년 이후 값은 원자료에 미수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네덜란드인 수는 2016년 58,249명, 2017년 63,041명, 2018년 72,069명, 2019년 79,479명, 2020년 8,481명, 2021년 1,860명, 2022년 12,064명, 2023년 74,486명, 2024년 102,981명, 2025년 133,093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네덜란드인은 0.3%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2% 증가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세부 지역은 북부(흐로닝언 등 3개 지역), 동부(헬데를란트 등 3개 지역), 서부(노트르홀란트(암스테르담) 등 3개 지역), 남부(노르트브라반트 등 3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네덜란드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6.5%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63.4%[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95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4.3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네덜란드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남부(99.4%), 서부(98.1%), 동부(94.0%), 북부(92.1%)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남부(68.5%), 서부(63.4%), 동부(60.7%), 북부(59.8%) 거주자 순으로 높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네덜란드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5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73.0%),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55.8%),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50.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함[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네덜란드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78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41.3%),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39.8%),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31.5%)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방학 현황)** 네덜란드는 휴가철 교통 혼잡과 관광지 과밀을 방지하고자, 북부-남부-중부 등 권역 단위로 여름 방학 시기를 나눠 운영하고 있음(예. 북부 7월 4일~8월 16일 → 남부 7월 11일~8월 23일 → 중부 7월 18일~8월 30일 순). 이 중 7월 중순~8월 중순 기간이 최대 휴가 시즌인데, 통상 2~3주 가량의 장기 휴가를 냄. 한편, 법정 최소 유급휴가는 주 5일 근무 기준 연 20일임

✔ **(비자/규제 현황)** 네덜란드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6개국으로, 전 세계 4위(2025년 4위, 전년과 동일,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네덜란드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 ~ 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2026년)** 네덜란드 중앙계획국(CPB)은 2026년 GDP 성장률을 1.4%로 전망(정부 지출 확대·임금 상승·가계 실질소득 증가가 회복 요인). 민간소비는 임금 상승·세금 인하에 힘입어 완만히 확대(2025년 7월 소비지출 전년 동월 대비 +1.3%)되었으나, 소비자 신뢰지수는 여전히 낮은 편. 제조업은 약세로 2025년 7월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화학·반도체 장비 부진)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튀르키예



283

요약 | 튀르키예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 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방한 비중
(순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60,202명
(+30.8%)</td><td>0.3%
(26위)</td><td>인천공항
(88.6%)</td><td>김포공항
(4.5%)</td><td>20대 여성
(16.8%)</td><td>30대 남성
(14.1%)</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4">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7.8%</td><td>일본
(63.9%)</td><td>중국
(47.5%)</td><td>한국
(46.0%)</td><td>일본
(37.2%)</td><td>한국
(16.6%)</td><td>태국
(9.4%)</td></tr>
<tr><td colspan="2">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YouTube
(63.6%)</td><td>Instagram
(57.2%)</td><td>Trivago.com.tr
(39.7%)</td><td>Turkishairlines.com
(30.9%)</td><td>불편한 언어소통
(30.1%)</td><td>먹을거리 부족
(24.3%)</td><td>먼 이동거리
(23.5%)</td></tr>
<tr><td rowspan="2">해외 여행 수요</td><td colspan="2">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2">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 colspan="2">60.8%</td><td>55.9%</td><td>역사/문화 경험
(62.8%)</td><td>여유로운 일상
(43.3%)</td><td>경제적 여유 부족
(47.8%)</td><td>경비/물가 상승
(41.4%)</td><td>원하는 여행상품 부족
(24.1%)</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튀르키예인 수는 60,202명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2019년 대비 192.4% 회복)

⇒ 2019년 31,293명, 2020년 6,560명, 2021년 5,323명, 2022년 18,051명, 2023년 31,748명, 2024년 46,027명, 2025년 60,202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튀르키예인은 0.3%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26위를 기록

⇒ 2019년 0.2%(28위), 2020년 0.3%(27위), 2021년 0.6%(22위), 2022년 0.6%(27위), 2023년 0.3%(29위), 2024년 0.3%(28위), 2025년 0.3%(26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튀르키예인의 방문 시기는 4월(7,100명), 8월(6,300명), 9월(6,022명), 10월(6,007명), 7월(5,982명), 11월(5,803명) 등 순으로, 겨울을 제외하고 비교적 연중 고른 편임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튀르키예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53,345명, 88.6%), '김포공항'(2,718명, 4.5%), '김해공항'(1,212명, 2.0%), '기타항구'(1,210명, 2.0%)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튀르키예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8,233명, 16.8%), '30대 남성'(6,918명, 14.1%), '30대 여성'(6,162명, 12.6%), '20대 남성'(5,736명, 11.7%) 등 순으로, 20~30대 청년층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표하는 「외래관광객 조사」에서 '중동인'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다양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방한한 외래객을 포함함. 이에 튀르키예인의 방한여행 행태 대체자료로 중동인 통계값을 사용함

✔ **(재방문율)** 방한 중동인의 재방문율은 49.4%[전체 : 56.6%], 평균 방한 횟수는 2.6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중동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41.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35.8%),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7.9%)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중동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43.4%), 사업 또는 전문활동(35.9%), 친구/친지 방문(13.4%), 교육(5.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사업 또는 전문활동'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여가/위락/휴식' 비중은 세 번째로 낮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중동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5.5%)과 단체여행(4.2%)이며, 에어텔은 0.3%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중동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7.3%), 경기(20.3%), 부산(13.1%), 인천(11.7%), 제주(4.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인천' 방문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중동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76.4%),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19.2%), 지방 한정(4.4%)으로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중동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77.3%), 식도락 관광(61.0%), 자연경관 감상(50.0%),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48.8%), 비즈니스 전문활동(32.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비즈니스 전문활동'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중동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6.8%), 대형쇼핑몰(50.2%), 백화점(38.3%), 전통시장(19.2%) 등 순[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중동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5.6%), 의류(55.0%), 식료품(35.0%), 신발류(27.5%), 보석/악세서리(24.1%)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중동인은 한국에 평균 9.6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716.6[전체 : USD 1,801.9] 및 1일 평균 USD 355.1[전체 : USD 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중동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8%[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87.8%[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7.5%[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튀르키예 내 세부 지역은 북동부(가즈안테프·트라브존·에르주룸 등 40개 지역), 중부(앙카라·안탈리아·콘야 등 22개 지역), 서부(이스탄불·이즈미르·부르사 등 19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튀르키예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7.8%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5.5%p 하회함[전체 : 23.3%]
  - ⇒ 튀르키예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률은 서부(10.9%), 북동부(6.6%), 중부(5.0%)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튀르키예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60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63.9%), 중국(47.5%), 한국(46.0%), 홍콩(40.2%), 태국(39.6%) 등 순[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 튀르키예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해외여행 의향자 기준)은 서부(51.5%), 북동부(43.6%), 중부(40.5%)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튀르키예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202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37.2%), 한국(16.6%), 태국(9.4%) 등을 꼽음[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중부 39.0%, 서부 36.7%, 북동부 35.7% 순). 한편, 서부 거주자의 경우 '한국' 선택 비중(21.6%)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최우선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튀르키예인(n=34명)이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중복응답 기준)은 '자연경관'(65.0%), '대중매체'(64.9%),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영상 콘텐츠'(43.0%) 등 순
-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튀르키예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80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30.1%), '먹을거리 부족'(24.3%), '먼 이동거리'(23.5%)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먹을거리 부족' 영향력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튀르키예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31.5%), '여행 관련 블로그 방문'(31.2%),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27.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여행 관련 블로그 방문'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튀르키예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63.6%), 'Instagram'(57.2%), 'Netflix'(23.4%)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튀르키예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Trivago.com.tr'(39.7%), 'Turkishairlines.com'(30.9%), 'Etstur.com'(25.1%)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두바이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GOA 여행사 등 튀르키예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한 여행 상품들은 주로 6박 8일 일정(서울, 부산, 경주, 강원)에 1박 단가는 USD450(약 62만원) 대로, 일본 상품(동일 기간, 1박 단가 약 USD 500 이상, 약 69만 원 이상) 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한국 방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여행사에서는 기존 일본+한국 묶음 상품 중심에서 뷰티, 웰니스 중심의 한국 단독 상품 판매가 본격화하는 단계임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튀르키예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79.2%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전체 : 78.9%]

⇒ 튀르키예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드라마(40.4%), 한국 영화(38.8%), 한국 음식(32.0%), 한국 뷰티(27.8%), 한국 대중가요(27.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음식' 경험률이 세 번째로 낮음[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368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드라마(22.4%), 한국 영화(18.3%), 한국 뷰티(16.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영화'

최선호 비중은 첫 번째로, '한국 뷰티'는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53점 [전체 : 3.62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튀르키예인은 0.1%(1,714명, 전년 대비 146.3%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30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1,064명), 내과통합(155명), 성형외과(119명) 등 순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1,497명)이며, 이어 인천(63명), 부산(54명)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튀르키예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90.2%[전체 : 82.3%]로, 조사 대상국 중 4위 기록. 전년(87.2%) 대비 +3.0%p 상승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40.3%), 제품 및 브랜드(32.5%), 경제 수준(30.5%), 현대생활문화(23.9%), 전통문화유산(23.1%) 등을 꼽음. 조사 대상국 중 '경제 수준'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튀르키예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한국 전쟁(10.6%), 한국 드라마(10.1%), K-pop(10.0%), 한국 영화(7.3%), 뷰티 제품/화장품(7.0%)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전쟁' 연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튀르키예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7,892천 명, 2017년 8,887천 명, 2018년 8,383천 명, 2019년 9,651천 명, 2020년 2,243천 명, 2021년 2,738천 명, 2022년 7,267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3년 이후 값은 원자료에 미수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튀르키예인 수는 2016년 18,155명, 2017년 19,123명, 2018년 19,762명, 2019년 22,724명, 2020년 2,886명, 2021년 1,161명, 2022년 7,129명, 2023년 31,198명, 2024년 62,099명, 2025년 107,730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튀르키예인은 0.3%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73.5% 증가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튀르키예 내 세부 지역은 북동부(가즈안테프·트라브존·에르주룸 등 40개 지역), 중부(앙카라·안탈리아·콘야 등 22개 지역), 서부(이스탄불·이즈미르·부르사 등 19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튀르키예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0.8%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전체 평균을 13.7%p 하회함[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55.9%[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60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4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튀르키예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서부(69.1%), 중부(60.6%), 북동부(50.1%)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서부(60.2%), 중부(56.5%), 북동부(49.4%) 거주자 순으로 높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튀르키예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60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62.8%),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43.3%),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34.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영향력이 두 번째로 낮음[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튀르키예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97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47.8%),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41.4%), '내가 원하는 여행 상품이 없어서/부족해서'(24.1%)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내가 원하는 여행 상품이 없어서/부족해서' 선택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2-4 해외여행 트렌드

✔ **(실속형 무비자 여행 선호)** 2026년에 들어 불안정한 중동 시장 분위기로 인해 튀르키예 아웃바운드 시장은 안전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거리보다는 인접 국가 위주의 지역 내 여행을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함. 특히, 비자 발급의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튀르키예 여행객들의 선택이 주로 무비자 목적지에 집중되고 있음

✔ **(해외여행 증가와 "럭셔리 드롭인" 선호)**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해외여행 구매력이 확대되는 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여행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다만 튀르키예는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관광비가 급등하면서 일부 해외 목적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예외적인 사례가 나타남. 이에 2025년 기준 튀르키예인의 해외여행 규모는 1,1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47% 증가하였음. 2026년에도 응답자의 77%가 작년 수준 또는 더 많은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됨. 관련해 주요 트렌드로서 여행 중단 하루라도 고급 호텔이나 스파에서 투숙하는 '럭셔리 드롭인(Luxury drop-in)' 컨셉이 주목받고 있음. 즉, 전형적인 저가 여행보다는 특정 시점에 확실한 보상을 주는 '부분적 럭셔리' 선호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두바이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튀르키예는 근무기간별로 1~5년은 최소 14일, 6~14년은 최소 20일, 15년 이상은 최소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 한편, 튀르키예인의 최대 명절은 희생절(7월)

✔ **(방학 현황)** 초·중·고의 방학은 6월 중순~9월 중순(3개월), 1월 중순~2월 초까지(2주) 임. 대학교의 방학은 6월 중순~9월 중순(3개월), 1월 중순~2월 중순(3~4주)

✔ **(비자/규제 현황)** 튀르키예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13개국으로, 전 세계 48위(2025년 49위, 전년 대비 1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튀르키예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 ~ 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4~2025년)** 2024년 튀르키예 GDP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조 3,223억 달러를 기록. 2025년 들어 1분기 2.0%, 2분기 4.8%로 성장세가 가속화되었으며(제조업·건설업 회복), 세계은행은 2025년 연간 성장률을 3.5%로 전망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브라질



295

요약 | 브라질

<table>
<tr><th>구분</th><th colspan="8">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
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 colspan="2">방한 비중
(순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41,607명
(+25.0%)</td><td colspan="2">0.2%
(33위)</td><td>인천공항
(79.0%)</td><td>김포공항
(5.8%)</td><td>30대 여성
(14.8%)</td><td>30대 남성
(14.2%)</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8">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6.1%</td><td>일본
(70.7%)</td><td>한국·중국
(각 49.6%)</td><td>태국
(43.4%)</td><td>일본
(39.4%)</td><td>한국
(16.8%)</td><td>태국
(16.2%)</td></tr>
<tr><td colspan="2">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YouTube
(71.7%)</td><td>Instagram
(57.4%)</td><td>Booking.
com
(65.2%)</td><td>Decolar.
com
(56.0%)</td><td>불편한
언어소통
(37.2%)</td><td>한류 관심
부재
(32.1%)</td><td>여행지로서
낮은 인지도
(21.1%)</td></tr>
<tr><td rowspan="2">해외
여행
수요</td><td>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2">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58.3%</td><td>62.7%</td><td>일상
벗어나기
(73.3%)</td><td>역사/문화
경험
(73.0%)</td><td>경제적
여유 부족
(63.6%)</td><td>경비/물가
상승
(38.1%)</td><td>국내여행
선호
(36.1%)</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브라질인 수는 41,607명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2019년 대비 174.9% 회복)

⇒ 2019년 23,788명, 2020년 3,954명, 2021년 1,683명, 2022년 8,609명, 2023년 22,854명, 2024년 33,292명, 2025년 41,607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브라질인은 0.2%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33위를 기록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브라질인의 방문 시기는 10월(4,967명), 4월(4,511명), 3월(4,012명), 9월(3,751명), 5월(3,656명) 등 순으로, 봄·가을에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브라질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32,856명, 79.0%), '김포공항'(2,415명, 5.8%), '김해공항'(2,316명, 5.6%), '부산항'(1,469명, 3.5%) 등 순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브라질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30대 여성'(5,557명, 14.8%), '30대 남성'(5,336명, 14.2%), '20대 여성'(4,466명, 11.9%), '40대 남성'(4,359명, 11.6%) 등 순으로, 20~40대에 고르게 분포

1-2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내 세부 지역은 북부/북동부(리오그란데두노르치 등 16개 지역), 남부/남동부(상파울루 등 7개 지역), 중서부(디스토리토페데랄 등 4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브라질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6.1%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 전체 평균을 17.2%p 하회함[전체 : 23.3%]

⇒ 브라질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률은 남부/남동부(상파울루 등, 6.4%), 북부/북동부(6.2%), 중서부(5.5%)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브라질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2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일본(70.7%), 한국·중국(각 49.6%), 태국(43.4%), 홍콩(37.7%) 등 순[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브라질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은 북부/북동부(56.8%), 남부/남동부(50.6%), 중서부(32.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브라질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244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39.4%), 한국(16.8%), 태국(16.2%), 중국(11.7%) 등을 꼽음[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모든 세부 지역에서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일본'을 가장 많이 선택함(남부/남동부 42.5%, 중서부 36.9%, 북부/북동부 36.2%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최우선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브라질인(n=41명)이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중복응답 기준)은 '대중매체'(56.4%), '전통문화/역사'(46.8%), '관광지/관광명소'(45.2%) 등 순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브라질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88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37.2%),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32.1%),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21.1%)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 한국여행 비의향 요인으로 '불편한 언어소통' 선택자(n=33명)는 방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1+2+3순위 기준)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의사 전달 어려움'(77.6%), '현지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어려움'(69.5%), '외국인을 위한 표지판/안내문 체계 부족'(42.9%) 등을 주로 꼽음

1-3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브라질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8.5%),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43.9%),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28.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브라질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71.7%), 'Instagram'(57.4%), 'TikTok'(36.5%)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브라질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Booking.com'(65.2%), 'Decolar.com'(56.0%), 'Airbnb'(52.6%) 등을 주로 활용

1-4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브라질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78.7%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전체 : 78.9%]

⇒ 일반 브라질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영화(37.9%), 한국 드라마(34.8%), 한국 음식(33.8%), 한국 대중가요(30.0%), 한국 뷰티(22.4%)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366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드라마(22.8%), 한국 영화(17.9%), 한국 음식(14.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영화' 최선호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69점[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브라질인(상파울루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51.2%[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2.2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6.1%[전체 : 93.1%]. 이 중 방문 경험률은 조사 대상국 중 로마 거주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으나, 전년(45.0%) 대비 6.2%p 상승. 한편, 방문 만족도의 경우 전년(91.8%) 대비 4.3%p 증가하며,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증가폭이 높게 나타남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35.8%), 김치(29.5%), 비빔밥(21.8%), 불고기(19.6%), 김치볶음밥(16.2%) 등 순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브라질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88.6%[전체 : 82.3%], 조사 대상국 중 7위 기록. 전년(88.8%) 대비 소폭(-0.2%p) 감소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47.1%), 경제 수준(27.2%), 과학기술 및 제품 및 브랜드(각 24.5%), 문화예술(23.5%)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브라질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K-pop (22.8%), 한국 드라마(15.5%), 한국 영화(8.2%), IT제품·브랜드(6.0%)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 연상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브라질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8,872천 명, 2017년 10,610천 명, 2018년 10,628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19년 이후 값은 원자료에 미수록

2-2 주요 경쟁국 방문 현황(일본)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訪日外客統計」에 따르면

✔ **(일본 방문 규모)** 일본을 방문하는 브라질인 수는 2016년 36,888명, 2017년 42,207명,

2018년 44,201명, 2019년 47,575명, 2020년 6,888명, 2021년 2,731명, 2022년 9,436명, 2023년 50,570명, 2024년 85,609명, 2025년 110,594명

⇒ 2025년 기준 전체 방일 외래객 중에서 브라질인은 0.3%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2% 증가

2-3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내 세부 지역은 북부/북동부(리오그란데두노르치 등 16개 지역), 남부/남동부(상파울루 등 7개 지역), 중서부(디스토리토페데랄 등 4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브라질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58.3%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62.7%[전체 : 58.8%]이며, 해외여행 의향자(n=292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2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브라질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남부/남동부(67.9%), 중서부(56.6%), 북부/북동부(46.6%)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 또한 남부/남동부(66.5%), 중서부(62.1%), 북부/북동부(58.2%) 거주자 순으로 높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브라질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292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73.3%),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73.0%),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39.9%)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상위 3개 요인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브라질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92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63.6%),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38.1%),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해서'(36.1%)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국내여행 선호'는 첫 번째로, '경제적 여유 불충분' 영향력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2월 중순~3월 초에 열리는 '카니발'(Carnival)은 브라질 최대 여행 성수기로, 연방법상 국가 공휴일은 아닌 '임의 휴무일(ponto facultativo)'로 운영됨. 다만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많은 기업이 휴무하고 일부 주·시는 별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이외 12월 크리스마스 및 연말도 최대 여행 성수기임. 한편, 브라질 내 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연간 3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방학 현황)** 남반구 국가인 브라질의 경우 한국과 계절이 반대이면서, 1월이 여름 방학(가장 긴 방학)이며, 7월이 겨울 방학(통상 2~4주)임. 대부분 학교는 2월 초~중순에 학기를 시작하여, 12월 중순에 학기를 마침

✔ **(비자/규제 현황)** 브라질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69개국으로, 전 세계 16위(2025년 16위, 전년과 동일,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브라질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 ~ 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IBGE에 따르면 2025년 브라질 경제는 2.3% 성장하며 전년(3.4%) 대비 모멘텀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GDP R$ 12조 7,000억 헤알). 동년 무역수지 흑자는 US$ 682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9% 감소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수출·수입 모두 사상 최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對美 수출 감소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2026년 상반기)** 2026년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1.1% 성장하며 전분기(+0.3%) 대비 뚜렷한 반등세를 기록(전년 동기 대비 +1.8%). 2026년 상반기 무역흑자는 US$ 423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5% 급증하며 중국향 수출 다변화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파악됨. 다만 대선(2026.10)을 앞둔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8.6%(Fitch 전망)로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핵심 리스크로 꼽힘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브라질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사우디아라비아



305

요약 | 사우디아라비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주요 항목</th><th>출처</th></tr>
<tr><td rowspan="2">한국
여행
현황</td><td colspan="2">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td><td>방한 비중
(순위)</td><td colspan="2">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계층
(상위 2위)</td><td rowspan="2">2025
한국
관광
통계</td></tr>
<tr><td colspan="2">20,998명
(-7.3%)</td><td>0.1%
(42위)</td><td>인천공항
(94.8%)</td><td>김포공항
(2.8%)</td><td>30대 남성
(19.5%)</td><td>20대 여성
(18.1%)</td></tr>
<tr><td rowspan="4">한국
여행
수요</td><td>전 생애
방한 경험</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td><td rowspan="8">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td></tr>
<tr><td>21.1%</td><td>말레이시아
(61.1%)</td><td>일본
(57.6%)</td><td>한국
(55.7%)</td><td>일본
(16.5%)</td><td>한국
(16.2%)</td><td>말레이시아
(15.4%)</td></tr>
<tr><td colspan="2">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2">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td></tr>
<tr><td>TikTok
(54.5%)</td><td>YouTube
(50.4%)</td><td>Booking.
com
(47.8%)</td><td>Saudi.com
(30.0%)</td><td>여행지로서
낮은 인지도
(31.4%)</td><td>불편한
언어소통
(28.7%)</td><td>불편한
종교환경
(21.2%)</td></tr>
<tr><td rowspan="2">해외
여행
수요</td><td>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td><td>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td><td colspan="2">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td><td colspan="3">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n=25명)</td></tr>
<tr><td>86.6%</td><td>75.6%</td><td>여유로운
일상
(68.7%)</td><td>역사/문화
경험
(45.6%)</td><td>경제적
여유 부족
(51.5%)</td><td>경비/물가
상승
(42.6%)</td><td>환율
부적합
(34.0%)</td></tr>
</table>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사우디아라비아인 수는 20,998명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2019년 대비 148.3% 회복)

⇒ 2019년 14,158명, 2020년 1,716명, 2021년 1,098명, 2022년 8,491명, 2023년 17,349명, 2024년 22,651명, 2025년 20,998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인은 0.1%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42위를 기록

⇒ 2019년 0.1%(41위), 2020년 0.1%(51위), 2021년 0.1%(54위), 2022년 0.3%(37위), 2023년 0.2%(38위), 2024년 0.1%(37위), 2025년 0.1%(42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사우디아라비아인의 방문 시기는 7월(2,598명), 11월(2,566명), 6월(2,512명), 10월(2,157명), 4월(2,049명) 순. 주로 하계/추계 시즌에 방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19,914명, 94.8%), '김포공항'(580명, 2.8%), '김해공항'(247명, 1.2%) 등 순으로,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이 대다수임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30대 남성'(4,084명, 19.5%), '20대 여성'(3,791명, 18.1%), '20대 남성'(2,860명, 13.7%), '30대 여성'(2,770명, 13.2%) 등 순으로, 20~30대 청년층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표하는 「외래관광객 조사」에서 '중동인'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다양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방한한 외래객을 포함함.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인의 방한여행 행태 대체자료로 중동인 통계값을 사용함

✔ **(재방문율)** 방한 중동인의 재방문율은 49.4%[전체 : 56.6%], 평균 방한 횟수는 2.6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중동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41.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35.8%),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7.9%)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중동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43.4%), 사업 또는 전문활동(35.9%), 친구/친지 방문(13.4%), 교육(5.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사업 또는 전문활동'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여가/위락/휴식' 비중은 세 번째로 낮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중동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5.5%)과 단체여행(4.2%)이며, 에어텔은 0.3%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중동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7.3%), 경기(20.3%), 부산(13.1%), 인천(11.7%), 제주(4.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인천' 방문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중동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76.4%),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19.2%), 지방 한정(4.4%)으로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중동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77.3%), 식도락 관광(61.0%), 자연경관 감상(50.0%),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48.8%), 비즈니스 전문활동(32.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비즈니스 전문활동'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중동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6.8%), 대형쇼핑몰(50.2%), 백화점(38.3%), 전통시장(19.2%) 등 순[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중동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5.6%), 의류(55.0%), 식료품(35.0%), 신발류(27.5%), 보석/악세서리(24.1%)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중동인은 한국에 평균 9.6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716.6[전체 : USD 1,801.9] 및 1일 평균 USD 355.1[전체 : USD 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중동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8%[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87.8%[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7.5%[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내 세부 지역은 리야드(리야드), 메카(메카), 기타(젯다·담맘·타부크 등 13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사우디아라비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21.1%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23.3%]

⇒ 사우디아라비아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률은 메카(32.5%), 리야드(17.4%), 기타 지역(15.6%)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사우디아라비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51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말레이시아(61.1%), 일본(57.6%), 한국(55.7%), 인도네시아(55.0%), 중국(54.8%) 등 순[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사우디아라비아 세부 지역별 '한국 방문 의향'(해외여행 의향자 기준)은 메카(59.3%), 기타 지역(54.2%), 리야드(53.7%) 거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사우디아라비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31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16.5%), 한국(16.2%), 말레이시아(15.4%), 중국(11.4%), 인도네시아(10.6%) 등을 꼽음[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메카 거주자는 '한국'(26.5%)을, 기타 지역·리야드 거주자는 '일본'(각 18.5%, 18.0%)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최우선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방문 결정 영향 요인)** 최우선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사우디아라비아인(n=54명)이 한국 방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중복응답 기준)은 '개인·인플루언서 제작 짧은 영상 콘텐츠'(51.3%), '대중매체'(45.1%), '유명 인플루언서/연예인 여행 후기'(33.6%) 등 순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사우디아라비아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66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31.4%), '불편한 언어소통'(28.7%), '불편한 종교 환경'(21.2%)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종교 환경'의 영향력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3.9%),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37.6%),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32.2%)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 시청' 영향력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TikTok'(54.5%), 'YouTube'(50.4%), 'Instagram'(31.1%)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Booking.com'(47.8%), 'Saudi.com'(30.0%), 'Almosafer.com'(20.3%)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두바이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Musafir 등 사우디아라비아(GCC) 대표 여행사에서 판매되었던 방한 여행 상품들은 5박 6일 일정(서울·경기 관광지 포함)에 1박 단가 USD600(약 83만원) 대로, 일본 상품(동일 기간, 1박 단가 USD327, 약 45만원)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태국 및 베트남 상품 대비 지리적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편. 최근들어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항공편 축소, 여행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중장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사우디아라비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87.2%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음[전체 : 78.9%]

⇒ 일반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드라마(39.9%), 한국 음식(35.7%), 한국 영화(35.6%), 한국 뷰티(27.3%), 한국 게임(25.1%)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한국 게임' 경험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05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드라마(17.9%), 한국 영화(15.1%), 한국 음식(14.4%)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70점 [전체 : 3.62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인은 0.2%(3,102명, 전년 대비 81.6%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22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1,861명), 내과통합(396명), 성형외과(218명) 등 순

⇒ 주요 고객은 여성(2,276명, 73.4%)과 30대(1,260명, 41.1%) 및 20대(765명, 25.0%)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3,015명)

1-6 한국 이미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한국 드라마(9.9%), 뷰티 제품/화장품(8.9%), IT제품·브랜드(8.3%), 한국 음식(7.7%), K-pop (7.0%)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IT제품·브랜드'는 두 번째, '뷰티제품/화장품'은 세번째로 연상도가 높게 나타남 [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21,207천 명, 2017년 21,146천 명, 2018년 19,751천 명, 2019년 19,010천 명, 2020년 4,839천 명, 2021년 8,415천 명, 2022년 16,882천 명, 2023년 20,536천 명, 2024년 23,963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4년 기준 2019년의 126.1% 수준 기록

2-2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내 세부 지역은 리야드(리야드), 메카(메카), 기타(젯다·담맘·타부크 등 13개 지역)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사우디아라비아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86.6%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면서 전체 평균을 12.1%p 상회함[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75.6%로 전체 평균을 16.7%p 상회하며[전체 : 58.8%], 해외여행 의향자(n=351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3.8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사우디아라비아 세부 지역별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률은 리야드(91.5%), 메카(86.3%), 기타 지역(83.1%) 거주자 순.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률은 메카(81.3%), 리야드(74.9%), 기타 지역(71.8%) 거주자 순으로 높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사우디아라비아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51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68.7%),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45.6%),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위해'(33.1%) 등 순. 조사 대상국 중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영향력이 세 번째로 높음[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사우디아라비아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25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51.5%),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42.6%), '해외여행을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율 때문에'(34.0%)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 30표본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

2-3 해외여행 트렌드

✔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상호 비자 면제 시행)**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2026년 5월 11일부터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시행하면서, 양국은 비자 없이 회당 최대 90일까지 상대국에 체류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양국 간 항공 노선 증편 및 관광상품 개발 가속화가 예상됨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두바이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노동법」 제6장에서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나, 이슬람력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Ramadan) 기간에는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단축됨.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동법 제6장 제4절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2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한편, 대표적인 공휴일이자,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와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의 정확한 일자는 헤즈라력(이슬람력,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서 매년 날짜가 일주일~열흘 가량 앞당겨지기도 함. 이 중 이드 알피트르 휴일은 라마단이 끝난 다음날부터 7일간이나, 통상적으로 라마단 종료 전 1주일부터 시작해 거의 2주간 휴무를 지내며, 현지 관공서 직원들의 경우 약 2주 전부터 휴가를 떠나는 경우도 많음

✔ **(방학 현황)** 초·중·고·대학교의 방학은 10월 중순~10월 말(1주), 12월 중순~1월 초(2~3주), 3월 중순(1주)이며 학기말은 6월 중순~8월 말(8~11주)

✔ **(비자/규제 현황)** 사우디아라비아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90개국으로, 전 세계 54위(2025년 59위, 전년 대비 5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사우디아라비아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 (※단, 2023년 4월 ~ 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 GDP 약 1조 2,769억 달러·1인당 GDP 3만 5,460달러·

인구 3,600만 명 규모의 GCC 최대 시장이자 세계 2위 산유국(전 세계 석유의 약 16% 매장). 원유 수출 기반 공공부문이 경제의 중추이며, 주요 기업(ARAMCO·SABIC·Maaden 등)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음

✔ **(2026년)**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일부 감소가 예상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26년 평균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7% 가량(882만 배럴) 감소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원유 생산량 증가는 사우디 1분기 재정적자를 크게 심화시킴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외래관광객 조사」문화체육관광부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한식진흥원 ⑤「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국가이미지 조사」해외문화홍보원 ⑦「해외한류실태조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訪日外客統計」일본정부관광국(JNTO) ③「잠재 방한여행객 조사」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Henley Passport Index」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KOTRA 해외시장뉴스」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아랍에미리트



317

요약 | 아랍에미리트

구분	주요 항목							출처
한국 여행 현황	**방한 규모 (전년 대비 증감률)**		**방한 비중 (순위)**	**방한 시 입국 장소 (상위 2위)**		**방한 계층 (상위 2위)**		2025 한국 관광 통계
	9,243명 (+3.3%)		0.05% (58위)	인천공항 (95.5%)	김포공항 (2.0%)	20대 여성 (14.6%)	30대 남성 (14.0%)	
한국 여행 수요	**전 생애 방한 경험**	**향후 3년 내 주요 아시아 목적지 방문 의향 (상위 3위)**			**향후 3년 내 최우선 아시아 목적지 (상위 3위)**			2025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16.6%	싱가포르 (71.9%)	일본 (70.9%)	태국 (70.2%)	일본 (16.5%)	태국 (12.4%)	인도·중국·싱가포르 (각 12.1%)	
	방한 정보 획득 사이트 (상위 2위)		**방한 상품 구매 사이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한국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TikTok (53.4%)	Instagram (49.0%)	Booking.com (51.1%)	Emirates.com (36.9%)	불편한 언어소통 (33.6%)	불편한 종교환경 (20.3%)	여행지로서 낮은 인지도 (19.7%)	
해외 여행 수요	**전 생애 해외여행 경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해외여행 의향 결정 요인 (상위 2위)**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없는 이유 (상위 3위, n=28명)**			
	97.3%	84.2%	여유로운 일상 (52.4%)	일상 벗어나기 (40.9%)	경비/물가 상승 (53.5%)	경제적 여유 부족 (38.7%)	시간 부족 (33.2%)	

1 한국여행 동향

1-1 한국여행 현황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 **(방한 규모)** 2025년 방한 아랍에미리트인 수는 9,243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2019년 대비 69.9% 수준으로 회복 중)

⇒ 2019년 13,226명, 2020년 1,460명, 2021년 1,429명, 2022년 4,736명, 2023년 7,402명, 2024년 8,946명, 2025년 9,243명

✔ **(방한 비중 및 순위)** 2025년 전체 방한 외래객 중에서 아랍에미리트인은 0.05%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순위에서 58위를 기록

⇒ 2019년 0.1%(45위), 2020년 0.1%(56위), 2021년 0.1%(48위), 2022년 0.1%(50위), 2023년 0.1%(57위), 2024년 0.1%(57위), 2025년 0.05%(58위)

✔ **(방한 시기)** 2025년 방한 아랍에미리트인의 방문 시기는 4월(1,213명), 12월(1,199명), 10월(1,041명), 7월(982명), 11월(923명) 등 순으로, 봄·가을·연말에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

✔ **(방한 시 입국 장소)** 2025년 방한 아랍에미리트인의 주요 입국 장소는 '인천공항'(8,830명, 95.5%), '김포공항'(184명, 2.0%), '김해공항'(155명, 1.7%) 등 순으로,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이 대다수임

✔ **(방한 계층)** 2025년 기준 방한 아랍에미리트인의 주요 계층(승무원 제외)은 '20대 여성'(1,275명, 14.6%), '30대 남성'(1,224명, 14.0%), '30대 여성'(1,105명, 12.6%), '20대 남성'(1,093명, 12.5%) 등 순으로, 20~30대 청년층이 방한을 주도

1-2 한국여행 실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표하는 「외래관광객 조사」에서 '중동인'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다양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방한한 외래객을 포함함. 이에 아랍에미리트인의 방한여행 행태 대체자료로 중동인 통계값을 사용함

✔ **(재방문율)** 방한 중동인의 재방문율은 49.4%[전체 : 56.6%], 평균 방한 횟수는 2.6회[전체 : 3.9회]로 나타남

✔ **(관심 계기)** 방한 중동인이 한국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1+2+3순위 기준)는 새로운

국가에 가고 싶어서(41.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35.8%),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27.9%) 등 순[전체 :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40.1%,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 32.1%, 이동거리/비행시간이 적합해서 26.9% 등 순]

✔ **(주요 목적)** 방한 중동인의 주요 목적은 여가/위락/휴식(43.4%), 사업 또는 전문활동(35.9%), 친구/친지 방문(13.4%), 교육(5.0%)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사업 또는 전문활동'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여가/위락/휴식' 비중은 세 번째로 낮음[전체 : 여가/위락/휴식 70.9%, 사업 또는 전문활동 15.2%, 친구/친지 방문 10.1%, 교육 3.4%, 기타 0.4% 순]

✔ **(여행 형태)** 방한 중동인의 주된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95.5%)과 단체여행(4.2%)이며, 에어텔은 0.3% 차지[전체 : 개별여행 80.1%, 단체여행 11.5%, 에어텔 8.3% 순]

✔ **(방문 지역)** 방한 중동인의 방문 지역(중복응답 기준)은 서울(87.3%), 경기(20.3%), 부산(13.1%), 인천(11.7%), 제주(4.8%)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인천' 방문 비중이 가장 높음[전체 : 서울 76.8%, 부산 15.7%, 경기 11.2%, 제주 9.7%, 인천 6.1% 등 순]

⇒ 방한 중동인의 지역 방문율은 수도권 한정(76.4%),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19.2%), 지방 한정(4.4%)으로 나타남[전체 : 수도권 한정 67.3%, 지방 한정 18.3%, 수도권+지방 모두 방문 14.4%]

✔ **(참여 활동)** 방한 중동인의 주요 참여활동(중복응답 기준)은 쇼핑(77.3%), 식도락 관광(61.0%), 자연경관 감상(50.0%),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48.8%), 비즈니스 전문활동(32.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비즈니스 전문활동'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음[전체 : 식도락 관광 81.6%, 쇼핑 80.3%, 자연경관 감상 53.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3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1.4% 등 순]

✔ **(쇼핑 장소)** 방한 중동인의 주된 쇼핑 장소(1+2+3순위 기준)는 로드샵(56.8%), 대형쇼핑몰(50.2%), 백화점(38.3%), 전통시장(19.2%) 등 순[전체 : 로드샵 50.9%, 대형 쇼핑몰 39.1%, 백화점 34.5% 등 순]

✔ **(쇼핑 품목)** 방한 중동인이 주로 구매한 품목(중복응답 기준)은 향수/화장품(65.6%), 의류(55.0%), 식료품(35.0%), 신발류(27.5%), 보석/악세서리(24.1%) 등 순[전체 : 향수/화장품 71.3%, 식료품 56.2%, 의류 49.7%, 신발류 16.7% 등 순]

✔ **(체재 기간 및 지출금액)** 방한 중동인은 한국에 평균 9.6일[전체 : 6.5일] 체류하며, 국제교통비 포함 1인 평균 USD 2,716.6[전체 : USD 1,801.9] 및 1일 평균 USD 355.1[전체 : USD 321.9]를 지출

✔ **(만족도 평가)** 방한 중동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전반적 만족도 97.8%[전체 : 97.5%],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87.8%[전체 : 92.5%], 타인추천 의향 97.5%[전체 : 96.3%] 기록

1-3 한국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전 생애 한국 여행 경험)** 일반 아랍에미리트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16.6%는 전 생애 중 한국 여행 경험이 있음[전체 : 23.3%]

✔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향후 3년 내 방문 의향)** 일반 아랍에미리트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91명)의 주요 아시아 여행 목적지별 방문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싱가포르(71.9%), 일본(70.9%), 태국(70.2%), 말레이시아(70.0%), 중국(65.0%), 한국(57.0%) 등 순. 모든 주요 아시아 목적지에 대한 방문 의향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태국' 및 '말레이시아'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전체 : 일본 64.9%, 한국 55.2%, 싱가포르 49.6%, 태국 49.4%, 중국 47.5% 등 순]

✔ **(향후 3년 내 방문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 일반 아랍에미리트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 & 아시아 방문 의향자(n=377명)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시아 여행 목적지로 1개를 선택한 결과, 일본(16.5%), 태국(12.4%), 인도, 중국, 싱가포르(각 12.1%), 말레이시아(12.0%), 한국(6.6%) 등을 꼽음. 이 중 '인도' 최우선 방문 의향은 조사 대상국 중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는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반면, '한국' 최우선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을 10.1%p 하회함[전체 : 일본 27.4%, 한국 16.7%, 중국 9.6%, 태국 9.3%, 싱가포르 9.2% 등 순]

✔ **(향후 3년 내 한국 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아랍에미리트인 중 한국여행 비의향자(5점 리커트 척도 중 1점과 2점 응답자, n=73명)는 방문 의향이 없는 요인(1+2+3순위 기준)으로 '불편한 언어소통'(33.6%), '불편한 종교 환경'(20.3%),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19.7%) 등을 주로 꼽음. 조사 대상국 중 '불편한 종교 환경' 영향력을 세 번째로 높게 평가함[전체 : 불편한 언어소통 24.6%, 한류 문화 관련 관심 부재 24.2%, 여행 목적지로서 낮은 한국 인지도 23.3% 등 순]

1-4 한국여행 관련 정보 및 상품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방한 의향자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방문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 방한 의향이 있는 아랍에미리트인(n=465명)의 주요 정보원(중복응답 기준)은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45.6%),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관련 영상 콘텐츠 시청'(35.0%), '주변 사람 추천'(32.4%) 등 순[전체 : SNS/동영상 플랫폼 검색 38.9%, 주변 사람 추천 31.8%, 여행 관련 온라인 전문 사이트 방문 29.6% 등 순]

✔ **(한국 방문 관련 정보 획득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아랍에미리트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YouTube'(53.4%), 'Instagram'(49.0%), 'TikTok'(42.9%) 등을 꼽음

✔ **(한국 방문 관련 상품 구매 주요 사이트/앱)** 방한 의향이 있는 아랍에미리트인(n=465명)은 주요 활용 사이트/앱(1+2+3순위 기준)으로 'Booking.com'(51.1%), 'Emirates.com'(36.9%), 'Etihad.com'(18.3%) 등을 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두바이 지사에 따르면

✔ **(주요 방한 상품)** AFC Holidays 등 아랍에미리트 대표 온라인 여행사에서 판매되었던 방한 여행상품들은 7박 8일 일정에 1박 단가 USD430(약 60만원) 대로, 일본 상품(동일 기간, 1박 단가 USD358, 약 50만원) 대비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태국 및 베트남 상품 대비 지리적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편. 한편, 최근 지정학적 위기 장기화와 이스라엘 등 주변국 전쟁 등의 영향으로 중장거리 해외여행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

1-5 주요 방한 테마별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한국 문화 경험률)** 일반 아랍에미리트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3.2%는 한국 문화 경험이 있어 전체 평균을 14.4%p 상회함[전체 : 78.9%]

⇒ 일반 아랍에미리트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중복응답 기준)는 한국 영화(47.3%), 한국 음식(45.1%), 한국 드라마(44.5%), 한국 뷰티(38.1%), 한국 패션(31.8%) 등 순[전체 : 음식 44.0%, 드라마 36.5%, 영화 34.8%, 대중가요 27.6%, 뷰티 26.4% 등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한국 문화 경험자(n=433명)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 드라마(18.9%), 한국 뷰티(15.9%), 한국 영화(14.9%) 등 순[전체 : 음식 25.4%, 드라마 16.9%, 영화 12.7% 순]

⇒ 가장 선호하는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5점 만점)은 3.87점[전체 : 3.62점]

한식진흥원의 「2025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 **(현지 한식당 방문 경험률)** 월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아랍에미리트인(두바이 거주)의 최근 1년 내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74.2%[전체 : 71.7%]

⇒ 방문 빈도 월 3.1회[전체 : 월 2.0회], 방문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97.0%[전체 : 93.1%]. 한식당 방문 빈도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고, 만족도는 마닐라 거주

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방문 경험률의 경우 전년(66.6%) 대비 7.6%p 상승하며, 멕시코시티 거주자와 동일하게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함

⇒ 주 취식 메뉴(중복응답 기준)는 한국식 치킨(29.9%), 김치(25.1%), 만두(20.6%), 김치볶음밥(19.7%), 불고기(15.4%) 등 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방한 의료 관광객 규모)** 2025년 전체 방한 외국인 환자(2,011,822명) 중에서 아랍에미리트인은 0.1%(2,443명, 전년 대비 39.0% 증가) 차지하며,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순위에서 26위를 기록함

⇒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1,188명), 내과통합(389명), 성형외과(268명) 등 순

⇒ 주요 고객은 여성(1,668명, 68.3%)과 30대(707명, 29.1%), 20대(534명, 22.0%), 40대(511명, 21.0%)

⇒ 방문한 의료기관의 주요 소재지는 서울(2,361명)

1-6 한국 이미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5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 **(한국 호감도)** 한국을 인지하는 아랍에미리트인의 한국 호감도(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는 94.8%[전체 : 82.3%]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음. 전년(92.0%) 대비 2.8%p 상승

⇒ 호감도 긍정 영향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 문화콘텐츠(34.8%), 현대생활문화(27.2%), 제품 및 브랜드(23.2%), 전통문화유산(20.9%), 과학기술(20.7%) 등을 꼽음[전체 : 문화콘텐츠 45.2%, 현대생활문화 31.9%, 제품 및 브랜드 28.7%, 경제 수준 21.2%, 전통문화유산 19.7%, 문화 예술 19.2%, 과학기술 18.4% 등 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 **(한국 연상 이미지)** 한류를 경험한 아랍에미리트인의 주된 한국 연상 이미지(1순위 기준)는 한국 드라마(11.3%), 한국 음식(8.9%), 뷰티 제품/화장품(8.6%), IT제품·브랜드(8.0%) 등 순 [전체 : K-POP 17.5%, 한국 음식 12.1%, 한국 드라마 9.5% 순]

2 해외여행 동향

2-1 해외여행 현황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에 따르면

✔ **(해외여행 규모)** 아랍에미리트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6년 18,222천 명, 2017년 18,356천 명, 2018년 18,454천 명, 2019년 18,395천 명, 2020년 6,284천 명, 2021년 7,258천 명

⇒ 지표 : Departures of overnight visitors (tourists) – 숙박관광객만 포함(단위 천 명)

⇒ 2022년 이후 값은 원자료에 미수록

2-2 해외여행 수요

한국관광공사의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내 일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 **(해외여행 경험 및 의향)** 일반 아랍에미리트인 전체 응답자(n=465명)의 97.3%는 전 생애 중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남[전체 : 74.5%]. 향후 3년 내(~2028년) 해외여행 의향(5점 리커트 척도 중 4점과 5점 응답 비율) 또한 84.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으며[전체 : 58.8%], 해외여행 의향자(n=391명)의 예상 여행 횟수는 평균 4.8회로 나타남[전체 : 3.8회]

✔ **(해외여행 의향 결정 영향 요인)** 일반 아랍에미리트인 중 해외여행 의향자(n=391명)의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1+2+3순위 기준)은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52.4%),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40.9%),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38.3%) 등 순으로, 조사 대상국 중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남[전체 : 현지의 역사/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53.5%,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52.4%,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위해 50.1% 등 순]

✔ **(향후 3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일반 아랍에미리트인 중 해외여행 비의향자(n=28명)는 그 이유(1+2+3순위 기준)로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53.5%),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38.7%), '해외여행을 갈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33.2%) 등을 주로 꼽음[전체 : 해외여행을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47.0%,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0.4%, 전반적인 해외여행 경비/물가 상승 때문에 29.4% 등 순]

※ 30표본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

2-3 해외여행 트렌드

✔ **(중동 전쟁 발발과 얼리버드·스테이케이션 유행)** 2026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교통비 상승으로 큰 장거리 노선 보다 교통비가 적게 드는 근거리 국가나, 국내 '로드트립' 그리고 '스테이케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국제선 출발 15~45일 전 사전 예약을 하거나, 금요일에 출발하여 항공 비용을 최대 18% 절감할 수 있는 전략적 출발일 조율이 트렌드로 정착되었음. 참고로 무슬림 대표 공휴일인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 연휴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 거주자의 73%가 국내에서 보낼 계획이며, 해외여행은 9%에 그쳤음. 이들 여행 수요의 절반 이상이 안전 우려 및 항공편 고립 가능성을 고려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셍겐 비자 규제 완화와 유럽 여행 수요 확대)** 2026년 2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아랍에미리트 거주자를 포함한 주요 우방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기존 5년 상한을 초과하는 '초장기 복수 비자' 도입과 '비자 신청 절차의 전면 디지털화' 계획을 발표함. 기존에 유럽 여행의 주요 장애물으로 꼽혔던 비자 인터뷰 대기와 잦은 재신청 비용 문제가 2028년까지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선될 예정임

✔ **(아랍에미리트인 공항 소비 지출 지수, 세계 2위)**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여행 소매 산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여행객의 공항소비 지출 지수는 78.8로 중국(100)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면세품 구매지수는 95.7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소비력을 보임. 특징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인들은 고소득과 특유의 선물 문화, 잦은 해외 출입국 빈도, 타국 대비 낮은 가격 민감도에 따른 향수, 화장품, 럭셔리 제품을 구매 성향이 높은 편임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관광라이브러리>해외시장동향(두바이 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휴가/연휴 현황)** 대표적인 공휴일이자,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와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의 정확한 일자는 헤즈라력(이슬람력,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서 매년 날짜가 일주일~열흘 가량 앞당겨지기도 함. 이 중 이드 알피트르 휴일은 라마단이 끝난 다음날부터 7일간이나, 통상적으로 라마단 종료 전 1주일부터 시작해 거의 2주간 휴무를 지내며, 현지 관공서 직원들의 경우 약 2주 전부터 휴가를 떠나는 경우도 많음.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고용자는 6개월 이상~1년 이하 근로 시 1개월에 2일, 1년 이상 근로 시 연간 3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함. 기업 휴가는 혹서기인 7~8월에 50%, 1~3월에 30% 가량 집중됨

✔ **(방학 현황)** 초·중·고의 방학은 3월 말~4월 초(2주 반), 7월 초~8월 말(7주), 12월 중순~1월 초(3주)이고, 대학교의 방학은 6월 두 번째 주~9월 중순(3개월), 1월 두 번째 주~2월 중순(3~4주)

✔ **(비자/규제 현황)** 아랍에미리트인의 비자 면제국가는 188개국으로, 전 세계 2위(2025년 8위, 전년 대비 6단계 상승, 출처 : Henley Passport Index, 2026) 기록. 아랍에미리트인은 한국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간 체류가 가능하나, 방한 전 K-ETA 승인 필요(※단, 2023년 4월~2026년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 면제)

4 경제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 **(2024~2025년)** 2024년 아랍에미리트 경제성장률은 IMF 기준 4.0%였으며, 2025년에는 비석유 부문의 견조한 성장과 OPEC+ 생산 확대에 힘입어 5.8%를 기록해 IMF 전망치(4.8%)를 상회(GCC 역내 최고 성장). 관광·금융서비스·부동산 분야 강세가 이를 뒷받침

✔ **(2026년 상반기)** 2026년 2월 발발한 중동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걸프 항공 공역 제한 등 충격이 발생해 두바이 호텔 객실 점유율이 전쟁 직전 84.8%에서 2026년 3월 중순 22.8%로 급락, 두바이 국제공항 1분기 이용객도 전년 대비 약 21% 감소. 아랍에미리트는 2026년 5월 OPEC·OPEC+ 공식 탈퇴를 선언했으며,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다각화된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회복을 모색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 경제 동향(2026.07)

자료출처

1. **한국여행 동향** ▸ 출처 : ①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② 「외래관광객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⑥ 「국가이미지 조사」 해외문화홍보원 ⑦ 「해외한류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⑧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 **해외여행 동향** ▸ 출처 : ① 「All Countries : Outbound Tourism : Indicators 1995-2024(2025.12)」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② 「訪日外客統計」 일본정부관광국(JNTO) ③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한국관광공사 ④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 **여행 관련 제도 동향** ▸ 출처 : ① 「Henley Passport Index」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4. **경제 동향** ▸ 출처 : ①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②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026 국가별 방한 관광 시장 분석

발 행 일 : 2026년 11월

발 행 처 : 한국관광공사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담당부서 : 관광데이터서비스팀
033-738-3327

편집/인쇄 : 웃고문화사
033-748-6577

ISBN 978-89-8238-247-5